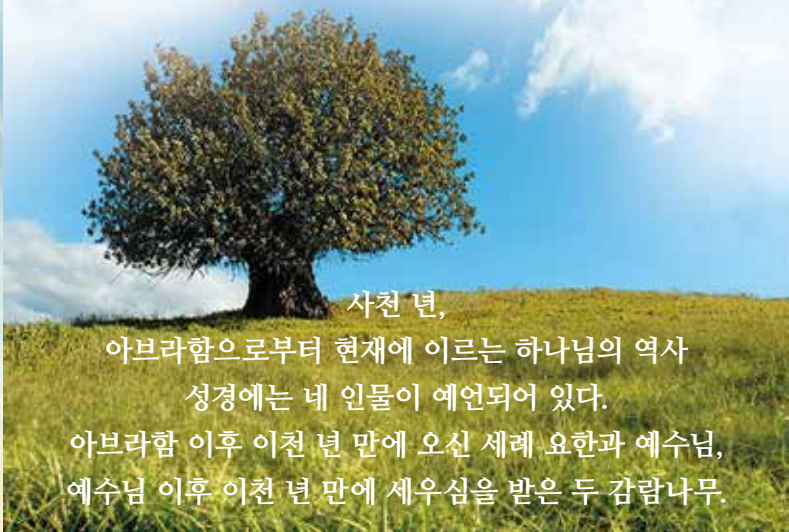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신앙 간증담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신앙 간증담

발행일 | 2012년 8월 30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96-0

ISBN 978-89-6449-223-9 (세트)

신앙 간증담

Prologue

통합 간증담 발간에 붙여

기독교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다. 체험이 없는 이론만으로는 종교가 완성될 수 없다. 이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물론 성경에 의해 증거 되고 있지만, 또한 살아 계신 신의 역사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체험이다.

이미 1979년에 간증담 제1권이 간행되었고, 1987년에 간증담 제2권이 발간되었다. 여기 덧붙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간행된 ‘월간에텐’과 ‘계간에텐’에 실린 간증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간증담으로 발행하게 되었다. 총 96개의 간증들 중에 일부만 이 책에 담을 수밖에 없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 선정 작업은 신창기 성회장, 곽윤종 성회장, 박종구 성회장, 김정일 성회장, 유기현 성회장, 그리고 정운순 성회장께서 참여해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증의 내용은 주로 은혜 체험과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듣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깨달음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외의 개인적인 독특한 체험이 있는 간증을 선택하려고 하였다. 그중에는 이미 일제 강점기에 이상 중에 에텐성회의 알곡성전(1987년 건축)을 본 것과 역시 일제 강점기에 계시를 받아 감람나무를 예언한 목사님들의 이야기, 주께서 꿈에 보여주셔서 만나 보기도 전에 이영수 총회장을 보았다든가, 지어지기도 전에 성전과 부속 건물들의 모습을 본 체험들이 있다.

간증 배열은 간증인이 교회에 등록한 순서로 하였다. 이 귀한 증언들이 읽는 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인 것을 깨닫고 함께 참여하여 복 받으시길 바란다.


2012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통합 간증담 발간에 붙여 04

- 01 원로회장 하천석 08
- 02 원로성회장 신경현 16
- 03 권사 김원희 23
- 04 권사 이윤남 37
- 05 권사 박금하 45
- 06 권사 전필순 51
- 07 권사 김옥선 65
- 08 권사 윤문섭 75
- 09 권사 전명자 88
- 10 권사 조영희 103
- 11 원로성회장 박상석 111
- 12 권사 김옥경 123
- 13 권사 김몽희 129
- 14 권사 한광자 141
- 15 원로성회장 김창식 146

- 
- 16 권사 최은영 156
 - 17 권사 이순여 161
 - 18 권사 한상결 171
 - 19 집사 한은화 178
 - 20 원로성회장 김윤성 185
 - 21 권사 조삼순 192
 - 22 장로 성낙원 230
 - 23 원로성회장 송원익 244
 - 24 집사 이선순 261
 - 25 집사 박충기 269
 - 26 장로 김길곤 276
 - 27 권사 최순호 286
 - 28 장로 김홍술 294
 - 29 장로 신동운 304

Chapter 01.

원로회장 하천석



하천석: 1927년생. 1957년부터 전도관을 다녔고, 1973년에 에덴성회로 전향하여 선교를 위한 부흥협회장으로, 1978년부터 선교원장으로 활동했다. 2003년 퇴임한 후 원로성회장들의 모임인 원로회를 이끌고 있다.

출처: 간증담 1권(1979년), 월간에덴 2호(2005년 10월)

나는 신앙인으로서 축복 받은 행운아라고 자부합니다. 전 역사에서 18년간 가정을 잊어버린 채 신앙에만 전념하다가, 후회 없이 제2의 감람나무 역사로 전향하게 된 것은 결코 나의 노력이나 판단에서가 아니라 신의 인도하심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앞선 역사에서 목회를 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꿈에, 부흥집회에 참석하려고 달려가는데, 난데없이 숲 속에서 마귀 한 마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며, 온몸이 목석같이 굳어 버렸습니다. 기운을 내어 크게 소리를 질러 그 마귀를 쫓아 버리려고 했으나, 아무리 입을 벌름거리어도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면서 한사코 내 앞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 두 팔로 그 마귀를 잡으려고 했으나 그것도 여의치 않아, 온몸에서 땀이 죽죽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흰옷을 걸친 청년이 불쑥 나타나 ‘셋!’ 하고 강한 입김을 부니, 마귀는 온데간데없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박태선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른팔로 나를 꼭 껴안고 집회장으로 가서, 나더러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장내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짝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단상으로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4시, 새벽 제단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세수를 하고, 부산 영주동 마루턱에 있는 제단으로 갔습니다. 새벽예배를 마친 후에, 박옥래 관장이 하나님의 사람께서 교역자를 양성하여 전국 읍면 소재지에 파송하라는 지시가 계셨으니, 희망자는 알려 달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나는 꿈이 생각나, 지체 없이 여기 응하여 교역자로서 단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은혜의 창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스

스로 젊음을 불살랐으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1973년 11월 25일, 전도관에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앞을 가렸습니다. 돌이켜보면 17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헛수고를 했구나 하고 생각하니 원통하기 짝이 없었으나, 결코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가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제직회를 열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사무인계를 마친 다음, 이튿날 청량리 에덴성회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관을 등진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쫓아낸 것은 더구나 아니었습니다. 내 발로 전도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대략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시작한 역사가 육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둘째, 재림주를 영접한다는 제3신앙촌(부산 기장)에는 불신자인 사회인이 득실거리 세속화되었습니다.

셋째, 주의 종의 권능이 점점 약화되어 초창기의 위력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의 종이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치고, 사고를 일으키며, 쇠망하여 갔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초창기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시기, 질투, 분쟁, 모략 등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래서 전도관을 떠나, 성경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인 에덴성회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내가 제일 뼈아프게 느낀 것은 신앙 동지로부터의 멸시와 욕설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붙게 되었으니, 그것은 ‘하도깨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조금도 원망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날이 가고 때가 오면 누가 도깨비인지 분명히 알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그들을 위해 주님에게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튼 나는 17년 동안의 목회생활을 통하여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내 신앙을 키우는 좋은 밑거름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관에서 나오기 전, 수많은 교역자들이 자신들의 천국 소망이 무너지므로 낙심하여 타락하고 유리방황할 때, 나는 김유정 권사님(이영수 총회장의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 이영수 휴직 전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는 내가 동대문 관장으로 있을 때 내 밑에 전도사로 있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나, 그는 자신이 제2의 감람나무 사명을 맡은 자임을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최병식 전도사를 연결시켜 주어서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를 통해 제2의 감람나무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을 때, 반신반의의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그 무렵 (1973년) 기장신앙촌에 축복을 받기 위해 갔다가, 청량

리 전도관 출신 이계진 전도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 관장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영수 휴직 전도사를 복직시켜 놓고, 일주일도 못되어 도깨비로 몰아 버렸으니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상경하여 15중앙 안인순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했기에 도깨비로 몰렸느냐고 하면서, 내가 직접 그의 설교를 듣고자 상경했으니,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더 그를 단에 세워 달라고 부탁하자, 힘을 얻은 안 관장은 즉시 교인들에게 연락하여 수요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현직에 있었던 관계로, 교인들의 눈을 피해서 제15중앙 제단 2층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구약 시대의 제사법에 관한 설교였는데, 나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애기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예배 인도 전에 나, 최병식, 그리고 이영수 전도사 3명이 송인동 아파트(최병식 장로의 여동생 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택시에 동승하여 독립문을 통과할 무렵, 이영수 전도사가 차안에서 혼잣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단 종각을 달팽이 모양으로 지으라고 하셨다고 하기에, 나는 혼자 생각에 ‘종각을 달팽이 모양으로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알곡성전 종각 윗부분이 성화를 상징하여 달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곡성전은 1987년에 건축됨) 알곡성전이 건축된 후 전호진 집사의 모친 김몽희 권사님이, “해방 직후, 한 증거 받은 어떤 목사의 설교 중, 말세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달팽이 모양으로 짓게

된다고 한 말이 적중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15중앙 제단에서 한 설교로 전도관에서 도깨비로 몰린 하나님의 사람은 갖은 시련과 핍박 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왔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준행하던 중, 드디어 1973년 11월 17일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옆 4층 건물에서 개회예배를 보게 되었고, 이것이 제2감람나무 역사의 시발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말없이 서서히 마음을 굳히며 전향 준비를 하던 중, 원주전도관의 이선덕 전도사, 부인회장, 청년회장, 사업부장을 개회 첫날 서울에 보낸 것이 탄로되어 하 도깨비로 몰려 버렸습니다.

개회 1주일 후, 전향한 교역자 여러 명과 합숙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심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직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전 역사에서 제자였던 정 모 전도사가 제5중앙에 시무하면서 전화로, “하 도깨비 있느냐?”고 한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 그런 무례는 드문 일일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역사는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청주에 두고 혼자 제2감람나무를 따르므로, 체험이 없던 집사람은 매우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상대가 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전도관에서 교역자 생활을 하느라고 알거지가 되었는데 그만 속으면 됐지, 또 속으려고 그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지긋지긋하니 당신이나 믿고, 혼자 천당 가소.” 이리하여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내조차 진리 안에 돌이킬 수 없는 무능한 목회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1974년 정초로 기억되는데, 주일에배를 마친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안찰을 받고,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에 있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부엌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샷문을 열고, “나요. 그동안 별일 없었소!”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아내는 뜻밖에도 불쑥 나타난 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후닥닥 놀라 나를 한참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쳐다보기만 하는 아내에게, “아니,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보고만 있는 거요. 오라, 오래간만에 나를 보니 하도 반가와 말이 나오지 않나 보군.” 하고 능청을 떨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두 감람나무를 증거하고, 당신도 하루 속히 마음을 돌이켜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전날에는 콧방귀를 끼던 아내가 내 말에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가 실토한 바에 의하면, 아내의 태도가 변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샷문을 여는 순간, 백합화 같은 강한 향취가 확 풍겨와 깜짝 놀랐으며, 그런 향취는 앞선 역사에서 말은 지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두 감람나무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속4:6) 따라서 계시록 2장, 3장에 명시된 일곱 권세 외에, 생수와 이슬 같은 성신(다른 보혜사 성신)을 부여하지 못하면 감람나무로 인정할 수 없는 고로,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드디어 1974년 1월 10일, 안수 축복의 지시가 하달되어, 하나님의 사람께서 송동호 비서실장 집에서 축복하셨고, 내가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았습니다.

1974년 1월 21일, 눈 안찰의 지시가 있어 1974년 1월 23일에 안찰이 시작되었습니다. 1974년 1월 31일, 생수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사 온 집에 이긴자님을 초대하여 제일 먼저 생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 3일 만에 최장희 집사님(이향규 집사 모친)이 타계하여 처음 축복 받은 생수를 사용한 결과, 너무나도 아름답게 시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전 역사에서 많은 시신을 다루었으나, 그렇게 잘된 시신은 처음 보았습니다. 내가 궁금해 했던 문제 하나가 깨끗이 해결되니 참으로 의기충천하였습니다.

그 후 개회 1주년 기념예배 때 (1974년 11월 20일) 이슬 같은 최고의 은혜가 단상을 통하여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제2의 감람나무인 것을 믿겠다고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고 따라온 지 벌써 32년(2005년 당시)이 되었습니다.

Chapter 02.

원로성회장 신경현



신경현: 1946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1962년부터 전도관을 나갔다. 1973년에 에덴성회로 전향한 후 1976년부터 목회 활동을 하였으며, 2010년에 퇴임하였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뵈게 된 것은 1973년 9월 16일, 홍제동 15중앙에 전도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단에 처음 서시는 날에 내가 준비 찬송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나는 단에서 생수의 은혜가 연결되어, 배 속에 커다란 얼음덩이 같은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준비 찬송이 끝난 다음, 하나님의 사람께서 단에서 예배를 인도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191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를 부르실 때, 문득 주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 순간 더욱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 위에 빛으로 영광이 둘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로부터 10년 전, 오만제단에 처음 나갔을 때 박태선 장로님의 머리 위에 둘러 있는 빛을 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같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5중앙 본관에 교인들이 약 300명 가까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저마다 큰 감동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이 영적 여호수아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감람나무가 아니냐,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기장신앙촌 협회를 거쳐 앞선 주의 종, 박태선 장로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선 종으로부터 15중앙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물음에 안 관장이 별일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과 의논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주님이 15중앙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순종했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 후에 서부지관과 갈현지관의 두 전도사가 녹음기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당신이 감람나무야?” 하고

대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을 되풀이했습니다. 갈 현지관의 김 전도사가 “당신에게서 은혜가 내린단 말이야?” 하고 물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 모인 교인들에게 물어보시오.”

이때 정남희 권사와 김원희 권사 등 20여 명이 이구동성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자, 두 전도사는 더 이상 상증할 것이 못 된다고 하면서 녹음기를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전도관에서 제명된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15중앙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앞선 종을 이슬, 생수, 향취, 안찰, 시체의 변화 등으로 감람나무라고 인정하고 따르지만, 주께서 나에게 ‘너는 내가 앞선 종과 함께 기름을 부어 세웠다. 너는 그런 줄 미처 몰랐지만, 나는 이미 너를 감람나무로 정해 놓은 것이다. 내가 앞선 감람나무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의 지시에 따랐지만, 앞선 종께서 받아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할 도리를 다했으므로 마음은 편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다른 지시가 오면 관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춘천의 정국보 관장이 15중앙 관장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하고, 안 관장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간사로부터, 이영수 전도사의 설교를 들은 자는 모두 마귀에게 씌웠으니, 기장에 내려와서 안찰을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인들이 저마다 걱정을 하자, 하나님의 사람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박태선 장로님도 주님이 세우신 감

람나무요, 나도 주님이 세운 종으로, 신이 같으므로 안찰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니, 덕분에 안찰 한 번 더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으로 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찰을 받으러 응접실에 들어가니, 앞선 종께서 무엇 하러 온, 웬 사람들이냐고 물었습니다. 관장이 “15중앙에 이영수 전도사가 나타나 둘째 감람나무, 영적 여호수아라고 하면서 설교하여 악령에 씌운 식구들이 안찰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앞선 종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를 따른 지 15년 되는 사람 손들어 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인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나를 따른 지 10년이 되는 사람 손들어 봐.”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교인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앞선 종은 이들을 훑어보시고 다시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른 지 5년이 되는 사람 손들어 봐.”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앞선 종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따르면서도 영을 구분 짓지 못해?” 우리는 저마다 큰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교인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영모님께서 단에 세워 주신 줄 알고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안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를 통해 악령에 씌웠다고 하기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안찰을 받아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은 신이므로 안찰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만일 신이 다르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영수 전도사를 통해 악신에 썩워 있었다면, 전에 김풍자 권사를 앞선 종이 내쫓은 다음에, 그녀를 따르던 교인들이 앞선 종에게서 안찰을 받았을 때처럼, 머리에 흑이 돌아나고, 까무러치고, 하여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찰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으므로, 교인들은 저마다 의외로 생각하고, 마음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일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앞선 종이 받아주지 않으니 동쪽에서 따로 시작하라는 주님의 지시가 왔다고 하셔서, 우리는 동대문에서부터 장소를 물색하여, 청량리 성바오로 치과병원 건물 4층을 전세내어, 개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전에 개회식을 가지라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1973년 11월 17일 토요일에 ‘한국 기독교 에덴성회’가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각 중앙전도관 산하에서 주먹깨나 쓰는 전도사 40여 명이 동원되어 집회를 방해하려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개회식은 별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덴성회에 나와 성가대를 지휘하는 김태식 전도사님도 이 40여 명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실로 옛말처럼 생각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두 번째 역사는 처음부터 안수, 안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74년 1월 10일 수요일, 하나님의 사람께서 “따르는 양떼들의 마음이 안정되어 가니, 주님께서 안수를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구역에

배에서 안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교인들에게 말씀하시자, 나는 몹시 기쁘고, 또 어떻게 안수를 하시나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망우리 송동호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인도하신 후, 하나님의 사람은 안수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안수를 할 적에 기운을 네 번 부는 순간, 주의 은총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불, 생수, 이슬, 향취의 은혜를 끼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교인들은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운을 부어 만든 생수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시체가 피는지, 피지 않는지 궁금하던 차에, 송병호 장로님의 여동생이 덕소에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한 생수를 바르고, 전도관 덕소 장례반에서 입관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반장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수십 명의 시체를 다루었지만 이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것은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도봉성회에 시무하던 1979년 12월 30일, 박금목 집사님의 따님이 성남 섬유회사 기숙사에서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옥중에 계실 때이므로, 매주 목요일 밤 7시 반에 옥중에서 생수 축복을 하였고,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물을 떠놓고 있으면 그 물이 생수가 되었습니다. 이 생수를 시신에 발랐더니 2, 3분 후에 뽀뽀이 굳은 시신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처럼 시신에 생수를 바르고 몇 시간씩 찬송을 힘겹게 부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또 직접 축복해 주신 생수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볼 때, 생수의 효능이 몇 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마무리 짓는 나중 역사가 어떤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전후의 두 역사에 부름을 받아 교역자로서 일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Chapter 03.

권사 김원희



김원희: 1928년생. 1955년부터 전도관을 다녔으며, 꿈에 본 청년이 나중에 이영수 총회장인 것을 알고 1973년에 에덴성회로 전향했다.

출처: 월간에덴 10호(2006년 6월)

저는 전도관을 초창기부터 나갔는데, 1973년도에 전도관이 시커멓게 멩들어 가고, 박 장로님의 예언의 말이 전부 빛나가서,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황재기 전도사님 등과 몇몇이 모이면 옛날의 전도관이 아니다, 배가 바다로 가야 하는데 산꼭대기로 간다는 말을 하고, 제단 나가기 싫어하던 때였습니다.

그해 5월에 참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구파발에서 여관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여관의 큰 거실의 맨 끝이 뚜껑으로 되어 있

었습니다. 그 뚜껑을 여니까 거실 밑의 우물가가 전부 곰팡이에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였습니다. 아이쿠, 이걸 어떡하나, 먹을 물 때문에, 우물이 다 말라서, 하며 곤란해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염려 마십시오.” 하고 새파란 청년이 나타나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 속에 사방 네 군데에 파이프를 꽂았는데, 물이 팔팔 솟는 겁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고마워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수고비는 얼마나 드릴까요?” 했더니, “저는 수고비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웃음을 입고, 난데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 깨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또 꿈을 꾸었는데,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사를 가라고 하지?’ 하면서 보니까, 가정집이 아니고 텅 빈 창고 같았습니다. 물건 진열하는 받침대가 있고, 그 진열대 위에 뽀얀 상자 안에 흙이 가득가득 채워 있었는데, 그 상자 안에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빈 상자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자 안에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흙을 퍼 담아서 거기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으려고 이러나 생각했는데, 또 세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7중양에서 예배를 보는데, 사람들이 코를 골면서 조는 겁니다. 개들이 왔다 갔다 해서, ‘웬일이야’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을 보니까 박 장로님이 정복이 아닌 허름한 옷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썩었다, 내게 속한 별들도 다 썩었다고 소

리를 막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전에 우물을 치워 준 청년이 아래 단상 옆에 앉아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중앙 관장(안인순)이 그 청년 귀에 대고 소곤소곤 하는데,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서 밑에 단상에 서시더니, 장로님한테 그 나머지 말을 마저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쓰러진 별이 끝에 가서 나로 인해서 다시 산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지 않느냐, 마저 말하라 이겁니다. 그러더니 박 장로님이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서더니, 찬송을 부르자 자던 성도들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고, 개들도 쫓겨 나가고, 꿈에도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깨어 보니 꿈이었습니다. 꿈도 이렇게 신기할 수 없구나,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난 구파발 전도관 회계였는데, 하루에 이백, 삼백만 원씩 물건 값을 입금시킬 때였습니다. 입금을 시켜야 신앙촌 물건이 한 차 내려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15중앙 관장님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입금을 시켜야 한다고 재촉을 하셨던 분이 감감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신경현 청주 성회장님이 15중앙의 부전도사로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왜 관장님이 소식이 없습니까?” 하니, 왜 그런지 관장님이 요새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오신다는 겁니다. ‘웬일일까? 무슨 불일이 생겼나? 요새 입금 소리도 안 하고, 이상하네.’ 하고 있는데, 한 열흘 지나고 나서 관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장님, 어디 가서 이렇게 소식이 없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했더니, 대답은 안 하시고, 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오셨더군요. “도대체 관장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요새는 입금시켜야 한다고도 안 하고, 웬일 이세요?” 했더니, “권사님, 성경 좀 내놓으세요.” 그러더니 계시록 11장, 두 감람나무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껏 배우기는 한 감람나무로 배웠는데, 성경에 들이지요?” 그때 내가 관장님을 흔들며, “어디 이상한 곳에 갔다 왔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권사님.” 그런데 반짝 드는 생각이, 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장님,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러니 용서하시고, 어디 갔다 왔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잘 들으세요.”

옛날에 15중앙 내에 흥제동전도관이 있고, 녹번동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파발과 갈현동이 합쳐서 갈현동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갈현동전도관에 나오시는 이긴자님의 어머니인 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갈현동전도관에 새벽기도를 자주 나오시는데, 성경 이해가 깊고, 진리의 말씀을 막힘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잡지에 떠돌던 이영수, 영화계에 나왔다고 파문이 일어났던 그 휴직 전도사인데, 그 사람을 요새 만나다고 하더군요. 최병식 전도사를 통해 ‘20세기 다방’으로 나오라고 전화가 와서 나가니까, 이영수 전도사님과 최병식 전도사님이 앉아 계셔서 악수를 하고 앉았더니, 커피만 마시고 아무 소리 안 하 더랍니다. 그리고는 품안에서 조그마한 노트를 내놓고,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읽어 보시오.” 하고 나가더랍니다.

수첩을 가져와서 읽어 보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분이 반드시 둘째 감람나무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침만 되면 만나고 싶어 못 견디겠어서 일주일을 밥만 먹으면 나가서 20세기 다방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15중앙 전도사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날 좀 15중앙에 세워 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가좌전도관에 전도사님이 사정이 생겨 단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한테, 잠깐 기다려 보시면 영모님(박태선 장로)께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오백만 원을 해 가지고 기장에 입금을 시키면서, “영모님, 이영수 전도사가 휴직 전도사인데, 15중앙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떡할까요?”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허락이 떨어져서 1973년도 9월 16일 홍제동 제단에 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단에 서는지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올까봐, 각 지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본관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보니까 본관으로 모이시오.” 이래서 15중앙 제단에 다 모였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단에 서시는 첫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셨는데, 그때 내가 놀란 게, 꿈에서 두 번 봤던 그 젊은이인 겁니다. 이런 일도 있는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때 15중앙에 아는 학생이 있어, 그 학생에게 총회장님께 대접하기 위해 슈퍼에 가서 시원한 콜라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서 드렸더니 “이것 맥주인데요?”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옛날에 김 권사가 나한테 맥주를 가지고 와서 콜라라고 주었다.”고 웃으시며 농으로 말씀합니다. 죄송하다

고 하고, 다시 사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에 서셨는데, 찬송가 425장(내 주의 도 침 받은 날)을 시작으로 해서 그 찬송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의 도는 정직한 도다, 차도 덩지도 않으면 토해 낸다, 신앙을 지키려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전도관 식구들이 곁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오랜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한 명도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가좌전도관으로 가실 분이라고 하니, 가좌전도관만 복을 받느냐, 순례 전도사로 삼자, 사람들이 둘째 감람나무라는 것은 모르고,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좌전도관에 서시고, 세 번째 응암동전도관에 서셨는데, 갈현동전도관의 전도사가, 설교가 이상하다고 영모님한테 고자질했습니다. 공표는 안 해도, 둘째 감람나무 같다고 눈치를 채고 고자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박 장로님이 “15중앙 안 관장을 당장 불러라.” 하고 기장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당시의 예배 본 것을 총회장님께서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 녹음을 주시면서, 이걸 영모님한테 들려드리면 알 거다, 해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관장이 사흘 동안 기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깥 여관에서 지내게 하고, 내일 들어와라, 그 다음날도, 내일 들어와라 하며 만나주질 않았습니

다. 사흘 만에 전화가 왔는데, 안 관장을 영모님이 잘라 치웠다고 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듣지도 않고, 둘째 감람나무라고 하니 까도깨비라고 몰아친 겁니다. 그리고 15중앙 관장으로 정국모 관장을 새로 보냈습니다. 안 관장의 짐은 길바닥에 다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에, 15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에 다 씌웠으니까 다 들어와라, 해서 버스 2대를 내서 기장으로 안찰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연합회 회장하고 둘만 안 내려갔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연합회 회계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회장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가니까 영모님하고 간사, 비서,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모님이 “몇 년 믿었어?”, “17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리와 비 진리를 구분을 못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영모님한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영으로 영모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믿고, 영으로 살피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모님이 전도관에 전도사를 세울 때 안 비취 보시고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전도사님 밑에서 3번 예배를 본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모님이 세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입 다물라고 하더군요. 그 옆에 연합회 회장이, 영모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관장을 사흘이나 묶어 놓고 만나 보지도 않고 잘라 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박 장로님이 별떡 일어서더니, 잔말 말고 가서 일하라, 아니면 잘라 버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는 영모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관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회의가 들던 참에, 자기가 세운 전도사를 비진리라 하고 마귀로 인정을 하니, 왜 마귀를 단에 세웠느냐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르고 세워 주신 분을 통해 은혜 받았는데, 박 장로님 하시는 처사가 정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버티며 15중앙에 안 나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7중앙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중앙에서 예배를 볼 때, 신 부전도사(현 신경현 성회장님)를 보내 설교 말씀을 녹음해 오라고 했습니다. 녹음을 들어보니까, 박 장로님 설교 중에 15중앙이 다 악의 도가나라고, 옛날 같았으면 다 모였을 텐데, 그러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잘못 따라 나왔나? 이제 15중앙에도 못 들어가고...; 걱정이 되어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총회장님(당시는 이 전도사였음)께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국도극장 옆 다방으로 10시까지 나오세요.” 의아해 하면서도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먼저 와 앉아 계시더군요. 나를 쳐다보더니 웃으시며, “밤새 잠을 못 자더군요.”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가짜인가 아닌가 의심하느라 잠을 못 자는 것이 이상 중에 비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겁니다. “반드시 앞날에는 새우가 고래를 쓰러뜨린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참고 앞으로 손잡고 일하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깨쳤습니다. 왜 이상 중에 그렇게 세 번에 걸쳐 보여주셨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따라 나왔습니다.

에덴성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좀 지나, 동대문성회와 서대문성회로 나뉘져 있을 때인데, 그 당시 내가 서대문성회 회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임원회라고 해봐야 열댓 명에서 스물 정도밖에 안 될 때인데, 그날 총회장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김원희 권사, 도봉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도봉은 아무도 없는데, 오늘부터 도봉회장으로 나가서 일하라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누구를 붙잡고 일하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삼양전도관에서(지금 도봉) 회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길 근거지를 두고 나를 총회장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서대문성회에 가서 기둥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인데, 누굴 보고 회장을 합니까, 하며 울었습니다. 울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고는, 여관을 세를 놓아 도봉에 가서 전세를 얻고, 그 이튿날부터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녹음기가 없어서 총회장님 녹음기를 빌려 가지고 총회장님 설교 말씀을 들려주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한 집 두 집 전도를 하는데, 가면 도깨비라고 쫓겨나는 겁니다. 한번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일학교 반사로, 내가 키워서 혼수까지 해서 시집보낸 애인데, 그 애 집에 갔습니다. 그전에는 나를 친정 엄마로 생각해서 반가와 했는데, 나를 보더니, “오셨습니까?” 하며 나가 버렸습니다. 난 화장실 가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이

셔츠 바람으로 슬리퍼를 끌며 와서 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여기 이영수 따라가는 도깨비가 있다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고 같이 은혜 받던 식군데, 전도사님은 성직자가 아니냐, 양떼가 사망의 길에 빠져 있으면 눈물로 건지셔야지, 이런 법이 있느냐고, 앉아서 대화나 같이하자고 했더니, 그만 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서, 지금의 도봉 식구들인 김채옥 집사나 김옥경 집사 등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며 한 명, 한 명을 필사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한 명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전도 갔다 오면 결실을 거두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3월 17일에 도봉에 가서, 12월 크리스마스 때 도봉지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20명 정도 됐습니다. 삼양1동에 있는 전도관 식구들이 몇 사람 빼고 다 넘어왔으니까요.

김옥경 집사는 그 당시 보험회사 다닐 때인데, 날 안 보려고 밤 12시가 되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김옥경 집사 남편이랑 대화가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먼저 깨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협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김옥경 집사가 “내일은 내가 대접조로 하루만 따라 나가겠습니다.” 해서, 그 이튿날 차로 모시고 갔는데, 이긴자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열매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해서 도봉성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이어서, 한 사람을 전도하자면 몇 달

을 두고, 아침 7시에 그 집에 가서 깨워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모인 게 지금의 도봉 식구들입니다. 지금은 참 많습니다만.

꿈에 강풍이 불어닥치는데, 사람들이 보따리를 들고 추위에 떨 떨 떨고 있는 겁니다. 전도관 사람들인데, 위에서 “찾으라, 찾을 것이며, 구하라, 구할 것이라.” 하는 소리가 들렸던 꿈을 꾸었습니다. ‘전도관 식구들을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며 전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삼양전도관에 이 장로님이라고, 나이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나를 딸같이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그 장로님께 제일 먼저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장로님, 꼭 대화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옛날 정을 생각해서 꼭 좀 들어주세요.” 정 집사라고, 장로님의 사모님이 그 영감님을 야단하는 겁니다. 옛날 정을 생각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김권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하면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그 장로님 옆방에 이만성 전도사님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당장 나가라고, 가짜라고 하고, 나는 “아닙니다.” 하면서 1시간 동안 서서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둘입니다. 호조건, 악조건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도관 변질된 걸 보세요. 다들 말하진 않지만, 우린 알잖아요? 하늘에선 이대로 안 두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쌍해서라도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게 두 번째 역사가 분명하니 한 번 나와서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아니면 돌아 서십시오.” 내가 한평생을 과부로서 주님 한 분만 믿고 사는데, 내 생애를 알지 않느냐?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어찌 따라가겠느냐, 하며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옆의 전도사님이 다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똑똑 노크를 합니다. “옆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정을 맺던 사람들인데, 이젠 천장을 보고 침 뱉는 격이에요.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음에 만납시다.” 하더군요. 나오는 길에 그 전도사님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가르쳐 드리고 인사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약속을 하고 다방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제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은혜가 오더라고, 자기도 총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옥경 집사 집으로 오시게 해서 이만성 전도사님한테 설교 테이프를 먼저 틀어드렸습니다. 테이프를 듣고, 끝나면 또 듣고 하더니, 이젠 진짜다 이겁니다. “위에서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총회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총회장님을 만나 뵙고 전도되어 온 것입니다.

그 뒤에 정양자 권사, 김채옥 집사, 김옥경 집사 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성 전도사님과 짜고, 전도사님은 단에서, 반드시 길이 있을 거다, 악조건 호조건이 이상하고, 감람나

무가 원래 둘인데 하나라고 하니 이상하다, 기다려 봐라, 길이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설교하고, 나는 밑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김채옥 집사가 내가 전도를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 전도사님이 말하는 곳이 거기 아닌가? 길이 있다는 곳이야.” 그러더군요. 이만성 전도사님이 전도되신 것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만성 전도사가 전도관에서 쫓겨나니까. 단에서는 바람을 잡고, 나는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2중앙(삼양동전도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전도관의 전도사들이 삼양동 전도관에 몇 명 몰려왔습니다. 위에 보고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총회장님의 노래했던 판을 가지고 와서, 가수고 세상으로 흐르던 도깨비인데, 거길 가느냐며 방해를 했습니다.

에덴성회 나와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총회장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제가 자가용도 가지고 있었고, 대성여관이라는 여관을 운영하면서, 항상 어려울 때 총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하려 다녔는데, 이상하게 그게 다 파산이 되고, 몸에 병이 왔습니다. 한참 도봉에 전도하러 다닐 때인데, 아침에 나가는데 꼬꾸라지더니 일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이 다 합쳐서 오는데, 자궁암이었습니다. 그때 박금하 집사님하고 중랑교 근처에 있는 용하다는 병원에 가니까,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파산이 다 되다시피 해서, 그냥 지회나 세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때였습니다.

총회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래 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하며 “지회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몸을 꺾어 놓으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적을 나타내서 나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막 우는데, 며칠 만인가 기도 중에 찬바람이 배에 도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은혜가 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3일을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하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센터(물품 판매소) 운영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때 총회장님께서 센터를 나한테 맡겨 놓고, 센터에 오시면 등을 두드리며 “건강 조심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 중에 보니까, 내가 큰 절벽에서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생을 한 사람이니까 목숨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센터 책임을 저한테 맡기셔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Chapter 04.

권사 이윤남



이윤남: 1921년-2004년. 1956년부터 전도관을 다녔으며 1965년 홍천에서 이영수 전도사를 처음 만나 큰일을 할 인물인 것을 깨달았다. 1973년 에덴성회에 몸을 담았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에덴성회 역사를, 후자들은 “이영수가 전도관이 기울어갈 즈음에 기회를 타고 나와서 크게 이루었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하신 주의 종의 말씀은 아직도 내 뇌리를 떠나지 않으며, 오늘날 이처럼 주의 크신 일을 하실 줄 그때부터 은연중에 당신이 느끼고 계셨던 것을 내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에 여기에 적어 보고자 합니다.

나는 해방되던 해에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앞선 역사의 박 장로님이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크신 종이라고 믿고, 1956년 3월부터 전도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남편이 세상을 떠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고향 대구를 등지고 강원도 원주에서 3년을 살면서 권사 직분을 받았으나,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심하여 신앙생활을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어, 속초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속초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사도 못하고 사는데, 하루는 누가 뒤에서 미는 것처럼 흥천으로 마음이 자꾸만 끌려 흥천에 가보니, 제단은 텅 비어 있고, 모이는 성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나는 흥천으로 이사를 하고, 제단을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성도들은 워낙 가난하고, 인정도 없고, 교세도 약하여 부임해 오는 전도사님마다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흥천으로 이사를 하고 세 번째 부임해 오신 전도사님이 바로 주의 종, 둘째 감람나무입니다. 전도사님이 부임해 오신 지 3년째 되는 날, 양력 설날에 집에 식사하러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젯밤에 미화 아버지 이재수 씨를 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반문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미화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미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지요.” 전도사님은 점점 이상한 말씀

을 하셨습니다.

“미화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키는 보통 키에 머리가 둥글고 몸이 굵죠?”

생전의 남편 모습과 일치하였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미화 아버지를 아시나요? 벌써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음부나 지성소로 가는 데, 음부에 가는 영이 있고, 가지 못하는 영이 있지요. 음부에 가지 못하는 영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데, 영과 영끼리는 통하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줄 영을 알아보지요. 어젯밤 꿈에 한 영이 제 다리를 붙들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여, 누구냐고 물으니, 미화 아버지 이재수라고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전 전도사님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깊은 말씀과 열성으로 제단은 차츰 부흥이 되어 갔습니다. 단에 서시면 얼굴 주위에 광채가 나는데, 단상보가 하얗기 때문인 줄 알았으나, 평상시와 단상에 서실 때와는 얼굴빛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은 기성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기성 교회에서는 받지 못하고, 전도관에 와서 장로님을 통해서 향취, 생수, 이슬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장로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지요.”

“아니, 전도사님은 장로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

죠?”

“전도관 식구가 100만이다 하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주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는 수가 있지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오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알게 돼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전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 3년 쉬다가 갈 테니, 나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나는 다른 전도사와는 다르고 앞으로 큰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지켜만 보세요. 나는 전도사직을 그만두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촌에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지만, 앞으로는 전부 결혼하게 될 겁니다. 내 형님이나 동생들도 모두 결혼하고 나 혼자만 독신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결혼을 하신 것도 주의 종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일에 큰일을 하신다는 말씀에, 장로님께서서는 죄짓지 말라고 하시지만 저분의 말씀이 더 무섭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신앙촌에 입주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울며 근심으로 세월을 보냈으나, 전도사님께서서는 앞으로 입주를 한 사람도 전부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니, 권사님은 입주를 하지 말라고 하시어, 그때부터 나는 용기를 얻어 신앙이 안정되고 생활에 활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전도사님을 모시고 있던 관계로, 단에서 하시지 못하는 것

은 말씀을 사적으로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을 내놓고 감람나무가 둘인데, 첫째 감람나무는 모세의 역할을 하고, 둘째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당신이 기름부음을 받은 마지막 종이라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나이도 어리고, 앞선 역사도 잘되고 있으니 먼 훗날 2, 30년 후에야 당신께서 나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은 깊었고,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지만, 단에서는 감람나무가 둘이라는 설교는 하지 않으셨고, “내가 하는 설교는 100명 이상 있는 데서 해야 합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인천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시며, 새로 부임하시는 전도사님을 당신보다 더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가셔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정성껏 모셨지만, 나는 정이 들대로 든 전도사님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전도사직을 그만두시고, 이문동에 계신 것을 알고 찾아가 뵙고, 서울에 머물면서 종종 만나 뵈었습니다.

단을 떠나신 후에도 주님께 향하는 마음은 변치 않으시고, 만나 뵈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이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이 많이 번성하였지만,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지 않으셨고, 아담의 후손을 가인

과 아벨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그때 처음 들어 알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을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전부 해석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창세 이후로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종이 없었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다윗 왕 같은 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많은 악기를 동원하고 오케스트라도 만들어, 다윗 왕 못지않은 영광을 돌릴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은 각 부서마다 성가대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만드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날, 그 어떤 목회자도 가르치지 못했던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자상하게 이모저모 염려하여 주시는 주의 종에게 보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워낙 어려운 형편이라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용돈을 3천 원 정도 드리면 교통비는 하시겠지, 하고 밤에 생각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 쌀 한 말이 250원에서 280원 할 때입니다.) 이튿날 만나 뵈었더니, 전도사님은 다짜고짜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나 용돈 3천원 주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주님께서 권사님과 나 사이를 고자질하시죠.” 하시며 그 특유의 웃음으로 꺾꺾 웃으셨습니다. 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벌써 알고 계시는 주의 종의 앞에 갈 때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항 속의 봉어를 보듯 들어

다보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듬해 여름에는 기장에 계시는 총회장님의 이모님이 오셨는데, 전도사님은, “이모, 다시는 기장에 가지 마세요. 가시면 돌아가세요. 이다음에 제가 큰일을 하면 좋은 날을 볼 테니, 가지 마세요.”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님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려가시더니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때 총회장님께서서는 어머님께, “내가 이모님에게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가시더니 돌아가셨잖아요.”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서울에 중앙 제단이 한군데 있으면 됐지, 곳곳에 중앙 제단을 세워 기성 교회처럼 되게 하신다며, 박 장로님의 정책을 염려하시고, 전도관이 일찍 망가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앞으로 주의 일을 한다면 쇠고랑을 한두 번 차야 되요. 역대 종들이 전부 다 쇠고랑을 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을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했어요.” 하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에덴성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1979년 11월에 현실로 나타났을 때, 나는 미리 들은 말씀이었지만,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복받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나 시작한 후에 하신 말씀이나,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덴성회를 시작하신 후에 하신 말씀은 더 깊어지고, 부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까이 뵈고 말씀드릴 때마다 향취

가 진동하였고, 주의 종의 얼굴에 광채가 나며 50대로 보이더니, 이마에서부터 광채가 벗겨지며 본래의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별다른 배경도 없이 남광토건에 취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자, “에덴성회 생기고 제일 먼저 권사님을 축복하였는데, 벌써 축복이 갔구먼.” 하셨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남달리 일찍 주의 종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생명이 다하는 날 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Chapter 05.

권사 박금하



박금하: 1941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1961년부터 전도관을 나갔다. 1970년에 휴직 전도사였던 이영수 총회장을 처음 만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 1973년 에덴성회에 몸담았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나의 신앙생활은 철들 무렵인 15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노라고 다녔으나, 동도교회로 적을 옮겨 한동안 취미를 붙이고 그런 대로 열심히 다니다가, 호기심에 이끌려, 이왕이면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영락교회에 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충현교회에 나가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알듯 싶을 때

에 전도관을 알게 되어,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열심을 내느라고 안내도 맡아 보고, 구역장도 하면서, 나로서는 무던히 애썼습니다.

1970년 초에 석관동전도관에서 부인회 부회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휴직 전도사로 석관동 제단에 나오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첫인상부터가 명랑하고 소탈하여,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영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관동 부인회 헌신예배 때, 담임 전도사님이 그 청년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나는 그 청년의 기도를 듣는 순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어, 그 후부터 그분에게서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 때때로 다방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두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앞선 감람나무의 뒤를 이어 제2의 감람나무가 주의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 감람나무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는 이해하기 곤란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젠가는 자기가 박 장로님과 같이 감람나무의 사명을 맡아 일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따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오늘의 둘째 감람나무

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분은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지시 받은 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은 의도를 알 수 없는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석관동전도관에 몸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고생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우연히 이 선생(당시에는 이렇게 불렀음)과 함께 문병을 갔습니다. 이 선생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찌나 은혜로운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환자도 은혜를 받고 병이 나아 무척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석관동전도관이 부채 관계로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여러 모로 대책을 강구하다가, 이 선생과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찾아가서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이 선생의 말씀이, 앞으로 전도관에 큰 변화가 일어날 터이니, 미련 없이 채권자에게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니, 그때 이미 그분은 전도관의 말로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나는 여러 번 이 선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주로 제2 감람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에 주의 종으로서 역사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어리벉벉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청량리에서 제2의 감람나무인 이

영수 휴직 전도사님이 에덴성회라는 간판을 걸고, 주의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신앙생활에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영수 전도사님이 제2의 감람나무가 되었던 말인가?” 하고, 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자다가 나는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전도관 지하실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계단이 돌이 보이는데, 한쪽은 캄캄하고 한쪽은 환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환한 계단에 올라서니, 빛나는 흰옷을 입은 총회장님이 서서, 나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기에 갔는데, 거기에는 파란 잔디가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정말 이 전도사님이 제2감람나무가 되었나 보다, 하고 청량리 에덴성회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근처의 에덴성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전의 이 선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감람나무밖에는 하지 못하는 생수 축복을 하시면서, 송장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적을 행하시는 주인공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전에 들은 얘기도 있고 하여 에덴성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이기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괴로웠던 시험은 이미 신앙의 길을 달리한 몇몇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시기, 질투였습니다. 아마도 옛날부터 주의 종을 알고 가

카이 지낸 연고로 받게 되는 시험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안내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당시에 간부라는 몇몇 사람들(현재는 떨어져 있고 없음)이 한밤중에 공갈 전화로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나의 남편에게까지 편지로, 혹은 전화로 나를 헐뜯기도 했습니다. 나는 에덴성회가 싫어서라기보다 그들이 미워 도저히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다 못해, 나는 처음 다니던 동도교회로 다시 나가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고, 두 주일 나가고 나서 3주일째는 적을 완전히 옮기려고 성경과 찬송가책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다리가 휘청거려, 견디다 못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아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나는 탄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온 채찍인 줄 알고, 그 자리에 꿰어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잘 알면서도 인간에게서 당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 탄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동도교회로 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에덴성회로 가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총회장님의 어머니, 김 권사님에게 말씀드려, 주의 종의 손수건을 얻어 가지고, 그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집으로 돌아오니, 차츰 몸도 마음도 안정을 얻어 악몽에서 깨어난 듯싶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내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절실히 느끼고,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의 격려와 온정이 나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끌어 주시면 이길 수 있고, 버리시면 죽는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는 육적으로도 생활이 안정되고, 하나밖에 없는 딸도 대학에 입학하여, 가정에는 웃음이 피어나고, 믿음도 좀 더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단에서 예배를 보는데, 주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에 단상을 바라보았더니, 뽀얀 이슬 같은 은혜가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의 머리에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도 신기하여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온 이슬 같은 은혜, 오랜 세월을 믿어 왔지만 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은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강한 향취가 코를 찌르면서 서너 차례 풍겨 왔습니다. 나는 무심코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뿌리고 온 향수 냄새가 아닌가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호세아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백합화의 향기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석관동전도관에서 철부지로 주의 일을 한답시고 다니다가 알게 된 이 선생이 오늘날 제2감람나무가 되어서, 그 슬하에 나 같은 것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만입이 있어도 이루 다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Chapter 06.

권사 전필순



전필순: 1936년생. 1955년 천막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박태선 장로를 따랐다. 1967년 인천 신흥전도관에 부임한 이영수 전도사를 만나 은혜를 받았고, 1968년 이 전도사가 퇴직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만나 많은 말씀을 들었다. 1973년에 에덴성회에 몸담았다.

출처: 간증담 1권(1979년), 월간에덴 22호(2007년 6월)

나의 어머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갈구하시는 분이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인천에 있는 송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부흥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 시절 어느 날, 서울 동대문운동장

에서 박태선 장로님 집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 집회에 갔는데, 박태선 장로님이 서신 단상에서 비 같은 것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보았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먼지가 날리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천막 사이로 난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보았을 때 분명 비같이 내리는 이슬이었습니다. 그 후 동산광장 집회에서는 백합화 향취를 맡았습니다.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는 더 이상 일반 기성 교회에 다니지 않고, 전도관으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계명학원을 박태선 장로님께서 매입해서 전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박태선 장로님이 단상에 서시기 전 3시간씩 준비 찬송을 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이 단상에 서면 향취가 나고 이슬이 하염없이 내렸습니다.

전도관이 커지다 보니, 지역과 지역을 나눠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송림 제단이라는 큰 제단 옆에 작은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신흥전도관을 작게 만들어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식구라고는 이십여 명에 불과했고, 큰 송림 제단에 더부살이하듯 지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1967년 9월 16일,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신흥전도관은 이곳에 나오는 믿음의 식구들도 적었고, 신앙의 불모지와도 같은, 아주 작은 제단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성경을 해설하시는 말씀이 깊었고, 박태선 장로님에게서 받았던 은혜가 되살아났

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말씀의 깊이가 깊다 보니, 주위의 중앙 제단이나 관동 제단 등, 다른 제단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영수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러 왔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심방을 나가실 때면 나에게 제단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단에 가서 전도사님 방을 청소하거나,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가곤 했는데, 그럴 때면 천정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천정을 바라보며 ‘비가 내리네. 천정이 낡아서 물이 새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밖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천정이 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 방에만 들어가면 항상 빗방울이 툭툭 떨어졌고, 백합화 향취가 진동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은혜가 연결되는 것을 느끼는 성도님들은 어른이든 학생들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영수 전도사님 예배 시간이 그리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져 주위의 다른 전도관을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이 신흥전도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도관 소속 전도사들의 시기와 모략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은 1968년 4월 3일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흥전도관의 모든 제단 식구들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가신 후, 말씀과 은혜에 목마른 몇몇 성도들은 전도사님과 연락이 되어 간

혹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흥전도관 제단에서 청년회 일을 보던 유자환이라는 청년은 이영수 전도사님과 연락이 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간청을 해서 이영수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1968년 8월 26일에 뵈 수 있었습니다. 따로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남산에서 뵈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우리 8명(방화선, 이태순, 전선자, 김용삼, 김정립, 전필순, 신경애, 곽영희)은 과일도 준비하고 김밥도 말아서 남산으로 갔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은 그때도 성경 말씀을 너무나 진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남산에서 이영수 전도사님의 말씀을 내가 요약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몸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란 아주 작은 피의 결정체를 말하는데,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 피가 깨끗해진다 하는 것은 이슬 같은 은혜의 작용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은 작은 물방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그 작은 이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 맑히는 것입니다.

영모님께서 왜 음란죄를 제일 싫어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누구나 여성호르몬과 남성호르몬이 있어서 몸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생리작용을 일으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과 이것을 못하게 하는 생각이 싸우다,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이기면 주님이 아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도 주님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하고, 긴 시일의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을 했을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낙심해서, ‘나는 이제 안 되겠지’ 하면, 자꾸 주님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생각이 이기니까, 그렇게 되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힘을 내서 매달리면 주님은 다시 끌어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보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자면 눈물과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생각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음란한 생각이 큼니다. 배만 부르면 다음으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영모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어떤 사람은 영모님 외엔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던데요?

대답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관 식구가 죽은 송장을 놓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아름답게 변화하는데, 하물며 산 사람을 놓

고 기도하는데 죄가 감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질문 구원 얻을 자격은 흠과 티가 없는 100%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는다고 애를 써도 영모님 같이 되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넘으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답 그 정도 되면 보여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다 보여주세요. 주님은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면 대답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괜히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도 어머니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을 받으세요. 가증된 것은 제일 싫어하세요. 한 번을 불러도 진실되게 불러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진실되지 않게 행동한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무서운 적은, 내가 젊은 남자이니까, 젊은 여자예요. 어떤 여자가 접근해 오면 하늘에서 그 여자를 멀리 보내 버리시든가 없애 버려요. 그만큼 주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만드시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악령에게 뺏기면 주님께 손해예요.』

1968년 겨울, 성탄절이 다가와서 전도관에서는 성탄예배를 한창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실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연락을 드려서 1968년 12월 21일 이영수 전도사님을 흥릉에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전도관 내에서는, 실직한 전도사를 만난다고 야단을 하고 못 만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만날 준비를 해서 보였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 만두를 빚느라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이태순 권사(이규웅 집사 모친)가 꿈을 꾸니,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만두를 빚는데, 예수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이 함께 오시는 것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꿈이었지만, 우리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다음은 흥릉에서 이영수 전도사님의 말씀을 내가 요약해서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무슨 친척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핏줄이 섞인 것도 아니고, 단지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것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수단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게 그들과 좀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에도 몇 십 명씩 앞에 놓고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애를 쓰던 것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할 때는 준비를 안 해도 머릿속에서 말씀할 것이 척척 연달아 나옵니다. 성경을 보고 준비해서 한다면 기성 교회 목사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전도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애를 써도, 충성을 해도, 그 사람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시킨 것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성과를 내는지 보신 후, 일을 더 맡기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은혜는커녕 꼭 미친놈 같지만 단에만 서면 은혜로운 말을 한다 하는데, 심지어는 이영수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나 하는 소릴 들었습니다마는, 겉으로 보면 그런 말을 들을 만합니다. 다른 전도사들이 아는 정도의 감람나무와 내가 미리 보고 아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서 좀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척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기 전, 몇 십 년을 전도해서 겨우 삼사십 명 식구가 됐다고 해도, 은혜 받고 3, 4일이면 다 해치워요. 한 교회도 척척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주의 뜻대로 살아 보려고, 죽어라 심방도 하고 충성을 해도, 식구들이 웬지 모르게 꺾꺾해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론 큰 실수는 없습니다. 장

관장 같은 분은 자기가 여러 사람을 앞에 놓고, “날 볼 때, 무슨 흠이 있느냐?”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재능이 있느냐에 따라 일을 시킵니다.

주님 당시 베드로가 주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는 안찰하는 능력과 천국열쇠를 맡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만, 바울같이 할례를 폐지시키는 그런 큰일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의 재능밖에 없는 고로. 그러나 바울이 주를 핍박하고, 주를 믿는 자를 죽이고 했지만, 날카로운 성격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인 고로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핍박을 제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직접 뵈고 사랑을 받은 고로, 바울은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 12제자들의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다 죽었다가도 정신을 차리면 또 증거하고, 그러다가 그도 주의 제자들과 같이 목 베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남들이 시기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을 죽인 그 자체는 나쁘지만, 하나님을 위해 시기해서 죽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겁니다. 가인을 광야로 내쫓을 때 가인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는 칠 배의 저주를 하겠다고 하실 만큼 가인을 역성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우리 몸에는 면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신앙을 지키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쏟고 또 받고, 쏟고 또 받으면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면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쏟으면, 우리 속에 있던 마귀가 나갔다가 또 들어올 때 그 비밀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그런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영모님도 지금은 집회를 안 하시고, 처음 같이 병을 고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떨어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 증거를 받을 때입니다. 주님께서도 3년밖에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 후엔 제자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은혜 자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 사하는 일밖엔. 은혜가 와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별안간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도 사흘 굶으면 죽습니다. 은혜 받으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기빠서 배고픈 것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환란을 봤는데, 원자탄 터지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다지 크지도 않은 산과 산이 부딪치는 소리가 그 원자탄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큼니다. 그리

고 땅이 막 갈라지고, 나도 설 자리가 없어 찢찢맸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나를 이끌어 안전한 자리로 갔는데, 천사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끄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환란은 있겠군요.

대답 한번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어떤 분은 호의 호조건이면 지옥이 없다는데요?

대답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과거에 죄 짓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지옥이란 곳은 믿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따로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천당과 지옥인 것입니다

질문 죽은 영혼도 환란을 받지 않아요?

대답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 천년이 차기까지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천년이 차면 마귀를 잠깐 놓아주는데, 왜 놓아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려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면 마귀가 천년성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 에워싸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해서 불 구렁텅이로 쓸어 넣는 것입니다.

질문 어떤 전도사님은 십일조 외에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해도 된다고, 그거나 잘하라고 하던데요?

대답 그건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인 고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신 그 사람에게

전권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성 교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오히려 무서워 하나님을 찾게 되요. 그보다는 인천에 지나가는 바람같이, 각자의 심령을 죽이는 그런 환란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인천 식구들은 그런 환란을 이기고 꾸준히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천년성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하면 천년성에 가요?

대답 천년성에 가는 것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급하면 그 문으로 막 뛰어 들어가면 되요. 간단합니다. 이 역사도 그래요. 빨리 되지 않으면 늙어 죽는 사람도 많지요.

하나님의 종도 여러 사람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완성하는 종이 제일 큼니다. 그때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쏟아 주시는 때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경주를 하거나 릴레이를 할 때 마지막 배턴을 잡고 테이프를 끊는 자가 제일 잘 뛰는 자이고, 그가 이기면 다른 사람보다 제일 많이 환영과 사랑을 받는 것 아니에요? 묵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남자로 표시하고, 주의 아내 되는 자는 땅에서 나타나, 혼인준비를 해서 지상 최대의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 세상이 끝인 것입니다.』

그 후 이듬해(1969년) 5월 6일에 또 전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에도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도사님이 목격한 휘황찬란한 천국 광경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다시 뵈고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해 3월 3일에는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신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자세히 들려주시고, (롬8:9 참조) 1971년 8월 28일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11:26)는 성경 말씀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972년 7월 1일에는 서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당신도 장차 하나님의 사람(박태선 장로)처럼 큰일을 하게 될 거라고 덧붙이고는, 우리 여덟 식구들에게 일일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모였을 때에는, 내년쯤이면 전도관 역사가 많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차례 전도사님(주의 종)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8명은 1년에 1, 2번씩 이영수 전도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축복기도와 깊은 성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1973년 9월, 전도관 15중앙에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서신다는 말을 듣고,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변

을 토하시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에덴성회를 시작하신 후, 생수 축복을 처음 받아와 뚜껑을 여니, 향취가 확 풍기며 진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각오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긴자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실하신 것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나도 이긴자님이 진실한 분인 걸 알기에 끝까지 진실하고 변함없이 살 것입니다.

Chapter 07.

권사 김옥선



김옥선: 1925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박태선 장로를 따르게 되었다. 1967년 인천 신흥전도관으로 발령 받은 이영수 전도사를 처음 만나 은혜를 받았고, 1973년 에덴성회에 몸담았다.

출처: 월간에덴 21호(2007년 5월)

나는 12살 나이에 집을 나와서, 강원도 영월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혼기에 이르러 결혼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던 젊은 새댁 때(24살) 몸에 병이 들어 기성 교회인 왜덕교회에 나가다가, 6.25 한국전쟁이 발생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하여 다 파괴된 왜덕교회를 재건하기위하여 건축

공사를 3년 예정을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비용이 한없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이 갖가지로 궁리하던 중 당시 부흥강사로 각 교회를 다니며 부흥집회를 하던 박태선 집사를 모셔 부흥집회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기간을 예정하고 부흥회를 시작하였으나, 각 처에서 환자들이 많이 모여와서 열흘간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이때 백합화 꽃향기(향취)를 맡고, 성령이 소낙비 같이 내려 ‘썩 썩’ 하는 소리를 듣는 등, 부흥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박 장로님이 축복한 생수를 마시니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박태선 장로에게서 은혜를 받고, 기성 교회에서 전도관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인천 신흥전도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967년 9월 16일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강원도 홍천전도관에서 인천 신흥전도관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이 신흥전도관에서 처음 예배를 인도하시던 날, 나는 예배 시간에 늦어 급하게 전도관으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들으니 찬송을 인도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영수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박태선 장로님 목소리와 똑같아서, “어머, 영모님이 오셨나봐! 중앙의 큰 제단도 아닌 이 작은 제단에 어떻게 오셨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며 들어가 보니, 젊은 이영수 전도사님이 찬송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를 비롯해서 신흥전도관을 다니는 사람들은 이영수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과 큰 은혜를 감사의 눈물로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으로부터 깊은 영적인 말씀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내리니까, 주위의 다른 지관 식구들이 신흥전도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이 부임한 지 4개월이 지난 1968년 1월 1일에 여주전도관에서 헌당예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장창민 관장이 여주전도관으로 가서 예배 인도를 하여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급히 연락이 와서 새벽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이영수 전도사님을 모시고 4명의 집사, 권사가 여주전도관으로 갔습니다. 여주전도관 헌당예배이니만큼 다른 지관에 다니는 성도들도 많이 모여서 여주전도관 제단 밖에까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영수 전도사님 뒤로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 백합화 향취를 맡은 사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은혜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관 성도들은, 이영수 전도사님이 어느 지관 소속 전도사이기에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냐, 하면서 우리 신흥전도관 성도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땐 정말 이영수 전도사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몸이 똥똥 뜨며 올라가는 것 같아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 이것이 꿈이라면 꿈에서 깨어나 질 않았으면, 했습니다.

한번은 구역예배 시간에 집사, 권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이 모여 있는 우리들의 나이들을 물어보시더니, “다 엄마빨이네.” 하시며 내 어깨를 탁 치시는데, 뜨거운 불같은 성령이 왔습니다. 이전에 박태선 장로에게서 받던 성령보다도 더 위력이 컸습니다. 이처럼 큰 성령의 은혜를 이영수 전도사님에게서 받고 나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먹으나 굶으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염없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영수 전도사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한 나는 하루라도 전도사님께 더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전도사님을 귀찮게 해서 내 어깨에 전도사님의 손길이 한 번이라도 더 닿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은혜가 싸악, 싸악, 오곤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장난처럼 보이겠지만, 그때마다 은혜 체험을 하는 나로서는,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주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이 한량없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 남편에게 와서 남편의 가슴에 올라타고 그분의 입술을 내밀어 그 입속에서 하얀 물이 나오는데, 그 하얀 물이 누워 있는 남편의 입속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은 분께서 나에게 세라고 해서 “열 방울입니다.” 했더니 “그래, 이제 되었다. 이제 너희 집에 유전병은 다 없어졌다.” 하시며 돌아서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 나는, “누구신지 얼굴을 보고 싶

네요!” 하니, “얼굴은 못 본다. 내 뒤만 보라.” 하며 나가시는데, 머리 카락이 어깨 정도까지 흘러내린 모습만 보았습니다.

이 꿈을 끝 이후, 내가 전도관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남편의 반대가 없어졌고, 이영수 전도사님이 계시는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신흥전도관에 부임해 오시기 전에 약 두 달간 신흥전도관 전도사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 이전에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 집을 다니면서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구역예배를 봐주시면 그 집안이 편안해지게 되니, 예배에 나오라 말라 할 필요도 없이,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간에 모두 제단에 가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같이 신흥전도관 다니던 김 아무개 집사에게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상이가 되어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살려 달라.”고 하며 울면서 제단에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집사들이 이영수 전도사님 방에 데려와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보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새벽예배를 마친 후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보아주시니 완전히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흥전도관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예배만 봐주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았습니다. 누구는 이 병이 나았습니다, 누구는 저 병이 나았습니다, 하는 등 많은 기

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동기 권사는 멀미를 심하게 해서, 차만 타면 토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영수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옆에 와 앉으라고 하셔서 그 옆에 앉아 갔는데, 멀미도 하지 않고 토악질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가 몸살로 몹시 힘들어하며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영수 전도사님 식사를 해드릴 사람이 없으니, 가서 식사를 해드리라는 연락을 받고, 두 정거장을 걸어가서 식사를 준비해 방에 갔다 드리니, 몸이 어디 아프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 조금 안 좋아요.” 하고 대답하고 나오려는데, 추운데 여기 있으라 하시며 옷을 잡아당기시는데, 갑자기 머리끝에서 얼음덩어리가 꽃혀 차츰차츰 몸 아래로 내려가서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더니, 그렇게 춥고 떨리며 아프던 것이 싹 가셨습니다.

이렇듯 크고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생활을 하며 약 8개월간 이영수 전도사님과 함께 신흥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으로부터 은혜와 말씀이 너무 좋아서 타 지관 성도들이 자꾸 신흥 제단으로 모이니, 타 지역 전도사들과 관장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영수 전도사님은 다른 지관으로 발령을 받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젖을 맘껏 먹던 우리들은 은혜의 젖이 끊기게 되자, 갑자기 엄마의 젖을 뗀 어린아이처럼 전도사님이 가시는 것이 너무도 슬퍼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른 지관으로 떠나시는 날, 새벽예배를 마친 후, 전도사님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전필순 권사와 나는 전도관 마당에서 있는데, 북쪽 하늘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구슬픈,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피리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필순 권사와 나는 너무나 신기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에 복받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영수 전도사님께서 나오시며, “북쪽 하늘에서 나는 저 소리가 들리는가?” 하시면서, 저 소리는 내가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시어서 우는 하늘의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1973년, 이긴자님께서 15중앙에 서서 설교를 하셨을 때, 주위의 관장들과 전도사들의 시기로 잘못된 보고를 받은 박태선 장로님은 이영수 전도사님을 도깨비로 몰았습니다. 박태선 장로님은 신흥전도관 식구들을 덕소신앙촌으로 불러, 도깨비에게 씌웠으니 축복을 받으라고 하며 성도들 몸 안찰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들 안찰이 끝나고 이태순 권사와 내가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영수 전도사 식사를 담당했으니 더 크게 도깨비에게 씌웠을 것이라며, 관장들과 전도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주시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태순 권사를 몸 안찰하던 박태선 장로님이 “오승민 관장 있어?” 하며 부르시니,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신흥 제단에서 헌금 들어온 것은 신흥 제단 빛 다 갚아줘.”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도깨비에게 씌워 안찰 받을 때 어떻게 될까 하고 지켜보던 주위의 관

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시고, 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영수 전도사님이셨는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영수 전도사님이 도깨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앞선 역사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되었습니다. 이태순 권사와 나는 덕소에서 인천 집까지 오면서, 언젠가는 이영수 전도사님을 다시 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전도사로 계시던 시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의 깊이가 박태선 장로님보다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던 우리들은 이영수 전도사님을 박태선 장로님께서 부르셔서 크게 쓰실 줄 알았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이 신흥 제단을 떠나신 후, 신흥 제단 성도들의 은혜의 갈급함이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수 전도사님을 뵈면 그곳이 어디이든 은혜가 오는데, 어찌 은혜에 갈급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은혜에 목마른 우리 몇몇 집사들은 휴직하신 이영수 전도사님과 가끔 연락을 하며, 밖에서 만나 말씀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1973년 전도사님께서 “제2의 감람나무 역사를 따로 시작합니다.” 하시니,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것은 신흥전도관에서 전도사님을 열

심히 보필하며 제단의 중추 역할을 하던 박현순 권사가 의심을 하여 함께 오지 않은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제2감람나무 역사가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이긴자님께서 사랑으로 불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갈급했고 말씀이 그리웠는데, 에덴성회에 나와서 약 3년간은 신흥전도관에서와 같은 은혜가 없고,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 중에 이긴자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울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다시 은혜 연결을 받아, 오늘날까지 이긴자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성회에 나오게 되면서 남편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정말 집안이 뒤집어질 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974년 2월 첫째 주일부터 나의 둘째 아들인 장무경 집사가 에덴성회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심한 반대와 핍박 속에서 둘째 아들을 주님께서 일찍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덴성회를 개최한 지 5년 후, 내 나이 54세 때, 자궁을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감사하게도, 이긴자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수술을 받고 깨어났는데도 아픈 것을 몰랐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놔 주려고 주사를 들고 들어왔으나, 내게는 고통이 없어서 진통제 한 대도

맞지 않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퇴원도 수술 후 3일 만에 해서, 병원에서 놀라워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잘 때, 또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는 마치 참기름을 몇 병 부은 듯이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에덴성회에 나오지 않는 막내아들이, 하루는 내게 와서 생수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무당집인지를 모르고 이사를 했는데, 무당이 가면서 갖은 악담을 다하고 가서, 집에 생수를 뿌리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생수를 주며 “한 컵 마시고 집에 뿌려라.” 했습니다. 그 후 쓰고 남은 생수가 3년이 지난 지금(2007년)도 믿지 않는 아들집에 남아 있는데, 변치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곡성전에 들어와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집을 지니고 살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기쁘기 한량없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나의 영이 주님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는 몸이 아파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긴자님께서서는 거룩한 하늘나라의 연회장 모형을 이 땅에 건축한다고 하시는데, 그 ‘천국연회장’ 건축에 못 하나 뽑지 못하고 쓰레기 하나 치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주님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Chapter 08.

권사 윤문섭



윤문섭: 1930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1967년에 전도관에 나가며 은혜 체험을 하였다. 1973년부터 에덴성회를 나왔는데, 남편인 최현 장로가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 말씀을 정리하여 16권의 설교집을 출간 하였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계간에덴 25호(2008년 1월)

나는 대학교를 다닐 때 장로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루는 박태선 장로가 남산에서 부흥집회를 한다고 해서, 같이 대학교 다니던 동막교회 친구들과 남산집회를 가 보았습니다. 박 장로께서 단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남들이 “이슬이 내린다.,” “향취가 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을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새벽에 이슬이 내리는 게 당연하지, 그게 무슨 대수로운 소리냐?” 하며 일종의 야유를 보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남녀공학이었는데, 학생도 많지 않았고, 교사도 정원보다 모자랐고, 학교 재정도 빈약해서, 나는 두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독일어와 영어를 강의하기로 했는데, 시국이 어수선한 시기라 26살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괜찮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짓궂게 장난을 걸어오는데,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사가 일주일 만에 교사직을 그만하는 게 어디 있냐고, 지금 교직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데, 라고.

일선 교사직을 그만두고 경기도교육청 문정과에 들어갔습니다. 문정과의 문화계는 체육, 종교, 문화 시설을 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직급으로는 제일 말석이 아닌데도 뒤늦게 교육청에 들어간 관계로 말석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토의를 할 적에는 과장, 계장 등, 소위 상관이 토론하고 나서, 나의 의견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윤 선생은 사리판단이 올바르다.”고 칭찬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나는 경기도교육청 문정과에 있으면서 소

사신양촌에 시찰을 갔는데, 교인들이 광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광란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찰한 것에 대한 소감을 물어오기에, “내가 보기에는 광란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난리치는 게 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나는 최현 장로와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불교도였습니다. 나의 친척들은 여기저기 교회에 장로도 있었고, 목사도 있어서, 결혼식을 정동교회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장관으로 계신 분에게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조계사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병들고 나서 1963년쯤부터 감리교회에 좀 나왔습니다. 워낙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지만, 교회에 나가고 있는 중에, 친척 오빠가, “박태선 장로님 머리 위에 영광이 돌린다더라. 거기 한 번 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관에 가봤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 전도관에 다니다 보니, 박태선 장로님 머리 위에 달무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누가 전도해 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서 그런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동네에 있는 전도관을 다니며 신비한 체험을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관에서 서울에 제7중앙 제단을 건축하기 전부터 임원 구성을 하는데, 저는 서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중앙 제단 산하에

24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인회 회의를 합니다. 서기는 그 회의를 기록하고, 지회마다의 출석인 수와 물품 판매대금, 전도인 수 등을 매달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했더니, 박 장로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보고서를 일목요연하게 잘 써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하시며, “이 사람한테 이 만년필을 선물로 줘라.” 하여, 나는 부인연합회장을 통해서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전도관에서 지관에 나가며 갖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취도 받게 되고, 박 장로가 단상에 서시면 머리에 영광이 돌리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향취가 뛰고, 이슬이 뿜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관예배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향취를 맡게 되고, 생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로구 중학동에서 살아서, 애들이 병나면 한국일보사 옆의 이선근 소아과에 다녔는데, 큰 아들(최원)이 감기로 주사 맞은 것이 쇼크를 일으켜 실신했다가 회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최석)은 귀신이 붙었다고 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전도관에 나가고 나서는, 애들이 아파도 생수를 먹이고 예배를 보고 나면 병이 다 나았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냈고, 아이들 3남매를 키우는 동안에 약이라는 것이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가 성서 상 둘이라는 사실과 전도관 체계의 악조건, 호조건은 성서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박 장로

님의 설교 말씀에는 가끔 비성경적인 데가 있어, 의문에 사로잡힌 채 전도관에 정착해 오다가, 박 장로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박 장로님의 재혼으로 인하여 전도관에 대한 회의가 다시 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박 장로님이 단상에서,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시는 데는 혐오를 금할 수 없어, 우리는 관악산으로, 일석교회로, 삼각산 기도원으로 슬슬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두 번째 감람나무 이긴자님에 대해 1973년 9월 하순쯤에 제15중앙 관장(안인순)이 전해 줘서,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이긴자님은 제15중앙 제단 단상에 두 번 서시고, 전도관에서 제명된 후, 가정집에 숨어 다니며 예배를 보았습니다. 남편이 이긴자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예배를 처음 보고 와서는, “야! 나는 생전 처음 얼마나 감동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 최현 장로는 고려대학교 철학과 출신이라 거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는데, 감람나무 이긴자님의 설교 말씀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 이긴자님의 예배에 계속 나갔습니다.

우리는 첫 예배를 본 날 밤에, 분별의 지혜를 주십사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스가라서 3장 8절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 집 꽃나무에 떡잎이 져던 것이 없어지고 새순이 돋아나서 꽃이 조화 있게 피어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감람나무가 틀림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도관에서 훼방을 해서, 예배 장소가 번번

이 바뀌어, 장소를 찾는데 애먹었습니다. 하루는 삼양동에서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이 있으면 좀 주세요.” 하셔서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펴서더니, “이분도 두 감람나무에 대해 어지간히 줄을 그어 놓으셨군요.” 하셨습니다.

1973년 11월 17일, 성바오로병원 옆에 제단을 얻어 개관예배를 보는데, 전도관 전도사들이 많이 와서 입구를 지키며, 층계를 오르는데 손을 잡아당기며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라. 성경에, 이상한 증거가 있으면 알아보라고 했는데, 왜들 그러느냐?”고 호통을 치고, 제단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에덴성회를 다니는데, 그때 제가 전도관에서 받을 돈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전도관에 공금을 입금하려고 이 전도사가 돈을 꾸어 달라고 하고, 저 전도사가 또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다 신앙인이고 목회자이니 믿고 내 개인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게 한 140만 원 됐었습니다. 당시는 그게 큰돈이었으므로, 그 돈을 받으러 전도관에 가느라 에덴성회에 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내가 동사무소를 갔더니, 이긴자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머, 이 전도사님이 동사무소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했더니 “아, 누가 나를 믿어줘야지요. 그래서 신원증명 떼러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영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도 에덴성회에 나가다, 안 나가다 하며 시간이 지체되었고, 한참 후에 나갔더니, 이긴자님께서, “집사님,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하며 물으셨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전도관에서 받을 돈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 돈 못 받으십니다. 단념하세요. 그 돈을 전도관 전도사들이 썼다고 해도, 집사님이 못 받으면 집사님이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갚아 주십니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공감되어, 에덴성회 제단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성회 초창기에는 청계천이 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꿈에, 시커먼 물이 흐르는 청계천 속에 전도관 식구들이 모두 증옷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다 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전도관의 말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1월 1일, 꿈 중에 박 장로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애.” 하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네.” 하며, 워낙 박 장로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장로님이 (손으로 오른쪽을 가리키며) “너 저쪽 목욕탕 있는데 알지?” 하고 물으시기에 안다고 대답했더니,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하셔서 부지런히 종종걸음으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박 장로님이 “거기서 뭐를 하던?” 하고 물으셔서 “홀에서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밥을 먹으며 앉아 있습니

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장로님이 “그래 탕에 물은 나오던?” 하고 물으시기에, 나는 “탕은 안 들어가 보고, 흠만 열어 보고 왔는데, 밥을 먹으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서 받아먹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장로님이 “물을 먹으면서 준비한다고 앉아 있어?”라고 물으시기에 “네. 수도꼭지가 여럿 있는데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애.” 하고 부르셔서, 나는 “네!” 하고 대답하니, “애, 너 말이야, 한문은 알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한문을 소학까지 떼고 초등학교를 갔기에,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장로님이 칠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칠판을 받아서, “어머나, 칠판이 완전히 새것이야. 참 글씨가 잘 써지겠네.” 이렇게 칠판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 장로님이 “내가 부르는 말을 받아쓸 수 있지?”라고 말하시기에, 나는 “네. 그럼요. 받아쓸 수 있지요.”라고 대답했더니, 무엇 무엇이라고 부르시는 대로 그 말을 받아 적으니, 칠판 아래 마지막 줄의 약 1/3 정도 되니까 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더 부르시면 칠판이 모자라겠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 썼니?” 하고 물으시기에, “네.” 그랬더니, “그럼 이리 나오.” 하셔서 박 장로님께 내가 받아 적은 걸 드리니, 그것을 보신 후에 다시 내게 주시며 “옳다.”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네가 공표해.” 라고 박 장로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장면이 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장면은 박장로님도 없고 상황이 전혀 달랐는데, 큰 목재소에서 목침 같은 토막과 톱밥도 있고 대팻밥도 있고, 어수선한 것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크기는 엄청 큰 목재소인데, 저 구석에 작은 각목이 두세 개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깰는데, 또 다시 잠을 잤더니, 지금 알곡성전 종합운동장이 보였습니다. (꿈을 꾸는 것은 1974년이고, 종합운동장은 2000년 이후에 건축됨) 운동장을 우측으로 산비탈을 내가 올라가고 있으니, 이긴자님께서 알곡성전 단상에 서서서 대예배 후, “할렐루야!”를 외치시려다가 나를 보시고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알곡성전은 1987년에 건축됨) 그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꿈 중에, 알곡성전을 시골에 건축하라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장면이 바뀌어 골짜기를 들어가다가 보니, 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고 확인하니 감람나무였습니다.

또한 이긴자님이 안찰하실 때에는 하수구가 뚫리는 것같이 막힌 가슴이 뚫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칼슘주사(정맥주사) 맞는 것같이, 생수가 전신에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는 1974년 1월 1일부터 제단을 열심히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예배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새벽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예배까지 보고 가려면 제단 근처에 여관을 잡아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외국원서를 번역해서 원고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

고 있었기에, 항상 원고 봉치를 가지고 다니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왔다 갔다 하며 주일예배를 세 번씩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긴자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박태선 장로님의 말씀과는 달리 너무 깊고 오묘하여, 기록에 남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 최현 장로에게, “이 좋은 말씀을 기록으로 해서 설교집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요? 한 번 안 관장(전도관 제15중앙 제단 관장을 했던 안인순. 이긴자님 말씀으로 이름을 안진홍으로 바꿈)에게 건의 좀 해봐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일을 내가 꿈으로 꾸었던 것은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이긴자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긴자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긴자님의 설교 말씀이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들으며 작업을 하다 보니, 녹음테이프가 금방 많이 쌓였습니다. 내 남편 최현 장로가 들으면서 작업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내가 남편을 도와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적으로 실력과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워낙 남편이 지인들에게 천재로 인정받고 있어서,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있던 분이 문교부장관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비서관을 시키려고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병을 앓고 있던 남편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서관이라는 것은 일종에 별정직인데, 비서관을 하고 나면 서기관으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빠르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은 남편 중학교 동창인 국무총리 정일권 씨가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남편을 장관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일권 씨는 용정에서 남편과 영생중학교를 같이 다닌 동창이었습니다. 남편은 고려대학교 나오고, 더군다나 시집도 내고, 시 평론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스카우트하기 위해 왔다 가고 나면, 자기가 건강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분노가 치밀어오면 영락 없이 또 며칠간 지병으로 인해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 최현 장로를 48년 동안 병수발 들면서 살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게 살았습니다. 이긴자님께서 당신 말씀을 글로 남기는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서 남편이 늙게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셨고, 편히 돌아가시게 된 것을 크나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전도관에 다닐 때 일인데, 교역자들이 우리 집에 오면 차라도 대접을 하려고 해도 안 마시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해도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도사가 “최 집사님이 오른쪽 가슴이 나쁘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집사님 댁에 가서 기도를 하니깐 가슴이 빠근해 와서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집사님, 누가 편찮다는데, 그리로 오세요. 예배 보게.” 해서, 그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전에 전도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말한 것처럼, 어디가 아프다고 들은 것도 아닌데 누워 있는 환자의 아픈 것이 나한테도 전해져 왔습니다.

전도관에는 성령이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진 모습도 기도 중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옥중에 들어가실 때도 그렇고, 이긴자님께서 허리를 다치실 때도 다 사전에 증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시던 날도 붉은 벽돌집 쇠문을 뒤로하여 저벅저벅 걸어 나오시는 꿈을 꾸고, 나는 남편에게, “아마도 오늘 총회장님이 나오시려나 봐요.” 하고 말하자,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했는데, 오후에 선교원장님으로부터 이화대학병원으로 총회장님 면회를 가라고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 공경하며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언젠는 한 번 부르셔서 가보니, “사실 나한테 자식 노릇한 것은 너 뿐인데, 내가 너한테 참 잘못했다.” 하시며, 아버지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신 걸 무척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너 나가는 교회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으셔서, 생년월일 등등을 교적부에 적어서 내는 거라고 했더니, “그럼 가져와라.” 하셔서, 당신이 교적부를 써서 어머니 사진하고 같이 붙여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경 보고,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는데, 성회장님들과 선교원장님이 입관예배

를 보셨습니다. 그때 참석한 교역자님들이 어머니께 “정말 따님 덕, 사위님 덕 단단히 보셨네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향취가 진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Chapter 09.

권사 전명자



전명자: 1927년생.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신앙을 지키다가 시집간 후, 1944년 이상 중에 현재의 알곡성전과 이영수 총회장을 보았다. 부흥회에서 불을 체험하고, 1950년 전쟁이 난 후 대전으로 피난 가서, 강태온 목사의 조카를 만나, 강 목사가 계시를 받아쓴 책을 보고 감람나무를 알게 되었다. 1952년 이상 중에 박태선 장로를 보았으며, 소사신양촌도 미리 보았다. 그해 알곡성전을 한 차례 더 보았다. 1954년 남대문교회에서 박 장로를 처음 만나 나중에 전도관을 다니게 되었다. 전도관에서 은혜가 끊어진 후 1974년에 에덴성회로 전향하였다. 1987년에 알곡성전을 건축하며 이것이 이상 중에 본 건물임을 알게 되었다.

출처: 월간에덴 창간호(2005년 9월)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어려서 서울에 올라와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형제자매는 12남매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집안 대대로 5대에 걸쳐 가톨릭 신자로 천주교를 믿었는데, 저도 열심히 믿다 보니,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다 하여 항상 옷도 풀어놓고 편히 잠을 자지 못했고, 번개만 쳐도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보름 만에 남편은 군대에 가고, 시어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채 안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도 일찌감치 먹고, 옷을 제일 예쁜 것으로 입고는 방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전명자야, 나오너라!” 그래서 대문까지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 누군가 하얀 통옷을 입었는데, 다리 위로만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하고 가자. 따라오너라” 그때 서대문에서 살았는데, 서대문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를 팔로 안아 감싸 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몸이 똥똥 떠서 갔습니다. 서대문에서 청량리를 거쳐, 가평의 대성리까지 오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청평쯤 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요?” 하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했습니다. 상천리에 도착하여, 알곡성전 올라가는 기찻길 아래 굴다리까지 와서, 그분이 손을 펴서 길을 가리키며, 그 길로 쪽가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굴다리는 2011년에 철거되어 현재는 없음) 그래서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나무들이 울창해서 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니 경비실이 나타났는데, 현재 알곡

성전 입구 경비실이 내가 그때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 권사가 이상을 본 것은 1944년이고, 알곡성전은 1987년에 건설되었음) 위로 계속 올라가, 지금 주차장 위에 있는 성전 1별관 아래 안내실에 도착하니, 오느라고 고생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광명하고 찬란한 빛이 온 산 공중에서부터 내 머리까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마음껏 놀다 가거라!” 놀다가 보니, 세 개의 멍석에 알밤이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밤을 마음껏 골라 가라는 말을 듣고, 큰 것으로 반들반들한 알밤 5개를 골라서 하얀 손수건에 싸서 고의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영수 총회장)이 현재의 모습으로 알곡성전에서 내려오시는데, 알곡성전 지으실 때 모습처럼 베이 지색 잠바에다 군화를 신고, 손에는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영수 총회장은 1942년 생으로, 전 권사가 이상을 보던 당시는 3살이었음) 광장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빈 공간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 누굴까!’ 한 번 쳐다보고, 혼자 생각에, ‘산이 이렇게 크니까, 아마 산지기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께서 알곡성전 지으실 때처럼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19살에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기찻길 굴다

리 지나서 다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손수건을 펴보고 싶었습니다. 펴보니까 밤 5개 중 하나가 벌레 먹어서 던져 버렸습니다. 또 그곳을 지나 청평으로 가는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늦봄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손수건을 펴보고 싶어서 펴보니까 또 밤 하나가 벌레 먹었습니다. 또 그 밤을 깨뜨려서 눈에 던져 버리고, 나머지를 손수건에 싸서 넣어가지고 집에 와 함속에 잘 보관했습니다. 그때가 19살이었는데, 1944년도에 본 1차 이상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게 된 동기는 중 때문인데, 토함산에서 10년 동안도 닦고 내려오던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더니 지나갔습니다. 시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빨리 불러들이라고 해서 불러들이니, 중이 하는 말이, 제가 이 집에 있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좀 살지,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20살(1945년)에 시택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택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시택에서 나와 신당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북 평양에서 피난 나온 형제가 매일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니까 당신한테 전도 안 받는다고 했지만, 그 중이 한 말이 생각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구세군의 어떤 분이 백일금식하고 나와서 부흥회를 연다고, 구경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 내게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젖을 안 먹어서 젖이 말랐었습니다. 그분이 안수로 손수건을 툭툭 치고 다니는데, 그 손수건 끝이 제 머리에 조금 닿았

습니다. 그때부터 뜨거움이 오더니, 젖이 넘치도록 나왔습니다. 또 그분이 저에게, 거기 앉으신 자매님에게 아주 큰 성령의 불이 떨어졌으니까 몸이 말할 수 없이 더울 거라고, 불 꺼지니 절대 물 먹지 말라고 해서, 몸이 뜨거워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면서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온몸이 불덩이인데다가, 머리에 큰 돌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같이 쭈시고 아파서 눈도 못 떴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시원해지면서 아픈 것이 사라졌는데, 이어서 팔다리에 서부터 난도질을 하듯이 다시 아팠습니다. 그 아픈 고통도 사라지고 난 후 온몸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쭈시고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한 이틀을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피를 두 대야를 쏟아 냈는데, 다들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시원해서, 은혜로 알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뽀얗게 변하고 향취가 나서, 사람들이 무슨 화장품을 쓰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 성령을 받은 후, 1950년 6.25가 나서 대전으로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과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번개만 치면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하고 여기곤 했는데, 북에서 넘어온 자매 한 명(강태온 목사의 조카로 대전 중앙교회 강 집사)이 “자매님,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실 때는 이상

한 징조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맞이해야지, 그렇게 조급하게 주님 안 오셔.”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책(‘십자가는 야간의 태양’ 1, 2권)을 줄 테니, 남편도 누구도 몰래 밤새도록 읽다가 새벽기도 올 때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될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하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강태온 목사)가 해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분도 목사인데, 일제 강점기 때 석 달 열흘 동안 금식해서 계시를 받고, 앞으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거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단이라 해서 제명당했다더군요. (전 권사가 이 책을 본 것은 1950년이고, 박태선 장로가 감람나무를 증거한 것은 1956년임)

그 책을 보니, 요한 계시록을 함부로 뺄 자가 없다, 감람나무가 주인공인데, 감람나무가 나와야 요한 계시록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 속의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다 설명하셨습니다. 강 목사님이 계시 받은 대로, 책에 그림으로 그려 놓고, 성경 구절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감람나무 둘이 나타난다는 것, 감람나무가 나타나야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 마귀를 부술 수 있다는 것 등이 다 그 책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밤새도록 읽고 새벽기도 갈 적에 갖다 줬는데, 그분이 이복에서 나올 때 이부자리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책 두 권만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책은 이단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다 강제로 수거하여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강 집사는 부엌 바닥을 파고 감추어서, 책에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1952년(27세)에 부산 영주동에서 이상 중에 박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박 장로님을 실제 만난 것은 1954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박 장로님이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마와 손에서 피가 뚝뚝 흘러내리고, 박태선 장로님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데, 옷은 젖지 않고 그 피가 전부 박 장로님 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밑에 있는 성도들은 불과 5명밖에 안 되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계신 분도 바지저고리를 입었고, 그 아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치마저고리를 입었습니다. 그분이 피를 다 흡수하자, 그분 밑에서는 뽀얀 이슬 같은 은혜가 안개가 되어 퍼졌습니다. 그게 강태온 목사님의 책에서 본 장면이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고, 향취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슬 같은 은혜구나.’ 했습니다.

같은 해(1952년) 이상 중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자.”

그래서 서울 집을 가볼 수 있느냐고 했는데, 서울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시고, 주님이 팔로 제 목을 감싸고 공중을 날아갔습니다. 저 아래 산과 강이 보이고, 한참 가니 한강이 보이는데, 소사로

가시더군요. 거기서 오만 제단 건설하는 장면을 보고, 저도 이상 중에 돌을 깨고 일을 했습니다. 계수리, 나사렛동네를 보여주시고, “이제 돌아가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갈래요. 여기서 살래요.” 하니깐, “너도 때가 되면 여기 와서 살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중에 보여주신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6.25동란 중에 부산에 있을 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소사신앙촌은 1957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1959년에 입주함)

또 같은 해에 이상 중에 알곡성전을 봤습니다. (알곡성전은 1987년에 건축됨) 주발봉 위쪽 높이, 공중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지금 상록회동산 자리에 큰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첩첩산중에 교회를 크게 지으셨는데, 누가 여기에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찾아오나!’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보니까 성전이 지금 알곡성전 있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성전 구조가 그때 본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 이 첩첩산중에 누가 이 제단을 알아서 찾아올까!’ 생각을 하면서, ‘저 안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나!’ 하고 고개를 빼서 보는 데, 아무도 없고 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얀 아파트 두 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아마 직원들이 사는 집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회에 아파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성전아파트는 1991년에 건축됨) 내가 그 꿈을 다 꾸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는 신앙이 깊을 때였습니다. 불의 증거를 충만히 받았고, 은혜에 젖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후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충청남도를 가든, 부산을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가서 한 일주일 기도하면, 이상 중에 내가 불을 켜 촛대를 가지고 가서 강대상 가운데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석 달도 안 돼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내가 이상 중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전도관이 생기기 전에, 감람나무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미국선교사가 남대문교회에 와서 기틀을 열었습니다. 남대문교회에 갔더니, 안내하던 박 집사님(박태선 장로)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이날이 박 장로님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박 장로님이 저에게, 예배 끝나고 찬양대 석에 앉아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석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남자 신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도 몇 있었습니다. 그때 박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발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찬양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큰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도대체 그 기도가 무슨 소리인가 했습

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다가 창동교회(김치선 목사님이 중구 남창동에 세움)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감람나무를 찾으려고 부흥회 하는 데마다 찾아다녔는데, 창동교회에서 변계단 권사님(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함)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야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나는 참 목자를 찾으려고 이렇게 발이 부르토도록 돌아다니는데, 참 목자를 어디가야 찾습니까? 참 목자를 찾아서 참 꼴을 먹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 권사님이 순서대로 안찰을 하는데, 나를 안찰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인데, 안찰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일을 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활동을 해야지, 숨겨 놓으면 안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감람나무를 만난 것은 54년도였습니다. 그때 창동교회에서 변계단 권사님 모시기 위해서 환자들이 매일 쭈그리고 밤새도록 철야를 했습니다. 어느 날 변 권사님이 사정이 생겨 못 오시게 되었는데, 그때 박태선 안내 집사님이 김치선 목사님에게, “제가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축복을 해서 환자들을 낫게 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박태선 장로는 김치선 목사와 일본에서 같이 있었으며, 김 목사님을 존경하여 수양아버지로 섬겼다고 한다. 그래서 해방 전에 귀국하여 김치선 목사가 시무하던 남대문 교회에 다녔으며, 김치선 목사를 따라 창동교회로 옮겼다.) “은혜 받았으면 권능을 행

해야지요.” 변계단 권사 오기 바라다간 그 사람들 죽겠다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때 박 집사의 안수로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앓은뱅이가 일어서 걷고,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 병을 고쳤는데, 목사들이 집사에게 안수를 받을 수 없다 하여, 아주 젊은 박 집사에게 장로직을 주었습니다.

내가 나가던 교회는 바로 우리 집 앞 후암동 영주교회인데, 영주교회를 나가서 새벽기도만 하고는 남대문에 있는 창동교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면 불이 오니까, 그 불을 받으러 창동교회에 어린아이를 업고 매일 갔습니다.

한번은 김치선 목사님이 축복을 하라고 하셔서 박태선 장로님이 안수하고, 그 이튿날 또 내가 새벽기도를 갔는데, 감람나무를 찾느라 너무 힘이 들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단상을 딱 치더니, “눈물을 그치고, 기도를 그치시고, 앞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이때는 구원받을 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분이 누구기에 ‘나를 바라보라’ 합니까? 바라보면 은혜가 간다는데, 어찌 남자를 쳐다봅니까?” 하고 제가 속으로 주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 찾아다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분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그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바라보세요.” 해서 바라보니, 가슴속에서 계란만한 것이 푹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이 그치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장로님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박 장로님이 여러 교회로 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찾으러 다니다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후암동 영주교회에 다니다가 전도관으로 옮길 때였는데, 이상 중에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오셨느냐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머뭇거리시더니, 왜 교회를 옮기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관을 나가야 한다고 하니깐, 그럼 가도 좋은데 촛대만은 달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는데요?” 하니깐, 옷장 속에 있는 그 촛대를 달라는 겁니다. 옷장을 열어 보니까 과연 촛대가 있고, 불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니다. 그것만 주면 가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하고, 촛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내 것이 아니고 네 것이로구나.” 하시고, 슬픈 얼굴을 하며 할 수 없다고 가셨습니다.

나중에 전도관으로 적을 옮기고 가서 기도하는데, 이상 중에 보니 강대상에 큰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그 촛대를 가져와서 불을 붙이려고 가까이 가져가니까 저절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전부 촛대를 가져와서 거기서 불을 붙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박 장로님이 단에서, 오늘은 소방차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날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차가 7대가 왔습니

다. 성령의 불기둥과 연기를 보고, 불이 난 줄 알고 찾아온 겁니다. 전도관에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박 장로님을 제가 52년도에 부산에 있었을 때, 이상 중에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54년도에 능력을 행하며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보았던 겁니다. 찾다, 찾다, 창동교회에서 박 장로님을 만나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은혜 받고, 마음을 다 바쳐서, 소사(제1신앙촌)와 덕소(제2신앙촌)까지 따라갔습니다.

전도관에서 은혜가 사라져갈 무렵, 남편 이기만 장로님이 저보다 한 주 먼저 청량리 에덴성회를 나갔습니다. 한번은 남편이 두 번째 감람나무가 나타났다고 하며, 박 장로만 믿지 말고, 당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나와 보면 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당시 청년 중에 장동례를 불러서 나를 전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시에 영적인 양식을 못 받아서 아주 영양실조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든지 내 영을 살려 준다면 무조건 따를 거라고 대답하니까, 그 청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기를 “그분이 안 찰하신데? 축복하신데?” 그러니까 축복도 하시고, 생수도 있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에덴성회를 나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요한 계시록 말씀들을 하셔서, ‘조금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요한 계시록 가지고 나오더라.’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요

한 계시록 말씀 안 들고 나오시면 안 되나?’ 하며 못마땅해 했는데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시집살이하다가 친정에 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설교 말씀이 좋았습니다. 전 역사는 구절만 읽으시고, “때가 되면 설명한다.” 하시며 중요한 말씀은 설명을 안 하고 미루셨는데, 결국 설명을 못 듣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감람나무는 강태온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있던 얘기를 다 하시더군요.

집에 와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아버지 말 듣고 청량리 성바로 치과병원 4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갔는데, 요한 계시록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 우리 거기 나가자.” 하니까, “엄마가 전도관에서 우리를 낳아서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전도관에 안 나가고 에덴성회를 나가면 우리를 도깨비라고 할 거고, 우리는 전도관에도 못 나가고 마귀가 될 텐데요.” 그러면서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그럼 너는 4중앙에 가서 박 장로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나 듣고 와라.” 그렇게 자식들이 가로막아서 청량리 에덴성회에 못 나갔습니다.

그 뒤 하루 종일 누군가 목도리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래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었는데, 자식들이 엄마, 왜 그러느냐고 해서, “너희들이 제단에 못 가게 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엄마가 죽으면 안 되니까, 거기가 도깨비라고 해도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 보고, “박 장로님 말씀 듣고 오면, 얘기 들어보고 결판을 내자.” 했는데, 아들이 들고 와서는, 이영수 감람나무는 도깨비라고 하고, 거기 생수도

못 먹게 하고, 그걸 먹을 바에는 차라리 똥물을 먹으라고 막 찢다는 겁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식구 다 큰일 났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받아 온 생수 먹으니까 살겠고, 축복 받으니까 살겠다. 내가 오늘 영애가 못 가게 해서 못 갔는데, 다음 주에는 나가라고 했으니까 나갈 거다. 너희도 다 나가야 돼.” 해서 그때부터 에덴성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74년 12월 초였습니다.

1987년 알곡성전 완공 후, 저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동산 주변을 정리하고 가꾸며, 꽃도 심고, 계곡도 정리할 때입니다. 계곡에서 세숫대야에 물을 주워 나르는데, 성전 앞모습과 주발봉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곳이 내가 19세(1944년)와 27세(1952년) 때 이상 중에 와 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이상들이 생각이 나면서, 감동이 복받쳐 감당 못하게 눈물이 쏟아져, 얼른 사람 없는 곳으로 피해, 물소리 나는 계곡으로 가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이상 중에 본 장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1999년에 아들 명선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저녁에 성전으로 산책하러 올라가면 광장에서 향취가 나고, 내려올 때 향취가 났습니다. 내가 꿈에 봤던 곳에 들어와 살고 있다니!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Chapter 10.

권사 조영희



조영희: 1937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박태선 장로의 천막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전도관을 다녔다. 1974년 전도를 받고 에덴성회에 나왔다.

출처: 간증담 1권(1979년)

제2감람나무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되어 한없이 감사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강화 선원면에서 나서 살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중, 1955년 무렵에 교회에 큰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숭실대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수요일인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학생이 서울 남산집회, 한강 백사장집회에서 은혜 받고 온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별안간 향취가 나고, 기도문이 터지며, 통회자복들을 해서, 모두 너무나 놀랍고 기뻐,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로, 좀 떨어진 야산에 석조 건물로 교회를 잘 짓고, 자주 집회도 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엄청나게 큰 인천 동산광장에서 박태선 장로님의 천막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3만 명이 모임) 장로님이 예배 인도하시면서 찬송가 80장(“자비하신 예수여”)을 부르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찬송이 끝나서 장로님 얼굴을 쳐다보니, 그 얼굴이 신령하고 희한한 빛으로 완전히 감싸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탄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80장 찬송을 하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설교 말씀이 다 끝난 다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안수하시는데, 백합화 향기가 진동하며, 많은 병자가 나오며, 친척 아기도 다 죽어가다가 그때 안수 한 번 받고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 후 한동안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수, 이슬의 은혜가 내리고, 성령의 바람도 불고, 불의 성령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백합화 향취가 너무 진동하여 몸과 옷에서도 향취가 났습니다. 또 몸은 무게가 없는 듯 느껴지고, 그때의 내 심정은 무한히 큰 우리 주님의 품속에 꼭 안긴 것 같았으며, 누구나 다 사랑스럽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흘렀습니다.

그 당시 꿈을 꾸었는데, 은혜로운 꿈도 많았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꿈에 온 세상이 다 시퍼런 물바다인데, 그 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 우리나라가 그 바위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러데 광채가 너무나 밝게 온 세상을 비추는데, 과연 우리나라인지 태양인지 모를 지경으로 찬란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49장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또 꿈을 꾸는데, 한 무리들이 새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키와 모습들이 다 비슷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신비한 가운데 밝고 희한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을 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아무리 미인이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아름다운 영의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듣고, 전하였지만, 3년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하늘에서는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준비가 안 되어 그런가, 뭐가 잘못되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들이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은혜도 점차 멀어지고 낙심만 되었습니다.

병도 생기고 죽고 싶던 차에, 1974년 3월에 우연히 전에 알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가 전도관에 다니던 권사 한 분을 아는데, 그를 만나 보자고 하여 같이 갔습니다. 참으로 청산유수로, 어쩌나 말을 잘하시는지, 둘째 감람나무가 나타났으니 그곳에 가야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둘째 감람나무라는 데는 다 가보고,

신령한 부흥집회라는 데도 다 가보고, 삼각산, 용문산, 등 전국적으로 다 다녀 봐도 별 수 없더라고 하니, 그 권사님 말씀이, 잔소리 말고 가보면 알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친근하고 강력한지, 그 다음 주일에 같이 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옆 4층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맨 뒤에 앉아 기도하는데, 웬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나는지, 그리고 그 권사님 말씀대로 향취도 나고 해서, 이것이 얼마만인지, 나도 모르게 “진짜, 진짜로구나!” 했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토록 어렵고 비밀스런, 그야말로 베일에 싸인 그 요한 계시록을 그토록 쉽게, 거침없이 풀어 주시는데, 그만 탄복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주님이 나를 안 버리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든 하다 죽자. 절대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보는 도중에 옛날 앞선 하나님의 역사의 초창기와 같은 짙은 백합화 향기가 확 풍겨와 나는 저절로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단상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인간의 생각으로 연구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김창숙 권사님의 말씀대로, 이어지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다 죽고 이사하고 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예배를 다니는데, 어느 주일 날 눈을 감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다 눈을 뜨니, 단상 오른쪽에 분

명히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상이 나타난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 안이 박하사탕을 문 것 같고, 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주께서 믿는 자는 생수가 배 속에서 강같이 흐른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는 예배 때마다 물방울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인천지회에서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를 보는데, 단상 오른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광경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뚜렷이 보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심정으로 오랫동안 눈물로 내 죄를 통회하니, 주님의 고통스러운 생애가 한 장면 한 장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생수의 은혜가 연결되는데, 마치 박하사탕을 입속에 넣은 것처럼 싸아 하면서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콤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배 속에 가득 차기도 하고, 또 생수가 입에서부터 창자 속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가운데 젖어, 주의 종으로부터 몇 번 안찰을 받고 그렇게 괴롭던 병마도 씻은 듯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1977년 4주년 기념집회 때 찬송가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눈앞이 환히 밝아 오면서 네모반듯한 커다란 발이 나타나고, 그 발에는 곡식이 질서정연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밭고랑마다 샘물이 솟구쳐 흐르더니, 이윽고 그 샘물이 반원형을 이루면서 오색이 찬란

한 무지개로 화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작은 무지개가 곡식마다 둘러 있고, 또 큰 무지개가 밭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머리 위에는 역시 앞선 역사의 초창기 때처럼 빗방울 같은 것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78년 봄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온몸이 무척 홀가분한 느낌이 들면서 앞이 환히 밝아 오더니, 주의 종의 형상이 성화에서 보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그지없이 인자한 웃음을 띠고 있어, 나는 영겁결에 “주여,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 꿈에 하얀 큰 성전이 보이는데, 지붕은 둥글고 성전 안은 무척 밝았습니다. 성도들이 앉는 자리는 아래층과 위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서로 마주보게끔 되었는데, 그 자리는 앉은 성도의 몸에 꼭 맞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빛나는 흰옷을 입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힘껏 뛰노는데, 그 동작이 굉장히 빠르고 몸은 무게가 전혀 없는 것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서 주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한결같이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에 또 꿈을 꾸었더니, 아주 폭이 넓은 검붉은 옷을 몸에 휘감은 음녀같이 매우 고약하게 생긴 자가 나타나 정신 없이 춤을 추는데, 그녀에게서 독한 세력이 뿜어 나와 주위에 있던 자들은 술에 취한 듯이 모조리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정도 있고 여자도 있었으며, 또 우리 에덴성회의 식구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단에서 굶은 호스를 통해 생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 그 쓰러진 자들에게 흘러넘치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던 음녀와 같은 여자에게도 생수를 강하게 뿌렸더니 처음에는 기승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건디다 못해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에덴성회의 생수는 앞선 역사의 생수보다 몇 배나 강하다는 것은 시체가 쉽사리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역사에서는 시체를 생수로 씻고 성도들이 몇 시간씩 힘껏 찬송을 불러야 나중에 아름답게 변화되었으며, 그나마 외부의 사람들이 만지면 금세 다시 굳어 버렸으나, 우리 역사의 생수는 시체에 바르기만 하면 곧 시신이 피어나고, 외부 사람이 만져도 다시 굳어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김옥선 권사님 자당께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시체가 어찌나 노골노골하게 피어났는지, 일으켜 앉히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산체험을 통하여 앞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담당하고, 나중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를 이어 열매를 거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이긴자님께서 축복해 주신 생수로 시신을 씻기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콧등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전 역사보다 10배나 강한 생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제단 식구들이 아름답게 변

하여 간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눈도 닦고 아픈 부위에도 바르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눈 안찰로 원죄, 유전죄, 자범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그 귀한 영의 말씀을 항상 전해 주시며, 세마포 입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니, 그 영원하고 영광이 찬란한 우리 주님 세계에 갈 생각을 하면,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괴로움이 있다 한들 그 무엇을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그저 우리들은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을 다할 뿐입니다.

또 얼마 후 꿈을 꾸는데, 어마어마한 해일이 일어나 온 세상을 뒤덮고, 그 파고가 하늘에 닿아, 세상이 보이지 않았습다. 그런데 어떤 거룩한 분이 공중에 우뚝 서서 오른손을 높이 드니, 그 엄청난 해일이 삼시간에 잔잔해졌습니다. 또 한 손을 높이 드니,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두 손을 높이 드니, 아주 따뜻한 봄 날씨가 되어, 온 세상이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되고, 그 향기가 천하에 진동하였습니다. ‘와! 너무너무 기막힌 현상이구나!’ 하다 깨어났습니다.

참으로 앞선 역사가 모으는 역사라면, 우리 역사는 열매를 맺는, 알곡을 만드는 역사임을 더더욱 깨달으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슥14:7\)](#) 어두워지는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역사를 보고 사는 우리들이 그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Chapter 11.

원로성회장 박상석



박상석: 1936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박태선 장로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전도관에 몸담았다. 전도사로 활동하다 전도관에서 나온 후 휴직 중인 이영수 전도사를 만났고, 1975년에 에덴성회에 나와 목회를 하였다. 2005년에 은퇴하였다.

출처: 간증담 1권(1979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서울 만리동 성결교회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여 7, 8명씩 데리고 다니던 일이 어제 같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중학교 2학년이던 나에게 부모님께서 급히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독촉하시므로, 우리 3남매는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대로 두고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선 새벽

녘에 한강 다리가 끊겨, 우리들은 이태원 서빙고 강나루에서 겨우 배를 잡아타고 한강을 건너, 하루 종일 100리 길을 걸어서 고향인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수화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4킬로미터나 떨어진 장전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에 서울 집에 돌아오니,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가까운 용산 감리교회에 나가는 한편, 부흥회마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용산 한강로에 있는 군목교회에서 박태선 장로님이 부흥집회를 한다기에 친구와 함께 저녁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들어차서 터질 지경이었으며, 저마다 은혜를 받고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나는 ‘뭐 이런 데가 있나?’ 하고 이상하고 신기한 생각이 나면서, 주일학교 때에 선생님들로부터 예수님께서서 많은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열여덟 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한창때라, 나는 권투를 비롯해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으며, 교만할 대로 교만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 나는 한동안 사람들 틈에 끼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렸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밖에 서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나가려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들어오려는 사람은 500명도 넘어 교회는 큰 혼잡

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또 남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교회에 주저앉았는데, 그 후 간증과 찬송으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서 밤을 꼬박 새고 말았습니다. 찬송을 부를 적마다 백합화 같은 향취가 강하게 풍겨와 기분이 좋았으나, 나는 그것이 은혜인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윽고 새벽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섯 시에 박태선 장로님께서 단에 서서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192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를 부르시고, 이제부터 병을 고치겠다고 하시며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뜻밖에 이 안수를 받는 순간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대한 고마움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믿노라고 했으나, 주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온 것을 깨닫게 되자 부끄럽기 한이 없었으며, 동시에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이와 때를 같이하여, 내가 그때까지 지은 온갖 죄가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머릿속을 계속 스쳐 갔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면서 통회했습니다. 나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었으나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도의 문이 열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그토록 쓰라린 고난을 받으셨으

니, 이 못난 죄인도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이 몸을 다 묶어 바치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후 한강 모래사장에서 천막을 치고 부흥집회를 할 때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나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병어리가 말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는 등, 신유의 은사가 베풀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으며, 마치 겨를 태우는 것 같은 죄 타는 고약한 냄새가 3일 동안이나 계속되더니, 이번에는 이런 고약한 냄새는 싹 가시고 한 주일이나 줄곧 백합화와 같은 향취가 풍겨와 그 기쁨은 무어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여 사흘이 되던 날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았다는 사람, 빛을 보았다는 사람,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또는 단상에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 등,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저마다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지만, 나는 그런 은총을 받지 못했으므로 주님께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도 보여주옵소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저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버리시렵니까? 저도 도마와 마찬가지로 보고야 믿겠나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윽고 장로님께서 단상에서 눈을 뜨신 채 입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막 단상에 하늘로부터 커다란 두 개의 불덩이가 내려와 천막 안을 환히 비췄습니다. 이것은 천막에 모인 4만 여 명의 군중이 다 목격한 사실입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정신없이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들고 그 불을 향해 단상 앞에까지 달려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군중이 일제히 손을 들고 일어나 앞으로 와 몰려갔으며, 장내는 “주여!” 소리가 메아리치고 온통 감격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그 성령의 불이 눈에 선하며, 하도 신기하여 일기장에 그 두 성령의 형태를 그려 놓았는데, 그 불이 무엇인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웬 일인지, 길을 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도 눈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길옆에 주저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한 구절을 읽으면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수없이 머리에 떠올라 뜻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침부터 성경을 정신없이 읽다 보면 어느 새 저녁때가 되곤 했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집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열중하다 보니 점심도 으레 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나는 원효로 구 제단에 나가 주일학교 반사 일을 보면서, 주의 종의 장남 박동명을 가르쳤는데, 어렸을 때부터 쾌활하고 짓궂은 개구쟁이였습니다. 그 후 원효로 4가에 이만제단이 세워지고 찬양대에 있다가, 수원전도관을 개척하고 주의 종을 모시고 한 주일 동안 부흥집회를 했는데, 그때 향취와 이슬과 신유의 은사 등,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특히 잊히지 않는 것은 사진에 나타

난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만제단에서 사진을 찍어 현상해 보았더니, 사람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뜻밖에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성령의 은혜가 빛으로 쏟아지는 광경이 나타나 가짜니, 진짜니 하고 사람들 사이에 많은 물의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침 수원전도관에 나오기 시작한 이원희라는 카메라맨에게 필름 두 통을 사주고 집회 장면을 낱낱이 찍게 한 후, 이 씨와 함께 필름을 가지고 현상소에 가서 주인에게 인화하여 달라고 맡기고, 혹시 사진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니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에 사진을 찾으러 갔더니 주인이 놀라면서, 사진이 이상하게 찍혀 나왔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진에 인화되어 나온 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제단에 앉아 있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슬이 안개같이 뿌얏게 내리는 장면, 불기둥이 가로세로 서 있는 장면 등, 모두가 은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후 카메라맨 이원희 씨는 이 역사를 인정하고 서울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역자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의 종이 맹물에 입김을 부어 넣어서 된 생수를 미친 사람에게 보이면 피라고 말하면서 절대 마시지 않으려 했으며, 때로는 성한 사람의 눈에도 병에 든 생수가 빨간 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생수에는 주의 보혈

의 권능이 담겨 굳어 버린 시체도 아름답게 변하고, 또 병도 낫는 이적을 보였는데,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21:6-7)는 말씀이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생수에 주의 보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했습니다.

한번은 내가 밥을 짓기 위해 솥에 쌀을 안치고 생수를 부은 다음, 밥이 다 되어 솥을 열어 보았더니, 솥 한가운데 계란만 한 빨간 핏덩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접시에 그 핏덩이를 흠어지지 않게 잘 떠서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것이 무슨 피인지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치안국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권세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성령의 증거가 분명하였습니다.

이윽고 나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 고향에서 농장을 경영하다가 교역자로 나가게 되어, 서울 수유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군대생활이 가져온 신앙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주님께 공로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지방의 벽지에 자원하여 나가, 화성군 남양면 소재지에 지관을 개척하고, 교역생활 10여 년을 지방에서 연단을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맨주먹으로 식구들과 함께 천안 제단을 지어 놓고 고등공민학교를 세워 경영한 일과 송탄전도관에 부임하여 우물을 파

던 때의 일입니다. 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더 60척이나 되는 깊은 우물 속에 떨어지자 나는 얼굴에 “주님!”을 부르짖으며 맨바닥에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차고 있던 손목시계만 박살이 났을 뿐 몸에는 다친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도와 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차츰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형제들의 사랑이 식어 가더니, 서울에 7인 위원회가 조직되어 기혼자와 미혼자 교역자를 차별하고 그들의 행패가 심해지자,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활동하려는 생각에서 단을 내놓고, 여권 수속을 밟았습니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의 모 학교에 미리 등록 절차를 마치고, 불원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휴직 중에 있는 지금의 주의 종(이영수 총회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사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라, 다방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내가 미국에 가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그쪽에 가서 초빙할 터이니 나를 뒤따라오라고 자랑스럽게 으스대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는 할 일이 따로 있으니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실로 등골이 싸늘할 지경입니다.

그 후에 나는 주의 종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루는 지금의 김해성 전도사님과 셋이 영천 카네기 다방에서 이야기 끝에, 주의 종께서 내가 세상에 물들어 술을 한두 번 마신

것을 충고하면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술만은 제발 입에 대지 말라고 당부하고, 박 장로님의 치리에 대해 그 장단점과 신앙촌에서 되어 가고 있는 일들에 관해 소상히 설명하신 다음, 정색을 하더니, “앞으로 내가 큰일을 하게 될 테니, 그때에는 함께 손잡고 일하자.”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큰일’이 무엇인지도 미처 모르고, 의사가 통하는 사이라 거침없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선뜻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주의 종은 가시고 나와 김해성 씨 둘이 다방에 남아서 “이 전도사가 말하는 큰일이란 대체 무엇일까?” 하고 궁금히 여기다가, “큰일이란 성경에 기록된 감람나무의 사명밖에 더 있나? 그렇다면 자기가 한 감람나무가 된단 말이 아닌가?” 하고 김해성 씨에게 말했더니 “글쎄.” 하면서 어물어물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도 한동안 은혜가 강하게 계속될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의 하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엉뚱한 생각에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린 적도 있었지만, 감람나무란 물론 자기가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후에 시간이 있으면 간혹 주의 종의 집에 가서 함께 자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기도 했으나,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종의 성격이 솔직 담백하여 모든 것을 흥허물 없이 곧잘 털어놓는 분이기에, 나이는 6세나 아래였으나 존경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행도 가정 형편으로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나는 가족들과 입에 풀칠을 하기에 바빠, 분주히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믿음의 형제로부터, “청량리에 이영수 씨가 주님의 지시를 받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청량리 제단에 나가 예배에 참석하고, 큰일을 하시겠다던 주의 종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벌여 놓은 일이 엉망으로 뒤틀려 가는 바람에 이것을 수습하다 보니 나는 예배에도 빠지게 되어, 시간을 내어 가끔 제단에 가서 기도만 하고 오던 중, 어느 날 가보니 이사하고 없었습니다.

그 후에 동대문을 지나가다가 제단 간판을 보고 다시 나오기 시작했으며, 가사를 대충 정리하고 제단에 부지런히 나오다가 전도로 발령을 받고 춘천에 부임했습니다. 주의 종을 모시고 첫 집회를 마친 후, 주의 종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 “박 전도사, 어때 7년 전 내 말이 맞지? 날 좀 잘 도와줘.” 하시기에, “네, 힘껏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감개가 무량하여 대답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만 살다 단을 내놓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마치 우리 안에 갇혀서 자라던 소가 고삐를 풀고 넓은 들을 바라보는 심경이라고나 할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무수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해드린 죄책감에서, 마음은 주님께 가 있었으나 행동으로는 되지 않았었습니다.

춘천 제단에 부임하니 성도는 불과 5,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

다. 나는 부지런히 심방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차츰 기운을 내더니 6개월 후에는 교세가 열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그 후 마포지회를 거쳐 영등포지회에 시무하는 동안에 나는 새 역사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안찰을 받을 때 몹시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메스꺼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번은 주의 종이 나에게 안찰을 하고 배를 가볍게 한 번 쳐주시자 배가 뺨 뚫리는 것 같더니 전신이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하나님의 역사에서 단을 지킬 때에는 줄곧 연결되던 은혜가 세상에 젖어 살 때에도 한동안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아주 끊기더니, 에덴성회에 와서는 다시 연결을 받아 새로운 소망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이 땅에 베푸신 큰 은총에 감사하게 되고, 복잡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어떤 일에도 동요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로서는 엄청난 마음의 변화입니다.

앞선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토록 은혜의 창과 속에 젖어 있으면서도 이런 힘과 용기를 갖지 못하고, 마음은 언제나 무엇에 쫓기는 듯 두려움이 항상 따랐습니다. 즉 악의 세력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피해 왔으며, 죄를 지을까봐 걱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의 세력과 부딪쳐 까부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하나

님의 역사에서는 소극적인 신앙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나중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은혜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역사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면 관계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Chapter 12.

권사 김옥경



김옥경: 1939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1968년부터 전도관을 다녔다. 1975년에 에덴성회로 전향하였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나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안이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강릉 산골로 출가하고 보니, 교회가 없어서 2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근되어 강릉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에 구경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가고 싶던 참이라 나는 따라나섰습니다. 그곳이 바로 강릉전도관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의 신도가 모여 앉아 관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를 반겨 주었

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마이크를 잡고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나더러 아무 찬송이나 불러 보라고 하여 나는 253장(‘멀리멀리 갔더니’)을 불렀습니다.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창피해서 혼이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여 전도관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곳에 나오면 시험이 많을 거라고 하였으나, 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안 되어 남편이 전도관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딸아이는 끓는 물에 다리 전체를 데어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문득 들은 얘기가 생각나, 전도관에서 나오는 캐러멜을 데인 데 바르고, 껌질을 붙인 다음, 붕대로 감았습니다. 아파서 펄펄 뛰던 딸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근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후에 보니 상처가 다 아물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여름에 나는 축복을 받으러 서울에 왔습니다. 신도들은 난민 수용소에 온 것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향수 냄새 같은 것이 코를 찔렀습니다. 복중에 사람들이 우글거려 땀내가 나야 할 텐데, 웬 향수 냄새일까 하며 나는 코를 벌름거리고, 혹시 주위에 화장이라도 한 사람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렸으나 향수를 바를 만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향취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박 장로님이 계시는 곳 가까이 살아야겠다고 생각

하여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풍량을 겪었습니다. 나는 장사를 청산하고 다시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삼양동에 시무하던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증거하여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에덴성회가 보았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단상에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섰는데,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이 무슨 감람나무일까?” 박 장로님과 비교할 때 어느 모로도 수공이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성경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담 비슷하게 예배를 마쳐, 나는 아무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나는 전도관에 계속 나갔습니다.

하루는 꿈에, 어두컴컴한 2중앙에서 박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이크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앞에서부터 성도들이 차례차례 벋단이 넘어지듯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내 옆까지 왔습니다. 내 옆의 우리 전도관 회장님이 쓰러지려고 하여 내가 얼른 붙들고 있을 때, 전기가 켜지며 단상 휘장이 흔들리더니, 호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꿈을 깨자, 기분이 이상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나태해진 탓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김원희 권사님이 전도하러 저녁마다 끈덕지게 나를 찾아 왔습니다. 나는 그 정성 때문에 마지못해 하루만 나가겠다고 말했

습니다. 교회에 나온 날, 제단에 앉아서 나는 비판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이 너무 생동적이고 마음에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모르게 말씀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박동명 사건이 터졌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일에는 동명이에 대한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전도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방문을 열고 나서서 층계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 2층에서 아래층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허리에 흠이 나고, 아파서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겨우 부축을 받아 방에 와서 누웠습니다. 아침에 이것을 보고 간 김 권사님은 오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생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생수를 따라 주며 마시라고 하기에, 내 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에는 총회장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나는 제대로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총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전도관에서 여러 가지로 실망하여 전에 나가던 장로교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총회장님은 “장로교회는 못 나가실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안찰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이를 시켜서 토마토를 사오게 하여 커피와 토마토를 대접했습니다. 자리에 누운 채, 나는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너무 푸대접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정말 둘째 감람나무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김 권사님이 또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허리는 거뜰히 나왔습니다. 나는 거부감이 일지 않아, 순순히 따라나섰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단상을 치시며 찬송을 인도하시는데, 손바닥이 마치 머큐로크롬을 칠한 것처럼 빨갱게 보였습니다. 이상하여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더니 단상 전체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했습니다. 은혜가 내리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되자, 마치 테이프가 풀리듯이 막힘없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찌나 쪽쪽 마음에 와 닿는지, 나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시에 직업상 걷는 일이 많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설교 말씀을 상기하다 보면, 어디서 날아오는지 향취가 내 코에 확 풍겨 왔습니다.

나는 그 후부터 김 권사님과 함께 삼양동 식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2개월쯤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치 등에 파스를 바른 것처럼 시원해지면서, 짜 하고 배로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생수가 연결된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에덴성회 나오면서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신다고 나 몰래 부적을 베개에 붙였습니다. 회사에 나가면 괜찮은데 집에서 잠을 자면 늘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그러나 했는데, 어느 날은 새벽예배에 나가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상은 안 보이는데 뭔가 머리맡에 날아다니며 쥐처럼 짹짹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다가, 시어머니께서 부적을 붙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는데 찾지 못했는데 아들(문근)이 할머니가 베개에 두 개를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져가서 불태웠는데, 그 이후로 머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은혜에 빚진 죄인입니다. 두 번씩이나 죽을 목숨을 살려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몸을 다 바쳐 충성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한 번은 각혈로, 또 한 번은 교통사고로, 누구도 나를 보고 살지 못할 것으로 알던 끔찍한 시련을 이기고 살아난 후로 더욱 무병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루는 총회장님께서 구역예배에 오셔서 저에게 여러 사람 앞에서, “집사님은 죽을 사람인데, 살았어. 무척 기도 많이 했지.” 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목숨이 살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새기며, 죄송스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죽을 목숨이 살아났으니, 나는 남달리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는 모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합니다.

Chapter 13.

권사 김몽희



김몽희: 1924년생. 결혼 후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녔다. 수원 감리교회에서 부흥강사 최 목사로부터 감람나무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데,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전도관을 다니게 되었다. 꿈에 이영수 총회장을 본 후 사위의 전도로 1975년 에덴성회로 전향하였다.

출처: 간증담 1권(1979년)

나는 본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으나, 다행히 믿는 남편에게 출가하여, 23세 때 남편을 따라 수원 변두리의 조그마한 감리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강원도 인제군 해안면(현재 양구군)에 이사하여 그곳 장로교회에 5년쯤 다니다가, 감리교회를 따로 짓고 이 교회에 나가는데,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박태선이라는 불의 사자가 나타나 은혜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 그분에게서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민학교 2학년에 다니는 딸아이가 갑자기 경기가 들어 까무러치는 바람에 의사를 불러왔으나 조금도 낫지 않고, 아이는 금방 숨이 넘어갈듯 하므로, 남편은 다급한 나머지 이웃 사람들의 말을 따라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명색이나마 10여 년을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겨 왔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굿을 한다고 병이 나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설사 마귀의 힘을 빌려 나온들 무슨 대수냐는 생각도 들었으며, 무엇보다도 교인들 보기가 부끄러워 굿하는 것만은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우선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 놓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우겼으나, 내가 하도 강경히 가로막는 바람에 나중에는, 정 그렇다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아이를 살리기만 하라고 나한테 아주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나 난들 뽀족한 수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몹시 당황해 하던 차에, 누가 전도관에서 병을 고친다는 말을 하기에, 전도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 병을 고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전도관 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는 사람의 영을 고치는 곳이지, 육을 고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관에 나가는 홍장옥 권사님에게 통사정을 했더니, 이 권

사님이 생수를 한 병 갖고 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마친 다음, 까무러친 아이의 입을 벌리고 생수를 몇 모금 흘려 놓자 아이가 갑자기 뜨겁다고 펄펄 뛰더니, 얼마 후에 병이 깨끗이 물러갔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퍼져 환자가 있는 집마다 너도나도 하고 흥권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보고 생수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집은 물론이고, 이웃의 12가구에서 전도관으로 전향하여 석달 후에는 제단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가 갑자기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끔 헛소리를 하므로, 이번에는 떳떳이 전도사님과 흥장옥 권사님, 그밖에 여러 교인들을 불러 예배를 보고 생수를 먹이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왜 나에게 피를 먹이느냐고 펄쩍 뛰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권사님들 넷이서 며느리의 사지를 붙잡고 억지로 생수를 먹였더니, 뜨거워 못 먹겠다고 내뿔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나서, 전도사님이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온 마귀냐?”

“나는 전라도 백화산에서 온 소령 마귀야.” 하고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며느리가 악신에게 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두어 차례 예배를 보고 생수를 마시고 나서 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로 이사하여 그곳 전도관에 나갔는데, 남편은 위장병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몇 번 예배를 보고 생수를 계속 마시고 병이 나아, 식사도 전과 같이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도사님과 식구들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욕설을 퍼붓고 전도관에 나가지 않게 되자, 얼마 후에 병이 재발하여 2년 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때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생수를 마시라고 했더니 “그동안 전도사와 식구들의 욕을 그렇게 해온 내가 이제 회개한다고 천당 가겠소? 자식들이나 예수 잘 믿기를 바라오.” 하고 생수도 마시지 않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는 평소에 남편이 대적해 온 전도사님을 10리 밖으로 찾아가서 장례를 치러 달라고 하기가 송구스러워, 뺨뺨이 굳은 남편의 시체에 수의를 입히고 이웃 사람들끼리 적당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나는 며느리를 시켜 생수 한 병을 들려, 산소에 붓고 오게 했습니다.

그 후에 며느리가 점심을 먹다 말고 느닷없이, “아버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가더니, 광기(狂氣)가 도져 온몸이 굳어 버리고, 시아버지의 말을 대신 나에게 횡설수설 지껄여 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운 자리에 피가 묻어 세상에 나가 밥을 얻어먹지 못하게 생겼다.” 느니, “너는 자식이 많으니 며느리를 데려가야겠다.” 느니, 하고 아무튼 부지런히 지껄여 대었습니다. 나는 죽은 남편의 귀신에 씌었다는 것을 알고,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보고 생수를 먹이려고 하면, “얘야, 마시지 마. 네가 이 피를 마시면 내가 너를 데려가지 못한다.” 하고, 며느리는 또다시 시아버지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생수를 먹이면, 뺨뺨이 굳

었던 손발이 노글노글하게 변해 정신을 좀 차리다가도 또 횡설수설하기에, 몸을 여기저기 만져 보았더니 몸은 철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수로 씻어 주면 금세 노글노글 피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은 예배 보는 동안뿐이고, 전도사님이 돌아가면 또다시 미치기 시작하여 손발과 전신이 굳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굳어 버린 손에 생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앗 뜨거!” 하고 소리 지르면서 부드럽게 변하고, 뻣뻣한 다리에 생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며 또 “앗 뜨거!” 하고는 노글노글 변하곤 했습니다. 나는 계속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날마다 예배를 보고 생수를 먹이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귀신을 내쫓고 며느리를 고쳐 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미친 며느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신기한 체험을 했는데, 여기 대해 참고로 몇 가지만 더 적으려고 합니다.

하루는 며느리의 병이 악화되어 사지는 굳고 혀가 목구멍에 빠져 들어가 목이 불룩 솟아 나오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느다란 입속말로 나에게 “석 달 동안이나 날 살리려고 애썼으나, 이제 시아버지가 와서 제 발을 철사로 감고 끌고 가요.” 하더니 자기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 놓고 남편에게 “나는 가요.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으나, 나는 허겁지겁 10리 밖의 전도관에 가서 밤늦게 전도사님을 모시고 집에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를 보시고 손가락을 며느리의 입속에 쑥 들이밀자, 며느리는 “아이 뜨거!” 하

고 기겁을 하더니, 혀가 밖으로 불쑥 나오고 정신을 차려, 마귀가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전도사님은 생수 한 병 외에 맹물 한 병을 갖고 와서, 예배를 보고 생수를 며느리에게 주었는데, 뜨거워 먹지 못하겠다고 하기에 맹물을 따라 줬더니 두말 하지 않고 넘죽넘죽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전도사님의 볼펜이나 손수건 따위를 보여주었더니 피라고 하면서 감히 만질 엄두도 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소지품은 아무렇지 않게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부터 나는 감람나무의 굵은 가지의 역할을 하는 전도사님을 더욱 두렵게 받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전도사님은 중앙의 반사님 일곱 명을 데리고 집에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억지로 생수를 먹었더니, 며느리는 눈을 감은 채, “날개 달린 아홉 천사가 와서 나한테 피를 먹었어. 손발이 타서 견딜 수 없으니 날 살려라.” 하고 악을 쓰고는 “영이야! 순이야!” 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것들을 쫓아내라!”고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어느 천사가 제일 크냐?” 하고 물었더니,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전도사님을 가리키기에, “다음은 누가 크냐?”고 물으니 어떤 반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슬그머니 주의 종의 사진을 얼굴 위에 올려놓았더니 “아이고 핏덩이가 얼굴을 덮친다!”고 고함을 냅다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의 사진을 올려놓았더니, “아이고 사람 살려, 핏덩이가 두 겹으로 얼굴을 덮친다!”고 고함을 치자, 전도사님은 짓궂게 중앙 전

도관에서 예배를 볼 때,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리는 사진을 더 얹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나 죽는다! 핏덩이가 세 겹으로 덮친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에도 전도사님이 예배 보러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또다시 시아버지의 말을 대변하여 “내 집에 물이 고이고 돌이 가로막아 살 수 없으니 옮겨 다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며칠 후에 이장을 하기 위해 무덤을 팠더니, 과연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옆에 바윗덩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분은 100여 명이 됨)

그 후 전도사님이 또 오셔서 예배를 마치고 생수를 먹였더니, 나에게 다시 시아버지의 말을 대변하여 “내가 이제 할 수 없이 나간 다마는, 그 대신 네 자식을 3년 동안 괴롭힐 테다!” 하고 자못 불멘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예사로 들어 넘겼는데, 그 후부터 며느리는 건강을 되찾았으나, 며칠이 안 되어 큰 아들은 미쳐 버리고, 둘째 아들은 기침을 시작하더니 각혈을 하며 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자리에 눕고, 이어서 셋째 아들은 결핵성 관절염에 걸려 다리가 통통 붓고, 쭈셔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신앙촌 물건 장사를 하여 열세 식구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만 할 뿐, 약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판국이라, 두 아들은 날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중병을 앓다가 꼬치꼬치 말라만 가더니, 3년쯤 지나자 오늘날일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은 아주 잃어버린 자식으로 단정하였고, 아이들도

이미 살기를 단념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신앙촌 물건 장사를 떠나면서 특히 둘째 아들 보고, “오늘 엄마가 장사를 가니, 너 차라리 깨끗이 죽거나 해라!” 하고 내뱉듯이 말하면, 아들은 “네, 그럴게요.” 하고 천연스럽게 대답하게끔 되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실로 이런 말을 예사로 주고받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으니, 아마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여전히 새벽밥을 몇 숟갈 뜨고 장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엄마!” 하고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왜 그래?” 나는 귀찮은 듯이 대꾸하고 대꼬챙이같이 메마르고 눈자위가 움푹 들어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제 병 나을 거야!” 아들은 오래간만에 빙긋이 웃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뭐야?” 하고 내가 투명스럽게 되물었더니, “어젯밤 꿈에 벽에 양귀비꽃이 두 개 보이더니, 박 장로님이 나타나, 네 병은 이제 낫게 될 거라고 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 죽어가는 아이의 말이라 귀 밖으로 흘려버렸는데, 그 후부터 아이는 열도 내리고 기침도 뜸해지면서 입맛이 당겨 밥을 달게 먹더니, 차츰 건강을 회복하여 달포가 지나자 몰라보게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셋째 아이가 하루는 나보고 “엄마, 나 이제 병 나을 거야. 어젯밤 꿈에 박태선 장로님이 나타나 아픈 다리를 만져 주시면서

병이 나올 거라고 했어!” 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에 귀가 번쩍 열려, 이번엔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에 보건소에서 의사가 와서 주사 한 대 놓고 돌아가면서, 기름진 음식이나 먹이라고 말하고 갔는데, 며칠이 못 되어 무릎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거뜩히 나아 버렸습니다. 사흘 후에 보건소에서 의사가 와서 아이를 보고 신기하여 “거참 이상한 걸!” 하고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큰 아들도 정신이상이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버린 자식으로 알았던 세 아들을 다시 슬하에 거느리게 되어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사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물동이를 이고 눈부시게 빛나는 길을 마냥 가는데, 앞에서 불그레한 도포를 걸친 사나운 자가 나를 해치려고 하자 옆에서 하얀 옷을 입은 백발노인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니, 그 자는 폭삭 엎드려 납작해지고, 어디선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하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서 “너는 믿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깊이 뿌리가 박혀야 한다. 그리고 네 사위(김창환 전도사)는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백발노인이 내 배를 만지자 꺼끌꺼끌해서 보니 뒤에 굽힌 십자가의 흔적이 별정계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수시로 강한 향취를 맡고, 온몸에 마치 도랑물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한가 하면, 입안에서 달콤한 기운이 배 속까지 퍼지기도 하고, 온몸이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그 열기

가 몸에 퍼지는 소리가 가랑잎 버석거리듯 소리를 내기를 몇 달씩 계속되었습니다. 또 단상에 서신 주의 종(박태선 장로)의 머리에는 크고 작은 면사포가 얹혀 있고, 그 뒤의 휘장에는 흰 구름 떼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광경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이상한 체험을 하도 자주 하므로, 나는 그것이 성령의 증거요, 귀한 은혜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혼자서 다만 ‘신기하구나!’ 하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주의 종이 상처를 하고 재취를 하는 등 물의가 일어나면서 이런 은혜가 차츰 뜸해지고 믿음이 식어지더니, 어느 날 꿈에 전도관에 갔는데, 강대상 뒷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교인들이 모여와 이 무너진 벽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나서서 시멘트를 이겨 허물어진 벽을 다시 쌓아 올렸더니, 웬 여자가 나타나 곧 주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과연 흰 바지저고리 차림을 한 청년이 나타나, 나에게 “수리는 내가 할 터이니 조금도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 꿈에 전도관으로 예배 보러 가는데, 길이 가시 철망으로 막혀 버리고, 발주인이 나타나 우리 발을 밟지 말고 저리로 가라고 탄 길을 가리키기에, 나는 예배 보러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탄식을 하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사위가 와서, 새로운 주의 종이 나타나 앞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아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

었습니다. 나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사위가 여러 차례 찾아와서 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종이 안찰도 하고 생수 축복도 하며 말씀이 신령하다고 하기에, 나는 내가 맨 처음 받을 들여놓은 수원 음덕면 장정리 감리교회 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칠순으로, 남한 일대를 누비는 부흥강사였는데, 이분이 하루는 “우리나라에 곧 성경에 기록된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두 감람나무가 나타나 큰 권능을 행하고, 생수와 이슬과 향취의 은혜를 베풀고, 새로운 말씀이 터져 나오며, 신앙촌을 건설하게 되고, 14만 4천의 의로운 수가 차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감람나무를 감나무, 생수를 생추로 착각할 정도로 맹물단지였으나, 사위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목사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위의 말대접도 할 겸, 하루는 별러서 동대문에 덴성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단에 선 주의 종은 바로 내가 꿈에 본, 주인이라는 흰 한복 차림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무척 놀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찬송 인도나 설교하는 모습이 앞선 주의 종과 꼭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머리 위에 빛나는 영광이 돌리고, 두 손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이 녹아지고 다음 날 예배가 기다려졌으며, 단상에 선 주의 종의 어깨까지 이슬이 안개처럼 자욱이 내리고, 오래 끓였던 달고 시원한 생수의 은혜 연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처럼 많은 은혜를 받고 20년 동안이나 따르던 앞선 역사에서 차
마 발을 끊을 수 없어, 두 달 반 동안이나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래도 한쪽은 은혜가 메마르고 냉랭한데, 한쪽
은 새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생기가 넘치므로, 드디어 마음을
결정하고 에덴성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Chapter 14.

권사 한광자



한광자: 1957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 1975년 전도를 받고 에덴성회에 적을 두었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저는 1975년도에 처음으로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앞선 역사에는 국민학교 5학년 때에 삼양 제2전도관에 약 1년 동안 나간 것이 고작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6년 동안은 순복음교회와 장로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된 동기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장동례, 이은희 씨의 3개월 동안에 걸친 전도를 받는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뵈게 된 것은 1975년 9월, 도봉성

회의 배규정 장로님 댁에서였습니다. 장동례 씨와 이은희 씨가 배 장로님 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예배를 본다고 하기에, 저는 이들을 따라 배 장로님 댁으로 갔습니다.

초가을 따스한 햇살이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햇살을 피해 큰 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이 마치 뿌연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서 마치 불꽃이 튀는 것 같은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구나. 뭔가 기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에덴성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의심이 많아 따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로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을 큰 효성의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장손으로, 이것을 하나의 생활신조로 삼고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이 역사를 깨닫고 참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건축업을 경영해 오시면서, 여러 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빛에 몰려 돈에 쫓기는 아버지

를 볼 때 안쓰러운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로, 아무런 사회 경험도 없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갖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는 천대와 설움으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럴 때 저에게 힘이 된 것은 부모 형제나 친구들보다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그리면 상상치 못할 정도로 힘이 생겨, 절망과 낙심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찬송이 제 입을 통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이처럼 귀하고 복된 마지막 감람나무의 역사에 불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만입이 있을들 어찌 감사와 찬송을 다 드릴 수 있사오리까? 지금 저의 집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으며, 이 바람이 저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곳곳이 버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어느새 저의 설움과 주님의 큰 은혜가 하나가 되어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껴 울게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백합화 같은 향취가 확 풍겨 오고, 때로는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화끈거리면서 붕 뜨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또 때로는 목구멍에서 시원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의 마음은 뿔 듯이 기뻐, 어느 곳에 가나 기도와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의 내용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고, 어느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게

해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꼭 필요로 하시는 진실된 아름다운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가을, 청년 헌신예배 때의 일입니다. 그날 기도를 담당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하나님의 사람께서 단에 서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께서 함
께하여 주시사 기도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소서!” 기도를 마치자, 저는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상을 향해
걸어갈 때에는 이미 초조와 불안은 사라지고 저의 마음은 평온했
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께서 계신 곳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단상까지 빛이 연결되어 있고, 저의 기도가 그 빛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저의 몸은 마치 불덩어리처럼 화끈거려 정
신이 몽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께서 진실히
주를 의지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
히 작은 자의 기도에서부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근무 중에 저의 힘
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직장

에서는 기도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저는 언제나 화장실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날에도 저는 여전히 화장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몸이 하늘로 붕 뜨는 느낌이 들면서, 본 제단 맨 위층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실 때에 그 안타까운 울음 섞인 음성으로 간곡히 간구하시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람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호소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께서 주님 앞에 저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은 주의 은혜로 깨끗이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간증담을 써내려가면서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저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앞섭니다.

이처럼 직장에서까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주의 역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근무처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한 하나의 촛불이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Chapter 15.

원로성회장 김창식



김창식: 1937년생. 전주전도관에서 은혜를 받고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전도관을 떠나 기성 교회의 개척 교회를 돕다가 제2감람나무 역사를 알게 되어 1977년 에덴성회를 나왔다. 1979년부터 목회를 했으며, 2003년 퇴임하였다.

출처: 계간에덴 33호(2010년 1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나서 유아 시절을 보낸 후, 11세 때 전주로 이사하여 시내에 있는 전주 중앙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15세 때 6.25가 발발하여 아버님이 군에 입대하셨는데, 입대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아버님까지 돌아가시자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저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목판을 메고 장사를 하는 등, 어렸을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학교 다닐 형편이 못 돼서 장사만 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신세까지 되었습니다.

성장을 한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건달생활을 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저까지 5명이었는데 두 후배를 더하여 7명이 칠성클럽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온갖 말썽은 다부리고 다녔습니다. 강패들과도 어울리며 도내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건달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알고 지내던 유봉선 집사가 저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유봉선 집사가 “예수를 믿어야지, 주먹을 믿으면 큰일난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설득을 할 때마다 거절을 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매일 찾아오는 정성을 물리치기도 그렇고,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다는 얘기에, 그럼 나가서 아가씨나 사귀어 보려는 요량으로 친구 2명과 함께 전도관에 나갔습니다. 그때가 22세였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장공장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전주전도관을 나갔습니다. 역시나 전도관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찬송가도 모르는 우리는 그곳에 있는 여자들만 쳐다보았습니다. 예배

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마음에 드는 아가씨들에게 수작을 몇 번이나 걸어 보았으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함께온 친구들은 바로 전도관을 안 나왔습니다. 저도 그만 나갈까 하는 생각을 할 무렵, 감람나무께서 전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장로님 모습이나 한번 보자는 생각에 저는 전도관을 계속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전도관에서는 남녀가 좌우로 따로 앉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로 박 장로님이 걸어가시는데, 향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향취와 함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장로님이 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동안 귓등으로만 스쳐들던 찬송가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축농증이 있는 사람과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 놓고 ‘씩, 쉼’하고 기운을 부니, 코가 막힌 사람이 코가 뚫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말을 술술 했습니다. 동네에서 귀신 들린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박 장로님이 오셔서 쉼쉼하며 귀신을 쫓으니,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으로 확인하니,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부터 저는 건달생활과 친구들을 모두 정리하고 전도관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성격이라,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등,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관을 열심히 다니자,

어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어머니께 “전도관 다니면서 제가 남들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파출소에 불려간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덕분에 잘못된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왜 반대만 하십니까?”라며 간곡히 말씀드렸지만, 핍박은 더 심해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매진했고, 전주전도관 건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1959년에 전도사로 발령받아, 1963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태선 장로님이 전도사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자기들 가까운 사람은 좋은 곳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것을 보고 실망하여, 전도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28세 때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홍은동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따라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만,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정부 미군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아내를 만나 196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 한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에서 멀어지고, 박 장로님이 14만 4천이 되려면 배지를 사라고 헌금을 강요하여 실망하던 차에, 전도관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도 듣게 되어 전도관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신앙에 대한 목마름은 있어서 기성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개척 교회였는데, 목사가 저

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활동하던 그 열심을 조금 내었더니, 개척 교회라도 사람이 꽤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활동 덕분에 교회가 부흥되고 제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감동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가서 독립을 해서 감람나무라고 해야겠다.’ 라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2의 감람나무 역사를 만나지 못하고 그때 마음먹은 것을 행했다라면 헛고생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참 소름이 돋습니다. 이 역사를 만나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이긴자님과 주님께 미미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독립된 교회를 꿈꾸면서 청계천 시계 골목에서 일을 하던 즈음, 누군가가 “김창식 전도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저는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혹시 고향이 전주 아니십니까?” 하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제 고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박상석 성회장이었습니다. 전주전도관을 나온 지도 오래되었고, 전도관에 다닐 때도 박상석 성회장과는 안면만 알고 있는 정도였기에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서로 근황을 몇 마디 주고받고는, 박상석 성회장은 바로 제2의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박상석 성회장의 말을 받

아들여야 되나? 과연 정말 제2의 감람나무가 나타난 것인가?’ 고민하면서 저는 진실된 길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박상석 성회장에게 제2감람나무 얘기를 들은 후, 다음 주에 용두동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날짜를 기억합니다. 1977년 9월 4일에 처음 에덴성회를 나왔습니다. 예배를 보면서 이긴자님을 뵈는데, 제 눈에는 빛이 나는 얼굴하며 목소리가 박 장로님과 너무 흡사하여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차가운 물 같은 것이 몸이 얼얼할 정도로 폭포수처럼 머리 위로부터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느낌에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몸 안으로 쏟아졌던 물이 발끝까지 내려갔는데, 몸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다시 올라가며 감각이 서서히 머리까지 회복되는 것을 기도 중에 느꼈습니다. 정말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주님, 제가 오늘 제2의 감람나무라고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번째 감람나무입니까?”라는 기도를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김창식, 김창식!”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어 나가 보니, 집 근처에 홍복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홍복산에서부터 빛이 선명하게 짝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가 두 번째 감람나무니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마무리를 짓는 감람나무이니라. 내가 온 세상을 둘러 찾아보아도 지금의 감람나무 외에는 세울 사람이 없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순간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제단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 1979년 4월 16일, 원주로 전도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받았을 당시 이긴자님이 옥중에 갇히는 변이 발생하면서 원주 신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몇몇 여집사들이 모여서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들은 한 번 제단에 나오면 아침 11시에 오건, 오후 5시에 오건, 꼭 밤 11시나 돼야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생수를 잘 지키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당시는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통에 물을 받아 놓고 기다리면 이긴자님이 옥중에서 생수 축복을 하셨습니다. 지시를 받고 생수를 지키고 있는데 문제의 여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생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밤이 되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 않고 6시간 넘게 있었더니, 소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를 뜰 수는 없고 복부 통증이 심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배가 시원해지며 복부 통증이 싹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에게 간증도 했습니다. 여자들이 가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봤는데, 정말 많은 양의 소변이 나왔습니다.

이후로 부평, 대구, 청주, 덕소, 광주, 강릉, 강화 등을 전도사와 성회장으로 일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2003년도 말에 퇴임을

하고 원로성회장이 되었습니다.

원로성회장이 된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성전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2009년)에 작업 중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8일 동안을 의식 불명 상태로 있었습니다. 병원의 의사는 물론이고, 식구들까지도 가망이 없다며 장례식 준비를 하던 차에 깨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그냥 죽어도 고령이니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깨어났을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마비가 심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거동도 하고, 충분히 의사표시도 할 정도로 많이 나아졌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다 이긴자님과 주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18일 동안에 제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스름한 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는 목사님, 목사님, 하며 불렀습니다. 제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지고 발목과 발목 사이에는 쇠줄로 연결이 되어, 뛰어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보고도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장사를 하려면 불을 켜놓고 해야지, 불도 안 켜놓고 어두운 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까?” 하고 말하니까, 갑자기 장소가 바뀌면서 커다란 방으로 옮

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아까 함께 장사했던 사람 중 몇이 저를 때리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제가 맞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항을 하니, 그 사람들이 “이 놈은 우리가 안 되겠다. 대장한테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어느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조그만 녀석이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도 대들며 말을 안 듣자, 그가 저를 계속 노려보다가 “이 녀석을 어르신께 데려가야겠다.” 하며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문이 하나 있기에, 제가 그 문을 여니, 밝은 빛이 짙어오면서 우리 교회 건물 앞에서 우리 식구들도 장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식구 중 한 명이 “성회장님, 거기서 뭐하세요. 빨리 이곳으로 오세요.” 하는 안타까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 빨리 위로 올려 보내라는 대장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순간 문이 닫히고 저를 위로 올려 보냈습니다. 위로 올라가니, 쇠고랑이 풀어지면서, 빨나고 거무튀튀한, 키 큰 마귀 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끌고 가려고 해서, 저는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면서 반은 끌려가듯하며 어디론가 갔는데, 그곳에 부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느냐?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경배를 안 하느냐? 어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라. 경배만 하면 네가 편히 있을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이긴자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

옆에 있던 마귀들이 저를 막 때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던 저는, “이긴자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쉬익, 쉬익’ 하는 바람이 불더니, 마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긴자님이 저기서부터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부처를 보았더니 부처는 머리부터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긴자님이 저보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따라가다 보니, 이긴자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이긴자님을 찾으려고 막 뛰었습니다. 뛰어가는 길에 사방에서 검은 손 같은 것이 튀어나와서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뛰어가는데, 다시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어디를 도망가려 하느냐. 우리 세계에 왔으면 우리 세계의 법도를 따르라. 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 다른 대왕님한테 데리고 가야겠다. 너는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 하고는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 얼굴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서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아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처보다도 더 세 보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이긴자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쉬익, 쉬익’ 하는 바람소리가 나더니 이긴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긴자님이 입에서 기운을 내뿜으니 그도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이긴자님은 곧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이긴자님을 찾으며 막 뛰어다녔더니, 역시나 검은 손들이 저를 잡으려고 막 튀어나오고, 저는 그것을 피하며 이긴자님을 찾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Chapter 16.

권사 최은영



최은영: 1956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1977년에 에덴성회에 전도를 받아 나오게 되었다. 에덴스포츠타운이 건축되기 전에 보여주심을 받았다.

출처: 계간에덴 24호(2007년 10월)

나와 나의 가족은 전농감리교회에 다니는 평범한 기독교 가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1976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만남을 맞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던 전농감리교회가 멀다고 느끼면서, 주변에서 진실한 목회자를 찾았는데, 일반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가 다 감동적이지 않았고, 시원하게 들리지 않아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교회에 다

나는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랫집(김효녀 권사)에서 나는 찬송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아랫집에 가서, “아주머니, 어느 교회에 다니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학생, 왜 그러는데?”라고 하시면서 그 아주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다닐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 근방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시시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아주머니는 내 손을 잡으시며, “학생,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 이러시며 나를 붙드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가까이 있냐고 물어보니, 에덴성회라고 말씀해주시며, 가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나는 그 아주머니와 함께 에덴성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래 단상에서는 당시 선교원장님께서 찬송 인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저분이 목사님인가 생각하며 앉아 있는데, 준비 찬송이 끝난 후, 위 단상에 젊은 이긴자님이 서시고, 설교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대하는 분이었지만,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은혜로운 말씀이 거침없이 이긴자님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는 지금까지 출간된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를 받아들고 집에 와서는 빠른 속도로 읽었습니다. ‘에덴의 메아리’에서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아, 권사님에게 에덴성회에서 더 나온 책자가 없냐고 물어보니, ‘계시록 강해’가 있다고 하시며, 읽어 보라

고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읽고 듣고 나니, 이긴자님이 단상에 서시는 날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시 나를 인도하신 분에게, 이긴자님을 모시고 우리 집에 서도 심방예배를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에덴성회를 이단이라고들 말들이 많으니, 학생의 생각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굳어지면 말하라고 해서, 나는 내 생각을 굳히고 이긴자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에덴성회를 알게 된 지 6개월도 안 된 때였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이긴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동부성회 소속이던 나는 열성으로 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사업부장을 맡았던 나는, 작은 것이라도 정직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나는 1등을 하기로 다짐하고, 열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부성회를 1등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었으나, 나는 하나도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작으나마 진실하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덴성회에서 가장 어린나이에 부인연합회 회계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내 나이 28세였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옥중에 들어가시기 6개월 전부터 나는 이상한 것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기동 제단 2층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긴자님께서 감옥에 가시는 모습이 불현듯 보이곤 하였습

니다. 나는 그때, 이긴자님께서 감옥에 가서도 나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더욱더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마도 나를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옥중에 계실 때, 면회를 갔습니다. 이긴자님을 면회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너무나도 감정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출옥하시고 나서, 나는 이긴자님을 상담실에서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긴자님께서 감옥에 가시기 전에 이긴자님께서 감옥에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긴자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미리 마음의 다짐을 하도록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성회에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이 역사를 의심해 보지 않았고, 불신을 가져 보지 않은 내게 힘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꿈속에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는 하도 신기해서, 나와 가깝게 지내는 이순열 권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 꿈속에서 본 것은 몇 년 후에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에덴스포츠타운 체육관이었습니다. (스포츠타운은 1996년에 준공함) 이긴자님께서 스포츠타운을 건축하신다는 말씀도 없었을 시기였고, 스포츠타운 옆 에덴휴게소 건물이 다 지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휴게소는 1991년에 준공함) 꿈에 본 것이 장소만 다르지,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

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꿈속에서의 장소는 지금 에덴종합운동장 올라가는 입구 근방이었는데, 나중에 건축할 때, 장소만 다르지 똑같이 아치형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신기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꿈 내용은 아치형으로 된 체육관 같은 곳에 단상이 있는데, 그 단상 주변에는 교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이긴자님이 서 계셨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아치형으로 된 체육관 단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긴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는 이렇게 잘하고, 누구는 저렇게 잘한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손을 번쩍 들어서 이긴자님께 “어느 분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이긴자님께서 이상 중에 본 것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하늘에서 교인들 중 누군가에게도 꿈속에서 보여주셔서, 이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증거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동안 가슴에만 담아 두고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본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에, 나도 이것이 하늘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생각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합니다.

Chapter 17.

권사 이순여



이순여: 1919년-1982년.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강태온 목사의 예언을 듣고 감람나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전쟁 후 전도관에서 박태선 장로를 보고, 그의 얼굴이 강 목사의 책에서 본 얼굴임을 알게 되었다. 1974년에 전도를 받아 에덴성회에 나왔다.

출처: 간증담 1권(1979년)

나는 평안남도 용강 태생으로, 13세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이웃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강창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나와 같이 교회에나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소에 예수를 믿고 싶어 하시면서도, 큰할아버지 덕에 양자로 들어간 몸이라, 나중에 제사 받들기가 싫어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주

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을 꺼려하여 끝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것이 생각나, 아버님을 잡아간 귀신을 다 처치하고 나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강창실 할머니는 “그럼, 나하고 함께 너희네 사당과 신위를 불살라 버리자꾸나.” 하기에, 나는 “뭐, 그럴 것 없습니다. 그까짓 거 내가 혼자 해도 돼요.” 하고 큰 광속에 들어가 오랫동안 대대로 모신 조상의 신위를 모조리 꺼내어 뜰 안 한구석에서 불살라 버리고, 강 할머니를 따라 이웃에 있는 장로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다가 18세 때, 다행히 믿는 집안에 출가하여 시어머니와 함께 장로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정일형 전 국회의원의 자당께서도 이 교회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집은 진남포로 이사하여 그곳 감리교회에 다녔는데, 그 당시 이 교회에 시무하던 안석준 목사님이 영력이 강한 이성봉 목사님을 모셔다가 한 주일 부흥집회를 하는 동안에,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도 배고픈 줄 모르고 열심히 매달려 불의 성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못된 일들이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이 쪽 회상되어 나는 눈물로 통회자복하고, 한편 마음에 거리끼는 일들을 종이에 모조리 적어서 이성봉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강태온 목사라는 분이 상처를 하고, 세 아들 모두 장가를 들여 각각 따로 살게 한 후로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우리 집에도 모셔다가 성경 말씀을 들었는

데, 이분은 지금 생각하니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목사님은 당신께서 대봉산에 들어가 금식기도를 하는 중에 받은 계시의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 우리나라에 성경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 이긴자가 나타나 역사하며, 한 분은 박 씨이고 한 분은 이 씨이며, 한 분은 모세의 역할을 하여 성령의 씨를 뿌리고, 한 분은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여 영적인 추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사도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의 성령을 받았으나, 이분들은 물과 피를 증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강 목사님은 당신이 본 계시를 ‘십자가는 야간의 태양’이라는 책에 소상히 기록하여, 이 책을 뒤적거리면서 자상히 설명하셨는데, 나는 밤 가는 줄도 모르고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이때 내 나이가 26세였으니까, 10년 후에 이루어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목사님은,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지만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일본이 대동아전쟁에서 패하지만, 얼마 후에 세계에 4대 강국이 형성될 때에는 그 한 나라에 끼게 된다고 하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자상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하면 우리나라는 38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갈리며, 이북은 공산당에게 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땅을 수만 평 갖고 있는 장문창 장로님에게, 그 땅은 앞으로 갖고 있어야 자기 것이 안 될 테니, 일찌감치 팔아서 해방이 되어 만주에서 맨손으로

몰려올 동포들을 위해 적선을 하라고 권하고, 또 과수원과 큰집도 처분하여 남을 위해 좋은 일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강 목사님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매우 심각하게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늙은 목사가 노망이 나서 주책을 떠한다고 상대도 하지 않았으며, 장문창 장로도 목사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꺾다가, 해방 후에 알몸으로 월남하여 부산 산꼭대기에서 쪽방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동아전쟁의 말기라, 왜놈들은 교인들에게, 소위 황국 신민의 정신을 심어 주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목사나 장로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처넣는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잡혀가서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강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라리 죽어야 해. 그래야 한국 땅에 이긴자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면서, 새벽에 배에 나갈 때에는 으레 길을 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찬송을 나직한 목소리로 줄곧 불렀습니다. 이러한 강 목사님을 사람들은 미친 영감으로 따돌리고 상종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후 공산 치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목사님은 나와 함께 교회로 가다가, “저 초승달을 좀 봐요.” 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기에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 초승달이 떴는데 바로 그 끝에 별 하나가 매달려 초승달과 함께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징조인지 알겠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나는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 초승달과 그 끝의 별은 바로 인민공화국 국기의 도표요. 곧 이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될 거요. 자매님은 난리 중에도 하나님을 믿어 주실 테니 그때 월남하십시오.”

나는 ‘설마’ 하고 생각했으나, 그 후 한 달도 못되어 6.25가 터지고, 나는 1.4후퇴 때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가르쳐 주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 후 강 목사님도 일단 월남했으나, 북에 남아 있는 동포가 걱정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월북했는데,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공산당에게 붙잡혀 대동강 가에서 총살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부산에서 시온교회에 다니다가, 서울이 수복된 후 원효로에서 살면서, 서울 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시온교회에 나갔는데, 원효로에서 새벽예배에 참석하려면 너무 멀어, 이웃에 있는 호동교회에 나가 새벽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수요일 날 새벽에 문득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박태선 장로님의 기도처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들어가니, 철야하던 교인 두 사람이 졸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이북에서 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도처는 감람나무가 인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옵니까, 아니면 그가 거짓 선

지자입니까?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갑자기 강한 향취가 확 풍겨와 내 온몸을 휩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여겨 좀 더 확실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날 저녁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는데, 이미 제단 안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큰딸이 전에 박 장로님의 남산집회에 나갔다가, 장로님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어찌고 하기에, 나는 “애, 다시는 가지마. 말세에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떠는데.” 하고 못 가게 했는데, 이제 내 발로 이곳에 걸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윽고 박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뜻밖에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내 눈을 의심하고, 보고 또 보았으나, 분명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의 얼굴이 어디서 본 것만 같아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생각해 본 결과, 내가 이북에 있을 때 ‘십자가는 야간의 태양’이라는 강 목사님의 책에 그린 감람나무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그때 경영하던 포목상을 때려치우고, 우리 여덟 식구는 감람나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소사신앙촌에 입주하여 믿음의 식구끼리 은혜 안에 젖어 복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956년 3월 11일 꿈을 꾸니, 이 은혜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끊긴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공책에 날짜와 꿈의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 은혜

가 끊긴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강 목사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감람나무가 나타날까?’ 하고 궁금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는 놀라웠으나 말씀은 별로 시원치 않아, 나는 이것을 못내 아쉬워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덕소 제2 신앙촌에 가면 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의 어려운 말씀을 다 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루 속히 제2 신앙촌에 들어가 새로운 말씀들을 들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덕소에 들어가 새로운 말씀이 터지기를 이제나저제나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끝내 감감소식이고, 날이 갈수록 성도들을 향해 “멸망할 것들, 썩을 것들.” 하고 욕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상하다, 왜 새로운 말씀은 없고, 욕만 하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니, 우리 덕소 식구들이 한강에서 빨래를 하는데, 하얗게 뽀 빨래를 한강물에 행구니 오히려 뿌옇게 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구들에게 빨래를 행구지 못하게 하고 강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때 난잡한 행동으로 말썽을 부린 박 장로님의 세 아들들에게 따로 살라고 지어준 집 아래서 파이프를 통해 빨건 물줄기가 나와 한강을 더럽혀 빨래가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장로

님의 딸 소신이 죽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 또 꿈을 꾸니, 내가 기장 제3 신앙촌에 갔다가 오는데, 사람들이 장로님의 조부님 무덤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이 조부님은 원효로 시절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내가 구역장으로 있었으므로 손수 옴을 하여 장사를 치렀습니다. 왜 무덤을 파느냐고 내가 말했더니, 누가 “문을 사람이 있는 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문을 사람이라니, 누구데요?” 하고 내가 물으니 “이거, 능(陵)입니다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내가 하얀 소복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웃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권사님의 꿈은 꼭 맞는데, 아무래도 언짢은 일이 일어날 것 같군요.” 하고 할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다음날 장로님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거, 이제는 다 되어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동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 끝에, “권사님이 성경을 잘 아시니까 여쭙어보겠는데, 성경에 기록된 둘째 감람나무는 어디서 나타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강태온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둘째 감람나무는 첫째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송 집사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권사님, 실은 그런 감람나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이쿠 이게 웬일인가?’ 싶어, “그래요? 잘 주시해 보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다.

그 후에 송동호 집사님이 청량리에서 둘째 감람나무가 제단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 꼭 가보자고 하기에, 따라나서서 청량리 바오로병원 옆 건물 4층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주의 종을 만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주의 종이 말씀했습니다.

“이 어려운 판국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시니까요.”

“잘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종과 이렇게 몇 마디만 나누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에 송동호 집사님이 설교집을 계속 갖다 주고, 계시록 강해도 갖다 줘서 읽어 보았더니, 내가 앞선 하나님의 사람 에게 질문한 멜기세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계의 말씀이 잔뜩 실려 있어, 나는 무척 감명 깊게 읽고, 날이 갈수록 강태 온 목사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종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에덴성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적마다 힘이 솟아나, 주님의 옛사랑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옛사랑을 어디서 잃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 가정이나 아들의 교육 문제를 걱정한 나머지 세상으로 흘렀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나는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접어들어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Chapter 18.

권사 한상걸



한상걸: 1922년-2005년.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남산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박태선 장로를 따랐다. 1978년에 이영수 총회장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에덴성회를 나오게 되었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나는 유교를 숭상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와는 담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무당신이 내려, 할아버지가 창피하게 생각하여 교회의 목사를 데려다가 예배를 보고 무당신을 내쫓은 것이 계기가 되어, 할머니가 교회에 나가는 바람에 나도 할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30세 때 서울 남산집회에 가서 향취와 이슬의 은혜를 받

고, 전도관으로 전향하여 이만 제단에서 반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으로 박 장로님으로부터 안찰을 받게 되었을 때, 내 앞에 선 두 사람의 반사를 안찰하시면서 장로님께서 “이런 썩은 것들 봤나. 이렇게 죄를 짓고 어떻게 반사 노릇해?” 하고 야단을 치기에, 나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입에서 불덩어리가 나와 내 몸을 휩싸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만 정신이 아찔하였으나, 두려운 생각은 없어지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나니, 나는 자나 깨나 하나님과 주의 일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믿지 않는 남편은 이런 나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핍박을 하더니, “너는 예수하고나 살아라. 나는 너하고 살 수 없다.” 하고 마지막 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남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소사신앙촌이 완성 단계에 있었으므로, 나는 입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신앙촌에 입주하려면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하니,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밤을 새워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박 장로님이 흰 와이셔츠 바람으로 단상에서 내 앞으로 내려와 내 손에 포도송이 네 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로님에게 간증했더니, 1차로 뽑혀서 입주하여 캐러멜 공장의 책임자로 있다가, 냉면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발을 크게 데어 겨우 오만제단에 기어 올라가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덴 발을 만져 주

셨습니다. 이때 나는 몸속의 내장이 하나도 없어지고, 내 몸이 종이 한 장의 무게밖에 안 되는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면서 상처가 금세 나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단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편도선이 부어오르고 열이 40도나 올라,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목을 만져주시자, 나는 마치 장로님이 손으로 나를 싸서 포근히 안아 주는 듯한 아늑함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니 편도선이 거뜰히 나아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20년 동안 나는 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서 장로님 댁에 들어가 장로님의 수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옥중에 계실 때 꿈을 꾸니, 손선보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손 전도사의 머리 위에서 철사 같은 것이 여러 갈래 늘어져 단 아래서 예배 보는 성도들과 연결되더니, 성도들이 여기에 얽매어 맥을 못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김풍자 일파에 의해 집에 연금 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모님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새벽예배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장로님이 출옥하자 김풍자 일파는 장로님을 탄 곳에 모시고 사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하루는 사모님이 화가 나서 장로님에게 와서, 계집도 자식도 다 버리고 혼자 감람나무 할 거냐고 으박지르는 촌극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차츰 기력을 회복하더니, 그동안 역사해 온 김풍자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선보 전도사에게 김풍자를 만나지 말라고 일렸습니다. 그러나 손선보는 김풍자와 가까웠으므로 장로님의 말씀을 어기고 김풍자를 만났습니다. 그 후에 손선보가 장로님에게 안찰을 받으니, 손선보의 눈에서 쌀뜨물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계속 고름이 마구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로님은 손선보가 김풍자를 만난 것을 알고, 다시는 김풍자에게 얼씬도 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손선보는 다시 김풍자를 만나, 그 다음에 안찰을 받았을 때에는 손선보의 눈에서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이어서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무튼 장로님이 자른 사람과 눈만 마주 쳐도 눈이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람나무에게서 잘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벌벌 떨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기장에서 장로님의 수발을 들면서 봉제공장을 맡아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성적이 부실한 골덴공장을 맡으라고 해서 내가 궤도에 올려놓았더니, 이번에는 역시 잘되지 않는 남자 식당을 맡으라고 하기에 식당을 맡아 바로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니, 장로님이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로님에 대해 그때까지 조금도 의심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매우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안찰을 받아도 아무 효험도 없어 여러 가지 병이

잇달아 생겨났습니다.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최옥순이 후처
로 들어오게 되어 나는 기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촌에서만 살다가 세상에 나오니 할 일이 없어서,
낮이면 등산으로 소일했으나, 밤이면 허전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나는 지금까지 헛수고만 했는가,
싫어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내가 기장에서 나온 지 1년 반쯤 지나
서 우연히 박보희 권사를 만나 에덴성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2감람나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 같지 않아서 코
웃음을 치고 밖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후에 여러 에덴성회 식구
가 부산의 우리 집에 전도하러 와서 둘째 감람나무를 증거했으나,
한마디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에덴성회 사람들이 와서 총회장님을 모시고 예배를
보아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 우리 집을 잠시 빌려 달라
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
어, 방은 빌려 주겠지만 음식 대접은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
다. 이리하여 우리 집에서 총회장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
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총회장님을 보니 박 장로님의 모습과 꼭
같고, 목소리까지 닮아, 나는 몹시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배를 보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가슴속에서 뭐가 철렁 내려앉
는 것 같더니 온몸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안찰을 받으니 마음이 포근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총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사님, 나 나쁜 사람 아니니 믿고 따라 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나는 심한 소화불량증으로 죽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웬일인지 식욕이 나서 밥 한 공기에 떡도 먹었으나, 그대로 소화를 하여 기운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병이 깨끗이 물러간 것입니다.

총회장님은 저를 권사로 임명하시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기에 부인회장 일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박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서 갔더니 교회가 아니고 절에서 장로님이 까만 옷을 입고 단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절간에 들어가지 않고 도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 후 나는 전도관 식구들이 삭발을 하고 염주를 굴리는 모습을 보고, 꿈 생각이 나서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을 꾸니, 에덴성회는 강 이쪽에 있고 전도관은 강 저쪽에 있는데, 에덴성회는 교회를 훌륭히 지어 광채가 나고, 전도관은 박 장로님이 썩은 나무로 교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대예배에 참석하면 향취가 코를 찌르고, 총회장님의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단상에 이슬이 뽀얗게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저에게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총회장님이 출옥하기 전날 밤에 꿈을 꾸니, 총회장님이 백마를

타고 앞장서고, 뒤에 성회장님들이 말을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총회장님이 에덴성회 식구들에게 집집마다 축복해 주시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이어지는 감람나무의 역사에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역사를 위해 내 여생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Chapter 19.

집사 한은화



한은화: 1965년생. 1978년부터 에덴성회를 나왔다. 1979년 연말 모임을 준비하다 뇌종양으로 쓰러졌으나, 주의 종이 옥중에서 축복함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제가 에덴성회에 나오게 된 것은 1978년 1월 1일,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한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와 보는 교회치고는 낯설지 않았고, 찬송가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람의 찬송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금할 수가 없었고, 마치 잃었던 엄마를 다시 찾은 듯,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앞선 역사 시절에 어

머님(이숙렬 권사)의 모태에서 받은 축복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13세의 어린 꼬마였지만, 어머님을 따라 새벽예배에도 나왔고, 제단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기쁨 자체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TV도 보지 않고 밤 새워 녹음테이프를 들었고, 낮에도 집안일을 하면서 녹음테이프를 들었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과 지지 않으려고, 늦게 나와 4년 동안 듣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단시일에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참 역사에 참여시키려고 친구들도 설득해 보았지만 부족한 죄인인지라 번번이 실패를 맛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7전8기의 오뚝이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주님께 기도하여 학창 생활 6년 동안에 3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인천 제단에 오시는 날이면 성가 연습이다, 생수통 진열이다, 하여 바쁘게 움직였고, 예배를 보는 순간순간이 저에게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몇몇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생수를 마시고 싶어 생수실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어렸기 때문에 향취인지 아닌지 잘 몰랐지만, 친구들이 말지 못한 향취를 맡고 또 다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학생회, 학생 성가대, 인천 성가대, 주일학교 부반사 등등, 주일날은 한 주일 중에서 가장 바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잘 기억되지는 않지만, 주일예배 때 단상이 뽕양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두 손에 선명한 핏자국이 보이고, 그 이마

에는 가시에 찢린 듯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가슴깊이 아파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1979년 11월 13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그 날부터 수요일과 주일날을 제외하고 매일 밤 가정예배를 보았습니다. 생수 축복을 해주시는 목요일은 하나님의 사람께서 옥고를 생각지 않으시고 생수를 축복해 주신다는 생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루 속히 자유의 몸이 되시기를…. 그러던 중 12월 25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해의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손님으로 온 것처럼, 빈 단상을 바라보면서, 옥고를 치루고 계실 하나님의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진실로 가슴이 메는 것 같은 아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께서 빈 단상에 모습을 보여주실까 하고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12월 31일 망년회를 맞이하는 날, 그날이 바로 제 일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인천 제단에서는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밤 12시에 새해맞이 예배를 보았습니다. 지난해에 못 다한 일들을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인천 성도님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위한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학생회 부회장인 윤현미와 함께, 나는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 배다리슈퍼로 향했습

니다.

가는 도중에 부회장의 친구 집에 들러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돌처럼 무거워지며 네모반듯한 방이 제 머리 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바람을 쐬면 나올 것 같아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저의 한쪽 발이 안쪽으로 비틀어져 있었고, 구역질이 나서 토하며, 몸은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하고, 머리는 깨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단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길을 찾아 나왔지만,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회장과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언니들의 부축을 받으며 제단에 들어왔을 때, 예배를 인도하시던 이춘희 성회장님께서 깜짝 놀라 저를 성회장님 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성회장님의 방에 들어가서도 계속 토하고 머리의 통증은 더 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부터 쓰는 글은 저를 지켜보신 어머니와 언니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성회장님의 방에서 인천 화수병원으로 저를 옮겨 놓고, 학생회장(윤성노)이 어머니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께서 곧이듣지 않았으나, 학생회장의 초조한 태도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일군이라면 살려 주시고, 있으나마나한 인간이라면 차라리 그 생명을 거두셔도 한이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화수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았다고 합니다.

화수병원 원장님은, 고칠 수가 없으니 어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길여병원, 흥내과, 기독교병원, 도립병원을 전전했습니다만, 고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춘희 성회장님께서서는 한의원에 가보자고 하시기에 잘 아신다는 한의원에 갔습니다만, 역시 원장 되시는 분이 살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어서 죽기 전에 집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아침 10시쯤 해서 이춘희 성회장님께서 오셔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병원에 입원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1일 저녁 4시쯤 해서 다시 인천 도립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성회장님과 이백순 장로님, 권사님들과 학생회 회원들이 진찰의 결과를 알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저의 어머니께서는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다고 합니다.

처음 결과는 뇌출혈과 뇌막염이었는데 이 결과가 확실치 않아 의사들은 고민을 했고, 병원 측에서는 성의를 다 하느라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병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장정이 두 손으로 관자를 눌러도 머리는 빠개져라 아프고, 몸부림치며 머리칼을 잡아 뜯고,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토하고, 정말 눈뜨고 바라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소아과, 정신과, 내과 박용재 박사님과 서울대학병원 김 모 박사님을 초청해서 종합 진찰을 한 결과, 뇌종양(뇌암)이라는 무서운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어머니는 뜨거운 불의 은혜가 병원을 전전할 때부터 계속 강력히 연결되어,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희 큰 형부(신경희 집사)께서 하나님의 사람께 면회를 갔을 때, 우리 은화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 주십사고 울면서 애원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테니 그리 알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던 흰 손수건을 형부를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그 손수건을 제 머리에 얹어 놓고 저녁이 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문병오신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 송장같이 죽었던 제 볼이 갑자기 홍조를 띠고, 입술이 빨간 꽃이 피듯 하며 눈을 뜨더니, “엄마 나 배고파. 생수 좀 줘.”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문병 오신 성도님들과 온 가족이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다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옥중에서 갖은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어린 가지 하나를 위하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서였습니다.

그날이 1월 16일이라고 기억됩니다. 도립병원에서 저를 담당하셨던 박용재 박사님도 큰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참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만 명 중에서도 한 사람 살기가 힘든 뇌암에서 소생한 것은 도립병원의 경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천주교 학교인 박문여중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큰 기적이라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소생한 그날부터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1월 22일 퇴원을 하고는 집에서 온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

다. 하나님의 사람을 뵈고 싶어, 공판이 있는 날에 법원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인사도 드릴 수 없었고, 먼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뵈고는 가슴이 아프고 감사하기도 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번이고 갔었지만, 간수들의 제지로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옥중에서 나오신 후 저를 보시고는, “무척이나 건강해졌구나.” 하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후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날로 발전해 가는 현대 의학도 찢절때는, 99%의 사망률을 가진 뇌암이라는 병을 저는 주님의 은혜로 고쳤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저는 썩은 육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받은 생명만큼이나 값지고 보배로운 은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감람나무의 굵은 가지로서 주님의 역사에 필요한 일꾼이 되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Chapter 20.

원로성회장 김윤성



김윤성: 1926년생. 서울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감리교회에서 봉직하였다. 부모님의 권유로 안동전도관에서 목회를 하였고, 후일 목회를 쉬던 중, 전도를 받아 1979년 에덴성회를 나오게 되어 목회를 하였다. 2003년 퇴임했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나의 고향은 평남 용강군 삼화읍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계셨으므로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리교 재단인 광성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주일 학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정의 패망이 가까워진 1945년 대

동아전쟁의 말기에 왜경의 횡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왜경들의 박해와 감시 속에서도 목사님들의 신앙과 민족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7월 장마철에 박재봉 목사, 이호빈 목사, 변중호 목사, 이용도 목사, 주기철 목사, 이성봉 목사님들을 따라 나는 산상 구국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8.15해방을 맞았지만,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광복의 기쁨을 맛볼 사이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은 보안서원에게 연행되어 시베리아의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1947년 1월 30일에 나는 흰 눈이 한 자나 덮인 고향땅을 등지고 월남했습니다. 소련군과 내무서원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남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울역에 도착하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현동 마루턱에 있는 서울신학교(성결교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방학 중이라 학교는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더니 3학년 학생이 맞아 주었습니다. 나는 신원을 밝히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평양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자기도 평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방학이라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고향에 갈 수 없어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나는 동향인을 만난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쓰던 방을 나에게 내주고, 돈 3,000원을 내 손에 쥐어 줬습니다. 그는 나에게 구세주나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15원밖에 없어 앞

이 캄캄하던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학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는 고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 잡아 보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학비 조달을 위해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1950년 4월에 신학교를 마치고, 충남 청양 감리교회 전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충남, 충서 지방의 감리교 부흥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에덴성회 교역자로 계신 하기호, 안운규 성회장님들은 나의 교역 시절의 흥성, 삽교 청년회원들입니다.

1953년 1월에 교역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하여 군목으로서 최전방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 끔찍한 전화의 참상을 겪은 후, 1956년 6월에 제대했습니다. 나는 그해 유형기 박사님(감리교 감독 목사)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수원지방 발안 어소 감리교회에 시무하던 중에, 월남하신 부모님의 권유로 감리교회의 목회를 그만두고, 1957년 3월에 안동전도관 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내가 충남에 있을 때입니다. 박 장로님의 청주 집회에 갔다가 죄타는 냄새, 송장 냄새, 향취, 그리고 이슬 같은 은혜의 창과 속에서 갖가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앓은병이가 일어나고, 그 밖의 여러 가지 난치병이 나았습니다. 박 장로님은 죄를 지적하시면서 안찰을 해주셨습니다. 안찰을 받고 시퍼렇게 멍이 들거나 얼굴에 울퉁불퉁 혹처럼

튀어나와 부끄러워서 바깥출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감리교에 여러 해 시무했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산 체험은 나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역생활에 열중하다 보니 가족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 장로님의 교역자 대우는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생각다 못해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역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받은 은혜는 나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와 같이 교역을 하다 그만둔 동지들은 이곳저곳의 다른 교회로 나갔으나,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박 장로님을 통해 받은 은혜의 향수에 젖어 살았으나 늘 마음이 켄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촌전도관에 나가던 최현 장로님께서 ‘에덴의 메아리’ 1집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와서 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별로 받아들이지 않자 책을 놓고 그냥 갔습니다. 1975년에는 2집, 1976년에는 3집, 1977년에는 4집을 갖고 오셔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 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쁘게다가 별로 관심도 없어 읽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박 장로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장로님의 사모님, 윤 권사님은 집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하다못해 시장까지도 줄줄 쫓아다니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78년 여름에, 나는 혹시 두 번째 감람나무가 정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몰래 혼자 에덴성회에 와 보았습니다. 설교

하시는 총회장님의 음성은 박 장로님의 음성과 꼭 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찌나 오묘한지,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향취가 내 코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가슴이 뿌듯해 오고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옛 은혜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영광도 돌리기 전에 제단을 빠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소매를 잡았습니다. 최공오 장로님이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반갑다고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변절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나와, 나는 재빨리 한 옆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고 최 장로님을 차안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옛날의 교역 동지입니다. 나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핑계 삼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전라도, 경상도 등지로 돈벌이를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면 마음이 켄켄하고 답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석 성회장님이 간간이 들러 에덴성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1979년 4월 첫 주일에 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에덴성회로 향했습니다. 제단에 앉자 향취가 풍겨 왔습니다. 나는 이 향취로 내가 에덴성회에 온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단상에서는 이슬이 자욱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동하는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 나는 컬러필름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감격의 탄성을 올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위해 이 생명을 불사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처음으로 안찰을 받았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이 아파와 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제단을 나와 100미터도 못 가서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메스했습니다. 그리고 눈두덩이 3일간이나 얼얼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또 안찰을 받았습니다. 여러 주일 계속해서 안찰을 받고 나니 통증이 차츰 가시고 울렁거리던 증세도 없어지고 마음도 활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몹시 기다려졌습니다.

나는 지난날 정환택 간사님께, 생활이 하도 어려워서 5남매를 키우기 위해 당분간 휴직을 하고 애들을 다 키운 후 55세에 복직하겠다는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몸을 담은 지 2년 만에, 즉 55세에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성직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신기합니다. 내가 다시 교역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몽클했습니다. 온 가족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큰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나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 역사를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982년 여름에 대전의 김상욱 장로님의 중앙기계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육중한 선반 기계를 옮기던 중에 지렛대 쇠뿔치가

김 장로님의 발등을 내리치는 바람에 발이 부서졌습니다. 순간 장로님은 “생수! 생수!” 하고 외쳤습니다. 장로님은 부랴부랴 생수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아프다 못해 뜨겁던 발이 시원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양말을 벗고 자세히 보니 상처가 없어지고, 뼈도 멀쩡하고 약간 부어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님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3, 4일 후에는 거뜬히 나왔습니다. 나는 생수의 위력에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없는 시체들이 천사처럼 곱게 변해 구원을 받는다면, 삼복더위에 성령의 바람이 시체를 에워싼다면, 하는 갖가지 신앙의 산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간절히 예배드릴 때면 장마철의 빗줄기 같은 것이 제단 천장에서 햇빛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근래에는 간혹 안찰을 받으면 눈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마치 박하사탕을 입에 문 것같이 싸하고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체험을 통하여 감람나무의 그늘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갖가지 은혜에 날이 갈수록 두려움과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모든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알곡성전을 건축하여, 창세 이후의 많은 선지성인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 엄청난 축복의 시대에 사는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Chapter 21.

권사 조삼순



조삼순: 1945년생. 전도관에서 성장기를 보냈으나 나이가 들어 종교를 멀리하다가 1982년 신에 이끌려 이영수 총회장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에덴성회를 나왔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나는 일찍이 신의 이끄심에 의해 종교를 갖게 되었고, 더욱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정해 주신 에덴성회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1982년)에 있었던 일들이 옛그제 일처럼 생생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준엄하신 명령에 순종합니다.

지금 쓰는 이 글 한 줄 한 줄이 나의 실제 체험이요 사실인 것을

처음부터 지켜본 내 남편(신근영 장로)과 시어머니(정향자 권사, 2012년 사망) 그리고 오빠, 언니, 나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이 증인이 될 것이며, 추호의 보탬과 빠짐이 없이 낱낱이 기록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이끌림에 시달리며 동행하다가, 결국 에덴성회를 택하겠다는 약속에 신께서 나를 풀어 주셨고, 다시 맑은 정신이 되게 하여 정상인으로 돌려보내 주신 그 두려움 앞에 승복합니다. 나는 멍청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현직 교사이며, 내 남편 역시 교사이 극작가로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부부는 세상 물정에 어둡지 않고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신앙심이 무척 깊으셨습니다. 학식은 많지 않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론이 정연하시고,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안일도 제쳐놓고 하시는, 아집이 강하신 교회 권찰이셨습니다.

제 이름자 중에는 석 삼자(三字)가 있는데, 하루는 하늘로부터 곡식이 가득 담긴 세 개의 광주리를 받고 좋아하시다가 깨어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꿈이 태몽이었다고 하여, 하늘의 수인 삼(성부, 성자, 성신)을 기억하시고 석 삼자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내가 국민학교 6학년이던 그해 겨울(1958년 11월 경) 일부 가족과 소사신양촌에 1차로 입주하셨는데, 박 장로님 덕이 바라보이는 구 제단 밑 C24동 1호였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하여 모두들 똑같은 작업복을 맞춰 입고, 학생

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세상과는 단절된 소사신양촌 안에서 공장 직공이나 건설대로 일하면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력을 총동원하여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지계에 한 장의 벽돌이라도 더 많이 저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햇불까지 켜들고 일을 했습니다.

나 역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때를 쓰다가 이듬해 4월에 시온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이나 돌봐주는 학부모나 모두가 건성이었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공부는 대강하고, 돌맹이를 나르고 풀을 뽑고 지계를 지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즐겁고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장로님이 옥에 들어가시게 되자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활이 곤란하여 한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먹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일자리를 찾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덕소신양촌이 생기면서 그곳으로 이주하는 가구 수가 많아져, 소사신양촌에는 빈집이 생겨났으며, 사회적으로 몰들어 세속화되었고, 신앙심의 약화를 이유로 형편만 되면 모두 덕소신양촌으로 떠났습니다.

소사신양촌에 지도자가 없어지고 기강이 흐트러지자, 천부장인 황 권사가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정 형편상 학비가 안 드는 국립대학인 교육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시온고등학교에서는 우등상을 받았지만, 대학에 가보니 너무 실력이 떨어졌습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영화 한 편 못 보고, TV도 보지 않고, 잡지 한 권 못 읽은,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 온 그곳 신앙촌 학생들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특히 문화면과 사회면과 일반 상식에서 뒤떨어지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가 신앙촌으로 입주하여 그런 폐쇄된 환경에서 내가 성장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뭉쳐 한곳(천성)을 향해 함께 간다면 연탄가스를 맡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마귀에게 씌웠다고 해서 피해 가는 사람들, 남의 단골을 빼앗아 자기 단골로 삼아 판매실적을 올리려는 보따리 장사 집사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열성과들(?), 그곳은 뭔가 잘못된 집단의 식이 형성되고, 뒤흔어진 신앙관이 심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기장신앙촌이 생기고 나서 소사신앙촌은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나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는 신앙심(信仰心)은 커녕 점차 전도관에 대한 회의감(懷疑感)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골학교 여선생이 되어 발랄하고 패기에 넘쳐, 사명감을 갖고 일해 보리라 마음먹고 부임을 했습니다. 12학급의 작은 경기도 이천 단월국민학교. 쌀이 좋아서 옛날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부농인 그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무용을 가르치고, 풍금을 치면

서 노래를 가르치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꿈을 심어 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싱그러운 처녀로서, 아니 여교사로서 사회에 적응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신앙촌에서 결혼을 못하게 하여 만혼으로 가정을 이룬 오빠들이 사회로 나가 식구가 줄어들자, 어머니는 적적하시다고 나를 시온국민학교 교사로 오라고 강하게 종용하셨고, 날마다 기도생활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언니가 시골학교로 찾아와 어머니의 병세를 자세히 얘기하며, 소사신앙촌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했는데, 마침 그곳 시온국민학교에 자리가 비어서, 나는 다니던 이천 공립학교를 그만두고 사립학교인 시온국민학교로 전근을 왔습니다.

내가 시온학교에 온 지 몇 달 안 되어, 나는 이곳에 잘못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사들 대부분은 공립학교로 가고 싶어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있다가 시온학교로 온 지 6개월도 안 되어, 나는 이곳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곳에서는 색다르게 여겨지고, 교사 간에도 반목과 질시가 뒤따르며, 인간미라곤 전혀 없는 개인주의만이 팽배한 삭막한 곳, 무언가 한참 모자라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나는 시온국민학교에서 2년 6개월 남짓 있다가, 서울 공립학교로 갈 수 있는 편입고사에 응시하여, 서울 여선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새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고, 새롭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았으며, 감춰야 할 것도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박동명 사건(카페에서의 골든벨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울분 같은 것을 느꼈고, 신앙촌의 보따리 장사꾼을 만나면 불쌍했고, 성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인 그 많은 돈을 박 장로 자식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물 쓰듯 하는 그 인간됨이 이만저만 고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통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 2세들이 갖는 특유의 불량성 중에서도 최고의 불량성을 지닌 박 장로의 자식들. 큰 아들 동명은 나와 시온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왔다고 후회하며 허탈감에 빠져서, 굴레 같은 종교관을 벗어 버리고 세상과 짝하니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내 앞에는 새 삶이 펼쳐졌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가꾸고, 아이들을 기르고, 바캉스를 떠나고, 전도관에서 금했던 복숭아와 삼겹살도 먹고, 주일이 없이 일요일도 내 것이 되어 일주일에 7일 모두를 가질 수 있어, 참으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신앙촌에 입주하여 학업도 중단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생활하다 불쌍하게도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나는 언니의 죽음을 통해 생수의 위력이 그토록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언니의 시신이 살아 있었을 때보다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어 땅에 묻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곳의 비리와 불합리한 생활이 싫어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생만 하시다가 자식들이 저마다 살 만하게 되니 그만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셨지만, 큰언니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이미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좌우명처럼 여기시던 분, 그 분이 떠나시던 날은 삼복중에서도 가장 더운 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신에서는 냄새 하나 나지 않았고, 아름답게 잘 피어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시아머니(고 정향자 권사)께서 하루는 어떤 전도사를 따라서 에덴성회에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신혼 초라 내색은 할 수 없었지만, 속마음으로는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시려면 일반 교회로 가지지, 하필이면 왜 또 전도관 흉내를 내는 그런 사이비 교회로 가신담? 아들이 마련해 놓은 집까지 팔아 바치고, 그것도 부족하여 어깨가 기울도록 보따리 장사를 하며 충성을 했건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도 또 그런 곳으로 가시다니!’ 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학벌도 없고, 탄따라 출신인 그 사람이 어떻게 감람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자칭하는 곳은 모두가 이단이에요.”라고 시

어머니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한 번 빠지면 돈과 자식과 남편까지 모두 버리고 따라가는 곳이 전도관의 생태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에덴성회로 나가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의 경제권을 내가 맡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한 달 생활 경비만 빠듯하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관리했습니다. 크게 현금할 여유를 드리지 않고, 가끔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에게 시어머니의 동태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같이 터무니없는 현금을 내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용돈이 충분치 못하니 현금할 돈이 없었겠지요.

교인들이 방문하면 내가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에는 아무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수 총회장이 옥에 들어가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나는 시어머니께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어머니, 그것 보세요. 한 번 당하시고도 또 그런 교회를 택하세요? 저하고 함께 집 근처의 교회로 가지지요.”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나 모르게 재판장에 다녀오시고, 면회를 가시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내가 교회 옥을 하고 펄펄 뛰니, 더 죄를 짓는다고 말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절약하여 돈을 모으고, 좀 더 큰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고, 살아가는 데 불

편이 없었습니다. 주말을 즐기고, 휴가를 즐기고, 여행을 가고, 구경을 다니고, 집을 가꾸고, 살림을 늘리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해에 우리는 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아담하고 예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살기 위해 짓는 집이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남편은 집 설계도도 많이 그렸고, 건축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용두동 서울사대 자리의 큰집 구경을 자주 갔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비싼 훌륭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용두동에 갔더니 ‘에덴성회’라는 교회 현판이 보였습니다. 나는 공연히 울컥 화가 치밀어, 외면을 하고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나는 용두동의 에덴성회를 보고 ‘한 젊은 남자가 교주라고 나타나 무지한 노인과 부녀자들을 모아놓고 감언이설로 하나님을 팔아 제법 큰 교회를 지었구나. 내 돈도 저 속에 있겠지! 전도관에서 배운 수법으로 거기서 떨어진 찌꺼기들(?)을 모아놓고 그대로 흥내 내며 가르치고 있다나...’ 이런 생각을 하니, 교주를 따르는 교인들의 무지가 한심하고 불쌍했습니다. 거기다 생수도 만들고 안찰도 한다니 가소롭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도관이나 에덴성회는 한 번 걸려들면 세뇌되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알기에 겁이 났습니다.

하루는 학교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에덴성회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나와 마주쳤습니

다. 그 사람들이 허둥지둥 돌아간 후 나는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왜 나 모르게 그러 거지같은 것들을 집안에 끌어들이 예배를 보세요? 그런 자들이 모여 예배보기 좋으라고 큰 집을 지은 줄 아세요? 동네 창피하게. 혼자서나 조용히 다니시지, 괜히 비싼 밥 해 먹이시고 잘하시네요. 그런데 돈 쓰시라고 제가 나가서 돈 버는 줄 아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며느리의 언동이었습니다. 나는 에덴성회 얘기만 나오면 역정이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또 하루는 TV에서 에덴성회 소년소녀합창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사도우미가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잘한다나요?

“야, 저게 그 교회 애들이야? 아니 촌스럽게 웃이 저게 뭐야! 저걸 합창이라고 해? 탄따라 출신 교주라 주로 저런 데 돈을 들여 선전하는구나!” 하면서 나는 채널을 다른 데로 확 돌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당신, 왜 그래? 너무하잖아?!” 라고 말할 때야 비로소 나는 ‘아차, 너무했구나’ 싶어서 방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에덴성회 하면 왜 무작정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전도관에 질려서 그랬을까요?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을 예쁘게 잘 지었다고 남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사진도 찍어가고, 구조를 그려 가기도 했습니다. 새 가구를 들여놓고, 벽을 장식하고, 새 커튼을 달고, 이제는 살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갑자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지고 쉬고만 싶어졌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찬송가 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나는 13년 만에 찬송가를 찾았습니다. 옆 반 선생님(목사 사모님)이 조그마한 찬송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풍금을 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대학교 면접고사를 볼 때, 교육대학이니까 가창 시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많은 명곡을 놔두고 하필이면 왜 찬송가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75장.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면접을 하시던 여교수가 웃으면서,

“미션스쿨을 나왔는가?” 하실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역시 찬송가는 참 좋구나!’ 빈 교실에 은은히 퍼지는 찬송곡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쑥스럽고 부끄러웠으나, 그 다음 주일에 남편도, 식구들도 모르게 처음으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옛날의 전도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성스러운 가운데 모두 점잖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돌아오면서 ‘이제 전도관은 끝이야. 감람나무 운운하는 것은 다 거짓이야.’ 하는 생

각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일요일이면 낮잠을 즐깁니다. 남편은 내가 교회에 갔다 올 때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실로 오랜만에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는 한 가지 사실로 보람을 느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교회로 가봐야지.’

평소 출근할 때 늘 보아온, 높은 십자가 첨탑이 있고 지붕에 파란 기와를 입힌, 새로 지은 큰 교회였습니다.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 장식이 훌륭했고, 실내도 현대 감각이 물씬 풍기도록 멋있는 분위기로 잘 장식이 되어 있었으며, 백합꽃 수반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성가대의 화음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설교가 나에게 해당된다 싶어 편안한 마음으로 공감을 느끼며 말씀을 듣고, 정해진 시각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문 앞에 계시던 분이 공손히 인사를 하고 말을 붙여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모두 성경, 찬송가를 옆에 끼고 답소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뒤를 따라와 등록을 하라고 할까봐, 골목골목으로 피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훌륭하신 목사님을 찾아봐야지!”

이번에는 길을 건너 좀 멀리 갔습니다. 까만 정장을 하신 목사님이 펍 위엄이 있어 보였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성자 같았으며,

음성이 매우 좋으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혼인 잔치의 초대’였습니다.

“많은 음식을 차려 놓고 주인이 초대를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를 않았습시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극장으로 백화점으로 놀러 가느라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으나,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일에 교회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룩하게 보시고 기뻐하시어 구원을 주실 겁니다.”

아! 구원을 얻는다.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지으신 이 많은 인간들이 모두 지옥을 가면 당신인들 편안하시겠어? 어디든 교회에만 다니면 되겠지. 글썄 전도관은 엉터리라니까.’ 하면서 나는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편, ‘이렇게 구원이 쉬우면 걱정이 없겠다.’ 하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렇게 의인이 없었다는데….’

설교가 시시하다, 교인들의 수준이 낮다, 분위기가 안 좋다, 성가대가 시시하다 하면서 나는 1년이 넘도록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동안 참 편했습니다. 적당히 불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질 수 있었고, 아까운 헌금도 억지로 안 하고, 나를 구속하는 것이 없이, 가고 싶을 때만 가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했습니다.

옆 반의 목사 사모님께서,

“조 선생,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말고, 한군데 입적하세요. 그래야 신앙도 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이 책임을 지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긴, 나도 그렇다고 수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집에 목사님 두 분이 심방을 다니시면, 이게 무슨 꼴이람.’ 하지만 시어머니는 도무지 요 지부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깊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갈등이 일어 고통이 반복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께 여쭙었습니다.

“저, 제가 다른 교회에 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네가 그러겠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않겠니?”

“한 집에 이념이 다른 두 목사가 드나들어도 될까요?”

“그건 괜찮다. 내가 죽거든 그때만 에덴성회에서 장례를 치러주면 된다.”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말씀하시고, 놀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 방에서 교회 주보를 보시고 이미 눈치 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성가 화음이 좋고, 실내 장식도 잘 되어 있고, 분위기가 마음에 들며, 설교 말씀이 훌륭하고, 의자가 안락한 우이중앙교회를 택하여 입적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1982년 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새해부터 교회에 나가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몸을 깨끗이 하고,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1월 10일 ‘오늘은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과 인사를 해야지.’ 나는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신나게 집안일을 마치고, 시어머니가 얼른 교회에 가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빨리 11시가 됐으면….

화장을 막 끝내고 옷을 입으려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고, 현기증 같기도 하고, 귀 울림 같기도 하며, 메스껍고 차멀미가 나는 것 같고, 이런 이상한 현상은 생전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자꾸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상해요. 머리가 이상해.” 하고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어지러워? 여기 좀 눕지!” 남편은 놀라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누워서 눈을 감았으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헛소리가 입에서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으나, 내 의지와는 달리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헛소리를 계속하자, 남편은 너무 놀라서 처남(내 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확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최은례(친정어머니)다. 살아생전에 가족끼리 화목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했건만, 이것들이....”

하면서 나는 친정어머니로서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안 이야기지만, 나는 남편에게 명령조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 우리 애들이 다 모이니, 집안이 따뜻하게 보일러를 켜라!”

남편이 보일러 켜는 시늉을 하며 거실에 나가 라디에이터에 손대는 소리를 거짓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문이 닫힌 안방에 누워서도 거실이 훤히 내다보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언니가 오류동에서 우이동까지 허겁지겁 달려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좀 아픈가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이제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

나는 조용히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평온해져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언니와 동생,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녁때가 되어서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아까는 왜 그랬지? 이상하다. 내가 미치는 게 아닐까?’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치다니, 냉철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적인 것을 좋아하는 내가 미치다니? 좀 어수룩한 사람이나 그런 병에 걸리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11시에 교회에 등록하러 가려고 한 것을 주님께서 가로막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내 성격에 한번 등록을 하면 요지부동일 것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두운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또 다시 환상적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야! xxx야, 빨리 오라고 하는데, 왜 여태껏 안 오니? 내가 네 어미다. 오토바이는 타지 말고 택시를 타라! 허겁지겁 오지 말고, 천천히 와라!”

다시 어머니의 영이 나를 통하여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오빠들은 오류동과 개봉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 속에서는 계속 신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몇 사람 가지고는 시시하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오! 여러 번 하면 네가 힘드니까, 한꺼번에 하자!”

신의 소리가 왕왕 들려왔고, 누군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내가 지껄이는 헛소리를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 영상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신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싫어요. 창피하니까 그만 끝내주세요.”

그러자 신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정까지만 하자, 그런데 네가 노력을 해야지. 네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3일, 아니 2일 안으로 끝내 줄 테니, 노력을 해라! 학교 운동장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네가 남들 앞에서 이러면 창피해 할까봐, 방학 중에 집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학교에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상한 줄 알게 되면, 학교에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 다닐 겁니다. 11일은 소집일이고,

14일은 당직이구요.”

신은 내 말을 듣고 딱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았다. 노력해라! 내일 아침 여섯 시까지 이야기하기로 하자!”

남편을 비롯한 집안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나의 이런 소식을 듣고 밤늦게 달려온 두 오빠가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오빠들이 한밤중에 달려온 것이 미안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오빠들이 온 것이 보였습니다.

“오빠 죄송해요. 이렇게 놀라게 해드려서….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두 오빠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밤중에 놀라게 불러놓고 저렇게 멀쩡하게 사과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우선 천만 다행이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동안 조용조용 얘기가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돌변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야! 이놈들, 내가 네 어미다. 무릎을 꿇어라!”

갑작스런 상황에 오빠들이 깜짝 놀라서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왜, 무릎을 안 꿇어? 그렇게 교회에 잘 다니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화목하라고 일렀건만…”

평소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의 이야기를 내가 하니, 오빠들이 어리둥절하여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 어머니.”

하고 오빠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영은 넷째 오빠를 향해 말을 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너의 집에 불이 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울면서 기도를 드려 말렸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자식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곡히 기도를 드렸단 말이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모였으니, 옛날 얘기 많이 하고, 탕수육이라도 시켜다 먹고, 재미있게 놀아라. 찬송가를 불러라, 찬송가를.”

내 행동으로 나에게 큰 이상이 있음을 오빠들에게 인식시킨 후,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그 억센 기운과 행동에 놀랐다고 합니다.

어찌나 식구들이 혼이 났는지, 그 밤중에 탕수육도 시켜야 했고 고기도 구워야 했다고 합니다. 하는 척 흉내만 내면, 문이 닫힌 안방에 누워서 건넌방의 동태를 다 알고 호통을 쳐서 그대로 해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데 나는 당신의 뜻을 거역하니, 내게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불러놓고 당신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정 12시가 되어서 조용해지며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나는 오빠들의 이부자리까지 챙겨 주면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12시가 지나서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영화처럼 긴 영상을 보았

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그 다음날 그대로 재연될 줄이야,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리한 칼과 창과 못, 병원, 침대, 주사바늘이 튕기는 모습,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 노래하는 모습 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가 신과 접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6시가 되자, 한 오빠와 동생은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식구들에게는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시킨 후에 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오빠와 언니는 나를 보호하도록 남아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남아 있게 하신 오빠와 언니는 신앙심이 돈독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고 내 곁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오빠, 언니 가정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배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신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내게 맑은 정신이 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신과 대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불러다오. 많이 모이게 해다오!”

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려는 영상인가 봅니다.

낮 12시가 다 되자, 남편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자 준비를 서두르며, 어느 병원으로 갈지, 나 모르게 의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어젯밤 영상으로 병원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헛일이야. 나를 고칠 의사가 어디 있어. 괜히 왔다갔다 힘만 들고 나만 창피해지니까, 이대로 내버려 둬. 나는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을 거야.”

나는 어젯밤에 본 영상의 이야기를 줄줄 다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입원을 서둘렀습니다. 나는 내 정신이 들 때는 집안 식구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나도 또한 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정말 미치는가 보다. 이 일을 어떡하지? 이다음에는 말이 저절로 나오려고 할 때 입을 꼭 막고 참아야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식구들의 간곡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정히 그러시다면 병원에 가지요. 하지만 나를 낫게 하지는 못할 걸요.”

언니와 오빠가 나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집에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가면 우습게 보여. 비켜요, 내가 입을 테니.”

하고는 비척비척 일어나 정상인의 외출복 차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끔히 화장까지 했습니다. 누가 나를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

기겠습니까?

나는 혼자 걸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과 언니, 오빠, 그리고 나. 수유리를 지나 대지극장 쪽으로 가서 삼양로 입구에서 차가 멎었습니다. 어젯밤 영상에서 서울대학 출신의 원장과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보였었는데, 택시에서 차창 밖을 내다보니 ‘정광원 정신과’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정말로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병원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정신병원에 온 것이 창피해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떤 남자 옆자리를 피해 깨끗한 한쪽 구석에 얌전히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환자가 누구세요?”

“전대요.”

나는 간호사 물음에 주소, 이름, 나이 등을 또렷이 대었습니다. 한참을 더 기다리다, 호명을 듣고 진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잘 꾸며지고 정돈된 방에, 의사는 나이가 약간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전에 내 병세에 대해 남편과 잠시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라니요? 내가 선생이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 주세요.”

“아, 그러세요.”

“저어, 내일이 저희 학교 출근일인데 내가 아프다고 이 사람이 나를 못

가게 합니다.”

“아, 그래요?”

의사는 뭔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다시 신과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네까짓 게 뭘 알아? 그래도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내 동생도 서울대학을 나왔어. 네까짓 것 10명이 다 덤벼들어도 나를 고칠 수 없어. 가서 더 많은 의사들을 불러와!”

하고 나는 갑자기 의사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간밤에 서울대학을 나온 많은 의사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뛰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집에 불이 났어요. 큰일이에요. 빨리 집에 가요, 네? 가스를 잘못 켜서 불이 난 거예요. 커튼 뒤에다 내 반지를 매달아 났어요. 집이 타들어 가는데, 빨리 집에 전화를 해야겠어요.”

하고 나는 의사 앞 테이블에 놓인 수화기를 확 끌어당겼습니다.

“이것 보세요! 내가 미쳤다고요? 우리 집 전화번호가 993에 4056이에요.”

하며 급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모여서서 불구경만 하고, 불을 끌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반지를 아까 그 시커먼 사람이 훔쳐가려고 해요. 창문을 기웃 거려요. 커튼이 막 타들어 가는데 사람들이 불을 끄려하지 않아요.”

나는 발을 굴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찰실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환상 속에서 본 생생한 영상과 같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면담이 되지 않자, 나의 진찰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대기실로 뛰어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와 상담을 하고 한참 후에 나오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시켜야 한대요. 증상이 아주 심하대요.”

남편은 처남에게 절망스럽게 말하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는 서울대 출신 의사로 하여금 내가 완전히 미쳤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식구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상태를 증명시키기 위해, 주님이 정신과 의사를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식구와 의사 앞에서만 실수(?)를 했지, 그 외의 누구에게도 그런 꼴을 보이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것도 내 성격에 맞도록 주님께서 철저히 배려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간 식구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병원 문을 나서면서 잠시 환상 중에 잘생긴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보고 의미 있는 미소를 띠며 한참을 바라보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잘 알고 있는 한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겠다고 혼자 가고, 나는 언니, 오빠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나는 택시 안에서 ‘내가 계속 미쳐가는 것인가?’ 생각하며 길가의 간판 글씨를 읽어 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도 보이고, 앞서가는 11번 버스도 보였습니다. 나는 택시 운전사에게 길을 안내하면서 집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평소에 아끼고 늘 잃어버릴까봐 걱정스러워 아무도 모르게 감춰 두었던 반지를 모두 꺼내서 양손가락에 다 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오빠가 입원시킬 병원에 대해 의논하려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주 미친것 같지는 않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주 미친 상태라면 멀쩡히 제정신이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빠는 군에 있을 때 신앙심이 좋아, 예배를 인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통회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걸 종교적인 싸움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입원을 보류해 보자고 남편에게 제의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입원을 보류하고, 나는 다시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여 기진해서 축 늘어

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다시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이 내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글을 써라! 커튼을 닫고 며칠이면 쓴다.”

글! 글! 글! … 끝!

‘끝’자가 정리가 안 됩니다.

남편이 글을 써서 책을 펴내니, 호외가 되어 길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글을 써야 돼, 글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간증담을 쓰라고 보여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4년이 넘도록 이 글쓰기를 주저하고 사양하다가, 이제야 그 뜻에 순응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빠가 어디를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오빠에게 말 했습니다.

“오빠, 앰블런스를 불러왔지요? 하얀 백차와 콜택시가 있는데요?”

내 귀에만 밖에서 앵앵거리는 앰블런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 환상이 보였습니다. 나는 빨간 카펫이 깔려 있고, 휘황찬란한 휘장이 쳐진 아름다운 장식들로 가득한 화려한 교회 성전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단상이 있고, 의자들이 있는, 평소 내가 즐겨 찾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나 혼자 높은 천정이 있는 넓은 홀에서 누군가 나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서도, 사람은 없고 장식만 화려한 것이, 이 교회

는 형식에만 치우쳐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허전한 마음에 삭막함을 느끼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제단을 향해 꿇어 엎드려, 평소 내가 아끼던 보석과 반지 등을 모두 봉투에 넣어 누군가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내가 교회에 다니려면 재물을 많이 빼앗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워하며 드리는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일깨워 주시는 것으로, 헌금은 진정한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영상에서, 평소에 그리 가깝지도 않았고, 반가워하지도 않았던 에덴성회에 다니는 배 장로님과 그 사모님 조 집사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분들을 내가 맞이해야지. 나를 위해 오신 분들이니, 내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맞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누워 있던 자리를 거두고,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고, 방을 치우고, 방석 두 개를 내놓고, 다소곳이 앉아서 내 방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자, 방문을 살며시 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것은 환상일 뿐 실제로 그분들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고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라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잠옷을 입고 누웠던 내가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방을 치우고 말을 하면서 거실로 나왔으니, 놀라는 것은 당연했습

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보내신 그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거실에서 오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음) 아니면, 예텐성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만 그들을 보여주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영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우리 집에 내려앉으려고, 안타깝게 집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려고 하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집안일을 돕던 임 집사가 교회 사람들을 부르러 다녔으나, 한 사람도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익은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다시 생시입니다. 남편이 한약을 달여서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여기 이영수 피 넣었지?”라고 말하고, 가만히 약을 들여다보니 까만 한약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래 미친 사람은 생수가 피로 보인다는데 내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 생수가 들어간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약을 마시고, 또 다시 영과의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가 나 모르게 한약 속에 생수를 조금 넣었다고 했습니다.

흥미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게 무슨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내 머리와 이마와 내 방 벽 여기저기에 뿌렸습니다. 나는

왜 물을 머리와 이마와 벽에 뿌리는지를 몰랐습니다. 이 물이 바로 이영수가 축복하여 만들었다는, 에덴성회에서 사용하는 생수였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손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그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습니다. 잠시 전율이 스쳐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셨습니다. 무서운 곳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끌려 다니다가 한곳에서 굵은 삼베옷 같은 것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연상되는 옷이라 싫다고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입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직 ‘세마포’ 준비가 안 되어 싫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세마포가 무엇인지 몰랐고, 세마포라는 단어도 생전 처음 들어 생소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어린 양의 아내 될 자격을 갖춘 성도들이 입는 영적인 옷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하다가, 갑자기 ‘에덴성회’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에덴성회! 에덴성회, 그리로 갈게요. 꼭 그리로 갈게요.”

조용히 눈을 뜨고, 생시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흥미한 상태에서 멍하니 한참을 헤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에덴성회! 에덴성회가 생각났습니다. ‘아! 바로 이것

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에덴성회!’

나는 이제 앞으로는 신의 시달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를 에덴성회로 이끄시려고 그랬구나.’ 나는 현명(?)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맑은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평소에 제가 에덴성회로 나가기를 원하셨지요?”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나?” 어머니는 놀라시며 반문하셨습니다.

“저 이제 에덴성회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니, 말씀해 보세요.”

“그래, 내 소원은 너희들이 그곳에만 나와 준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도 부럽지가 않다.”

“이제 소원 성취하셨습니다. 제가 에덴성회에 다닐게요.”

“???” 어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계면쩍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생수 있지요? 한 컵만 줘 보세요.”

나는 평소에 끓이지 않은 물을 오래도록 놔두고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두 컵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아까 영상 중에 마시던 맛과 꼭 같았습니다.

나는 에덴성회에서 축복한 물이 몇 해가 지나도 썩지 않는 생수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에덴성회로 인도하려고 주님이 지긋지긋하게 이틀씩이나 끌고

다녔대요. 잘못했으면 사흘을 끌고 다니려고 했는데, 제가 마음을 빨리 돌려 이틀로 끝내줬대요.”

하고는 마음이 평화롭고,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나는 시어머니와 임 집사에게 내 팔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찬송가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와 임 집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의 영상 중에 ‘끝을 못 맺겠다. 끝 자가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빠들과 식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과 셋째 오빠가 전도하는 모습과 기뻐 감격하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마무리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영상 중에 본 그대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날 모두가 현실로 돌아와 형제들이 모이는 끝 장면이 의혹으로 남았습니다. ‘어디 이것까지 현실과 맞나, 한 번 지켜봐야지.’ 하면서 나는 탈진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셋째 오빠가 내가 있는 방에 들어오더니,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여섯 개나 되는 집에서 오빠는 하필이면 내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와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오빠의 꿈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 “형님” 하고 깨우려고 하자, 나는 말렸습니다. 긴 잠에서 깨어난 오빠는 기분 좋아했습니다.

“오빠! 좋은 꿈 꾸셨지요?” 나는 웃으며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로…” 하고는 계면쩍게 웃으며 거실로 나가더니,
“재, 이제는 괜찮을 게다.” 가볍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는 아침 여섯시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지긋지긋한 악몽 같은 시달림 속에서 벗어나 기분이 씻은 듯이 개운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고통이 이틀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는 혼돈의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살피주시고, 저를 이 고통에서 풀어 주소서!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처럼, 저도 그 약속대로 에덴성회에 나갈 것이니, 저를 지켜주소서.”

나는 오전 내내 떨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집안이 평온해졌으며, 오빠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기저기를 끌려 다니다가 험상궂은 여우같은 짐승이 덤벼들기에 큰 돌로 내리쳤더니 피를 흘리면서 혼비백산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신과 악신이 이틀을 서로 싸우다 내가 성신 쪽으로 돌아서자 마귀가 힘에 겨워 도망간 것을 뜻합니다. 11시가 되자 에덴성회 도봉지회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는 찬송 363장을 부르

며 많이 울었습니다. 나의 무례하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먹지 못했으나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3시간 동안이나, 이틀간 신에게 끌려 다닌 경위에 대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계속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과 오빠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친 상태였다면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때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열성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실로 오랜만에 향취를 맡았습니다. 백합화같이 향기로운 향취 말입니다. 신앙촌에서 예배 시간에 많이 맡았던 바로 그 향취였습니다.

오후 늦게야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 믿는 두 올케와 형부까지도, 올케들과 형부는 멀쩡한 나를 보고, 이틀 동안 신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형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환상 속 영상 중에 셋째 오빠가 전도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꾸 오빠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빠는 처음에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넘는 긴 세월을 전도관을 비판하고 신까지 모독하며, 술, 담배를 하다가, 갑자기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제와 그제의 일을 들어 전도하려고 하니, 이상하고 쑥스러웠겠지요. 나는 영상 중에 보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찬송가를 불러야 끝이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냉수 잡숫고 싶지요?”

나는 몰래 생수를 마시도록 유도하여 한 컵을 드렸습니다.

긴 토론 끝에 드디어 오빠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대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내 옆에서 지켜본 소감, 신의 존재 등 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형제들은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셋째 오빠의 인도 아래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고, 녹음테이프의 설교도 들어보고, 할렐루야까지 외치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실로 신기하게도 내가 본 영상대로 기가 막히게 맞아들였습니다.

그 후 며칠 사이로 영상 중에 보았던 사람들이 다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극작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각본을 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처지와 여건에 맞추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중한 산 증거이기에, 사랑하는 형제들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처음에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임하시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그 후로는 정신이 아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이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누구나 종교인이면, 아니 비단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생각해 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모태부터 믿어 온 나 역시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심령과학이 발달하여 영과 육이 분리되는 사진까지 찍는 시대이고, 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종교의 힘으로 고치는 불가사의한 일로 현대인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은 부

인할 수 없는 진리인양, 반증을 펼 수 없는 수학의 공리인양,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의심 없이 그냥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때는 한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악신이 들린 무당을 볼 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종교인들을 볼 때에는 믿어지다가도, 현실적으로는 이성으로만 긍정하고 싶었습니다.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신의 이끌림을 당하고 보니,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웬만큼 이끌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너무나 두렵고 생생하게 끌려 다니고 보니, 과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영상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영상이 보이고, 귀를 막아도 음성이 들리고, 문을 닫아 놓아도 신은 들어오십니다. 가끔 총회장님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이상 중에 보신 말씀을 전하실 때,

“이것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도 동감입니다. 신을 실제로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타의에 의해 에텐성회로 끌려 나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나오지 않으면 다시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라도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다녔습니다.

내가 이유 없이 미워했고, 멸시했던 에덴성회 교주 이영수란 사람 밑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본다는 생각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자존심과 창피를 무릅쓰고 에덴성회에 나가는 것은 환상에서의 신의 손길이 너무도 정확하고 두렵기 때문이었으며, 내키지 않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가 처음 에덴성회에 나오던 날, 나는 이영수 총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신병원 문 앞에서 환상 중에 나를 보고 의미 있는 미소를 지어 보이던 그 잘생긴 남자가 바로 이영수 총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이유 없이 욕하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찬송도 하지 않고 2층 맨 앞자리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다니던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 문에만 들어서면 향취가 확 풍겨왔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뜨거움은 조금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곳이 싫었고, 타의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 나왔다는 억울함(?)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전도관의 후속 신앙, 이 한마디 말로만으로도 에덴성회가 싫은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나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6일을 출근하고 일요일마저 교회에 빼앗기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나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에덴성회에 나온 지 그럭저럭 1년이 지나니, 두려움도 조금씩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겁을 먹고 여기를 다니는 것이 아닐까?”

간사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괴로운 나날이 계속 되고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혼성성가대가 발족되던 날 총회장님께서,
“조 선생, 성가를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성가대원으로 참여하여, 하다가 빠지다가 하며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
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 장로님과 도봉지회 성회장님을 뵙자고 하여
다방에서 무려 5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에덴성회에 다녔으니 몇 년 쉬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로는 절대 가지 않고 꼭 다시 이리로 나올게요.”

나는 두 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나를 잘 설득하시며,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
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나는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 일곱
권을 다 읽었는데, 조용한 시간이면 학교에서도 계속 읽었습니다.
자세한 성경의 풀이가 납득이 가고, 점차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
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질문도 많
이 했고, 이 역사도 전도관처럼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내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로와는 달리, 폭넓게 잘못을 거듭 용서하시

면서 자상하게 이끌어 가시는 총회장님의 인격적인 면과 숨김없이 솔직하고 소탈하신 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믿음직한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 등, 모든 것이 확실한 신의 섭리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주의 종 이긴자 감람나무 이영수 총회장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정성을 다해 충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Chapter 22.

장로 성낙원



성낙원: 1939년생. 1954년 일반 교회를 다니다 박태선 장로 부흥회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전도관에 적을 두었다. 청주전도관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고, 평신도로 있다가 박 장로의 오해로 제명되어 전도관을 떠났다. 1983년 전도를 받고 에덴성회에 적을 두게 되었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1954년 철없이 날뛰던 학창 시절에 친구의 권유로 장난삼아 교회(장로교)의 문을 두드렸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아버님은 “예수도 부지런해야 믿지, 게으른 사람은 못 믿는 법입니다. 너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애초에 그만두어

라.” 하시면서 새벽마다 교회의 종소리만 나면 나를 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가기 싫어도 쫓대 없는 놈이라고 책망을 받을까봐 억지로 교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우리 교회(청주 외덕교회)에서 박태선 장로님을 모시고 일주일간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집회에 참석하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생전 처음으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멋모르고 쫓아다니던 장난기 어린 신앙 속에 주의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시니, 이제부터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의와 각오로 열심히 교회에 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새벽기도가 끝나면 도립병원 환자 위문(학생회 주최로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입원환자를 위로해 주었음)으로 시작해서, 학생회 임원, 주일학교 반사, 성가대, 노방 전도도 하고, 심지어 주일날 오후에는 시골 개척교회 주일학교 예배 인도까지 자청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굶기가 일쑤이면서도, 마음속엔 기쁨이 용솟음쳐서 그저 감사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예수를 믿으면 나쁜 짓 안 하고 부지런히 공부도 더 잘할 줄로 알고 은근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도와주시던 아버님

께서 핍박을 하셨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뒷전이고 예수에 미쳐서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것도 못마땅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내 위로 7남매를 잃고 노년에 얻은 귀염동이 3대 독자가 조상의 제사조차 드리지 않겠다고 나서니, 아버님의 노여움은 극에 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위협도 하시다가 나중에는 심한 매질도 하셨는데,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 집안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너 같은 놈은 자식으로 인정치 않겠노라.”는 선언을 하시게 되고, 매일같이 술로 화를 달래시다가 끝내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으나, 남의 집 가정교사, 상점의 점원 노릇을 해가면서도 주의 일에는 더욱더 열을 올려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국 기독교연합회의 성명의 여파는 청주에까지 밀어닥쳐, 충북 노회에서도 “박 장로는 이단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니, 한창 은혜 받고 기뻐하던 교인들은 당황하게 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인들까지도 은혜파와 노회파,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눈치파로 3분되어, 은혜롭던 교회는 모이면 싸움이요, 큰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박 장로님을 지지하는 몇몇 식구들이 정든 교회를 박차고 나와, 이 집 저 집으로 쫓겨 다니며 예배를 보기 시작한 것이 청주전도관의 탄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안 믿는 부모들은 물론이요, 엇그제까지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하던 교인들까지도 이제는 원수가 되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 속에서 처녀들은 부모 몰래, 장만해 두었던 혼
숫감과 패물들을 모아 팔아서 청주시 우암동 대마공장(지금은 청
주방직) 옆에 낡은 20여 평의 초가집을 사서, 벽을 헐어 내고 가
마니를 깔고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던 날, ‘높은 산
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나 하늘나라’(479장) 찬송을 눈물로 목이 터져라고 부를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은 마치 하늘에라도 오를 듯했습니다. 청주전도관이
개관 날짜를 정하고 박 장로님의 허락을 받고자 고등학생인 내가
서울 원효로에 있는 장로님 덕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이만제단을 짓기 전이어서, 원효로 공장 2층에서 예배
를 보았는데, 청주에 와 주실 것을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의 말씀이
“남산집회, 한강집회, 운동장집회 등 집회 때마다 수만 명씩 모여 부흥회
를 하던 박 장로가 이제 다 찌그러진 초가집에서 집회를 하면 세상 사람들
의 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께도 덕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곳을 마련해 보
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주에서는 오실 줄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
는데, 못 오신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울며불며 청주의 딱한 사
정을 말씀드리니, 난처한 얼굴로 계시다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
습니다. 그래서 1956년 예정된 날짜에 주의 종을 모시고 은혜의
창과 속에서 개관 집회를 마치자, 시내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강경한 반대와 만류를 뿌리치고 은혜 받은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
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단이 차고 넘쳐서, 우암산 중턱에 터를 사서, 청

주 시내 어느 교회보다 큰 제단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공사장으로 먼저 뛰어왔고, 직장인은 퇴근 후에, 어른으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일을 거들었습니다. 밤이면 횃불을 밝혀 놓고 산비탈을 깎아 개미역사로 터를 닦았으나, 올라가는 길이 좁아서 자재를 차로 실어오지 못하여 교인들의 힘으로 500여 미터나 되는 산비탈 좁은 길을 시멘트 한 포대, 벽돌 한 장, 모래 한 알까지 등짐으로 저 올렸습니다. 손이 부르르고 어깨가 벗겨져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한 장 한 장의 벽돌이 쌓여서 마침내 청주 시내 어디서 보아도 우뚝 솟은, 자랑스럽고 거대한 제단을 이루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 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목숨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신념으로, 다니던 학교도 중단하고 제단 일에만 전념하다가,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청주 지방 순회전도사로서 하루에도 수십 리씩 걸어서 전임 전도사조차 모시지 못하는 약한 전도관을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 사업을 하다가, 4.19혁명 이후 군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하고 제대하여, 윤영수 관장님 밑에서 청주전도관 전도사로 복직했습니다. 당시에 청주 제단은 윤 관장님이 10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하면서 관장을 겸하고 있었으나, 어느 날 지방 순회차 청주에 오신 박 장로님께서 윤 관장에게 대학 교수와 관장 중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므로, 윤 관장님은 사임을 했습니다.

후임에 박재흥 관장님이 부임해 오면서 나도 사표를 내고, 윤 관장은 장로로서 나는 집사로서 청주 제단에서 나름대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은혜가 끊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 교인들은 전임 관장파와 후임 관장파로 양분되어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싹터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은혜가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주의 역사에 지장이 있겠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박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청주 식구들의 부탁으로 대표가 되어 덕소에 갔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아침에 부산에 내려가시고 부재중이어서 뵙지 못하고, 그냥 내려올 수가 없어서 천부장을 만나 청주의 실정을 대강 말씀드리고 장로님께 잘 말씀드려 주기를 부탁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1967년 8월로 기억되는 어느 날, 청주 식구들에게 특별 선물을 줄 터이니 모두들 올라오라는 장로님의 지시를 박 관장님이 전하기에, 이젠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가 보다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덕소에 올라갔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여 보고를 드리니, 먼저 성낙원 집사, 윤 집사, 이 집사, 세 사람부터 들여보내라는 장로님의 지시에 의해 안찰실에 들어가니, 장로님은 어떠한 잘잘못도 논하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너희 세 사람은 감람나무 역사에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시간부터 가지에서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칭찬벽력과 같은 폭탄선언을 하시므로, 하늘이 내려

앉는 듯한 날벼락을 맞고는, 울며불며, 잘못했으니 그 명령만은 거두어 달라고 애원을 해보았으나, 끝내 경비들에게 끌어내라는 호통만 치실 뿐, 잘라 내는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채 등을 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세계의 소망을 위해서 육적인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다니던 학교조차 집어치우고 오늘까지 충성하느라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제명을 당하니,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나는 절망과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조차 잃은 채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영적으로 비추어 보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따르는 당신의 영적 자녀들이 실수를 저질렀다손 치더라도 타일러서 바로 세워 주실 일이지, 참소하는 무리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잘라 버릴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분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여 따랐는데, 이제 와서 그분의 말씀과 지난 발자취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의심하기 시작하니, 무언가 지금까지 속아서 따라온 것 같은 회의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청주에 돌아와 잘림을 받은 세 사람을 비롯하여 윤 관장이 전도관을 나오게 되니, 60여 명의 식구들이 따라 나와, 윤 관장 자택에 모여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관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주님께는 버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주여, 이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 양떼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윤 관장 덕에서 예배를 몇 달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도관도 일반 교회도 아닌 상태에서 언제까지나 계속 할 수도 없어, 모두가 의논한 끝에 11년 전에 우리가 버리고 나왔던 장로교회 (외덕교회, 지금은 우암교회로 개칭)로 돌아가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암교회로 되돌아가는 날, 저들은 열렬하고 뜨거운 환영을 하며 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으나, 당장에 하늘에라도 오를 듯 의기양양해서 뛰쳐나왔던 우리가 11년 만에 패잔병처럼 힘이 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옛 교회로 되돌아오니, 부끄럽고 쑥스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편안히 예배를 보아도 가마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것보다도 마음이 편치 않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롭지 않으며, 기도를 해도 마음은 답답하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으니,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점점 없어져, 나는 당분간 쉬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대로 다니게 두고, 나 혼자만 떨어져 사회에 나와 보니, 학생 시절부터 하나님과 주님, 감람나무 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 모든 소망 줄이 끊어져, 자연스럽게 의지할 곳이 없어 허무감과 허탈감으로 술과 담배를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세속에 물들어가며 방황하는 중에 낚시에 취미를 붙이게 되어, 시간만 나면 호수로, 강으로, 바다로 나서게 되고, 신앙과는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어쩌다 술이 얼큰하여 집에 돌아와 보면 집사람이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듣다가는 옛날의 은혜 받던 그 시절이 그리

워서 나도 모르게 찬송을 따라 부르다가,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되었나?’ 싶어, 하염없이 눈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사람은 옳다, 때가 왔구나 싶어, “여보, 이제 당신도 그만 쉬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갑시다.” 하고,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아빠, 우리도 주일날 같이 교회에 나가.” 하면서 보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빠가 지금은 방학 중이라 쉬고 있지만, 다음에 개학을 하면 나갈 테니, 지금은 너희들이나 열심히 다녀.”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개학하는데?”, “아빠 방학은 왜 그렇게 길어?” 하던 것이 장장 16년. 그토록 가족들과 목사님이 새벽기도마다 빼놓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기도해 주었는데도 돌아설 마음이 없었는데, 1983년 4월 어느 날, 국민학교 때부터 이웃에 살면서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전도관에도 같이 다녔던 김상순 집사에게서 저녁에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에 많이 마신 술기운도 아직 가지지 않은데다 피곤하기도 했지만,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자는 전화이고 해서 약속한 다방에 나갔습니다. 김 집사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하는데, 옛날 천안전도관 전도사였다면서 인사를 하고 보니, 박상석 성회장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반갑지 않은 사람이고 해서 건성으로 몇 마디 대답을 하고, 김 집사의 체면상 5월 1일 서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별로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안 갈 수도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어디서 들었는지,

“여보, 당신 오늘 가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나 있는 거요?” 하고 묻기에 “몰라. 나도 술김에 약속을 해서 안 갈 수도 없으니 오늘만 다녀올게.” 하니까, “서울에 가더라도 정신 바짝 차려요. 거기가 에덴성회라는 이 감람나무가 있다는 곳이라니까, 내려올 때 그 사람들(박 성회장과 김 집사)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딱 잘라서 거절하고 오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 감람나무?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군.” 하면서 약속한 장소에서 에덴성회 미니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면서도 ‘공연한 약속을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하면서 천안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운전기사(신경희 집사)가 자기소개를 하고는, “이 역사가 틀림없는 두 번째 감람나무 역사이니만치,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기에, 집사람의 말이 틀림없구나 싶어, 한 번은 속았지만 절대로 두 번은 속지 않는다고 다짐을 하면서 서울에 도착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단에 들어가 보니 예배가 시작되어,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의 이만제단이나 오만제단에서와 같이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단에서 설교하는 분을 보니, 나이는 젊어 보이지만, 옛날의 장로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고, 목소리까지도 닮아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별 것을 다 흥내 내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주의 깊게 설교를 들어보니, 내용이 옛날 전도관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인데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

은 도저히 흉내나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에 여기에는 뭔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절대로 다시 속으면 안 된다는 마음의 갈등이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 동요를 누르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 성회장에게 이끌려 들어가 안찰을 받았습니다. 옛날 장로님께는 수없이 받았어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어찌나 아픈지, 나는 한참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다시는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했느냐, 하고 눈치를 보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니,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좀 더 알아보아야겠어.” 하고 대답하니 “이 양반, 또 넘어간 모양이군.” 하면서 은근히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힘에 이끌리듯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를 보고,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서울로 예배를 보러 다니게 되고, 날이 갈수록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 들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선 전도관 역사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컸기에, 다시는 속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과 의식적인 거부감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현재의 자유로운 생활을 지속해 나가느냐, 하는 기로에서 고민과 갈등 속에, 차라리 이 역사가 진리가 아닌 거짓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 16년 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성경책을 꺼내어 성경구절을 찾아가며 설교 말씀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전도관에서 깨닫지

못했던, 가려진 새로운 말씀들이 한 겹, 두 겹 껍질이 벗겨지며 분명하게 풀려지니, 도저히 부인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현재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 역사를 따르기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술, 담배 먹으며 살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어찌다가 잘못 걸려들어 호랑이 꼬리를 잡은 신세가 되었으니,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잡고 끝까지 따라가기도 어려워, 혼자서 남모르게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사람의 눈치를 살펴보니, 내가 서울에 가는 것도 반대하지 않고, 설교집과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찾아오는 김 집사와 박 성회장을 대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느끼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얼마 지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

집사람은 그동안 16년이나 하나님을 떠났던 남편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잘못 들어갈까 걱정이 되어, 나를 못 나가게 할 구실을 찾으려고, 내가 출근하고 없을 때 몰래 설교집을 읽고 녹음테이프를 듣다가는 감동을 받아 정신없이 빠져 들어가면서도 내게는 내색을 하지 않고, 도리어 내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1983년 6월 12일 주일날, 온 가족이 서울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심을 굳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길고 긴 방학에서의 개혁, 그것도 앞선 첫 번째 감람나무 역사에서 잘림을 받고 상

처를 받아 굳게굳게 걸었던 어두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번째 이어지는 감람나무의 역사 가운데 들어올 때, 나에게 새 소망의 참 빛을 비추어 주시니, 뿔속 깊은 곳으로부터 지난 16년의 세월 속에서 더러워지고 응어리졌던 그 모든 죄악들이 쏟아져 나와 통회의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와 같은 누추한 인생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소망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내 생명의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5월 1일, 처음 몇 사람이 반신반의 속에 서울 예배에 참석하던 것이 6월 12일에는 청주 방송국 밑에 전세 계약을 하고, 7월 14일에는 제2의 감람나무 역사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에덴성회 청주교회의 개회예배를 성대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 감람나무 역사에서 청주 제단(전도관)을 시작할 때, 까까머리 고등학생으로서 미약한 힘이나마 온 정성을 다해 봉사하게 해주시고, 27년이 지나 두 번째 이어지는 감람나무 역사에서의 청주 제단(에덴성회)이 세워질 때 또다시 작은 힘이나마 주의 역사를 위해 기울여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1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관절에 이상이 생겨, 왼쪽 무릎에서 피 섞인 물을 빼내고 통통 부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 이상이

나 매일 치료를 받고, 경과를 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1주일 정도 병원에 다니고는 부은 것이 가라앉기에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보니 다시 무릎이 쭈시고 아파, 어디 가서 무릎을 꿇기는커녕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에덴성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 어느 새 나았는지도 모르게 씻은 듯이 나아서, 몇 시간씩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도 통증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얼룩졌던 지난날, 다시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난날의 악몽과 같은 세월 속에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예복을 한 겹, 한 겹 벗어 버리고, 이긴자의 손길을 통하여 샘물과 같이 넘쳐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날이 갈수록 새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잃었던 소망을 다시 찾았고, 끊어졌던 은혜가 다시 연결되어, 길을 가다가도, 직장에서도, 잠을 자다가 깨어도, 생각하면 이 은혜가 꿈인지 생시인지 싶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그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이 기쁨! 이 평안!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가 되고,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남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목숨 다 바쳐서, 앞선 역사에서도 다하지 못했던 충성을 두 번째 마무리 짓는 역사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요, 이 길만이 주님 앞에 보답하는 길이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길인 것을 확신합니다.

Chapter 23.

원로성회장 송원익



송원익: 1938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1955년 부친을 따라 박태선 장로를 따랐다. 은혜를 체험하고 특별전도대로 활동하였으나, 1980년 박 장로의 변절을 보고 전도관을 떠났다. 1984년 전도를 받아 에덴성회에 몸담고 목회를 하였고, 2005년 퇴임했다.

출처: 간증담 2권(1987년)

나는 모태로부터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부친께서 27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1973년 9월 소사신양촌에서 83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부친의 신앙은 그 어느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사신양촌 분들은 실 장사 할아버지, 또는 실 장사 장로님 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줄 압

니다. 별세하시기 약 4개월 전까지도 주일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실 집을 등에 지고 다니시던 분입니다. 때로는 거리에서나 신앙촌 안에서 50, 60세 되신 노인들이 어울려 소일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저렇게 멀쩡한 몸뚱이를 가지고 빈둥빈둥 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도리어 주님 앞에 범죄라고 말씀하시던 분입니다. 육신이 성할 때에 부지런히 벌어서 주님께도 충성해야 된다는 그분의 신조를 나는 어려서부터 익히 듣고 배워 왔습니다.

6.25 이전, 이북 공산 치하에서도 주일이면 점포 문을 닫고 주일을 지켰으며, 특히 십일조에 대하여는 너무도 철두철미하셨던 분입니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십일조를 떼는데, 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그날의 매상고 전액의 3할을 무조건 이익금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십분의 일을 따로 모아서, 한 달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6.25 이후, 그러니까 1951년 5월경, 강원도 철원에서 저희 식구들은 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최종 정착지가 경남 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산에서는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문창교회에 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려파로 인한 교회 분규는 이곳 문창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주일이면 양 파의 목사들이 윗단과 아랫단에서 각기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편이 기도하

면 한편은 찬송하고, 교인들은 자기편에 맞추어서 예배를 보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청년들이 단상으로 올라가서 목사를 끌어내리면, 또 다른 단상의 목사도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예배가 매 주일 지속되었습니다. 때문에 부친께서는 몇 명의 피난민 교우들과 협의하여 추산동 피난민 촌락에 약 30여 평의 교회를 세워 남산교회라고 부르고,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955년, 서울 환도와 함께 상경하여 한양공고에 다니던 때였습니다. 12월 겨울방학 때 집에 내려가 보니, 부모님과 형님 내외분들이 남산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예배를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일요일인데, 부친께서는 예배 보러 같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매월 첫 월요일에 마산에 오시는데, 무조건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친이 가자고 하는데 뿌리칠 수도 없고 해서 따라나섰습니다. 가보니 그곳은 자산동인데, 술도가(양주장)를 하던 집 2층을 세로 얻어서 임시로 예배를 보고 있었고, ‘전도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하튼 들어가 보았습니다.

약 200여 명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찌나 손뼉을 열심히 치면서 부르는지, 뒤에서 보니 궁둥이들이 들썩들썩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우습기도 하고 민망스러워서, 맨 뒤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키가 훗칠하게 크신 분이 단상에 서시더니,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휴우’ 하면서 기운을 부

는데, 모두들 열심히 기도들을 하더군요. 나는 도리어 눈을 부릅 뜨고 쏘아보았습니다. 그 후 무려 30여 분 동안 열렬히 찬송을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첫마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아니다. 못 하시는 일이 있다.” 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언변은 그 어느 목사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외침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니 어느 장로님 집에서 안찰을 한다면서 나보고 안찰을 받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따라갔습니다.

줄들을 서서 차례로 안찰을 받는데, 받는 사람마다 “아이쿠!” 소리를 연발하고, 네 사람이나 팔다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도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미 방에 들어섰고, 뒤는 줄을 선 사람으로 막혀 버렸으니, 할 수 없이 ‘나 죽이시오.’ 하는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뱃가죽을 인두로 지지는 것 같은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 이 혈기, 이거 다 빠져야 돼.”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와 보니 이만 제단 자리에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보더군요. 나는 가뭇에 콩 나듯 가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 4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덧 한양공고를 졸업하고, 한양공대 2학년의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직후였습니다. 이만 제단이 거의 완공되고, 종각에 발판을 쳐놓

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던 때였습니다. 제2의 전국 전도관 체육대회 겸 부흥집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친께서 상경하셔서 내 자취방에 머무시면서 집회에 참석하시니, 나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였습니다.

집회 마지막 새벽이었습니다. 2층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 이미 장로님은 단상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로 새벽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태풍 같은 큰바람이 나의 온몸을 감싸면서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송곳 같은 바람이 귓속을 파고드는데, 몸서리쳐지는 그런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쌩’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 모든 바람이 사라지더군요. 동시에 귓속을 파고드는 장로님의 음성에 왠지 눈물을 펴펴 쏟았는데,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장로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후’ 하고 기운을 부는데, 웬 안개가 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온 제단을 감싸 버리더군요. 여하튼 그 아침은 나의 인생관을 바꾸어 놓은 새벽이었습니다. 차돌보다 더 굳었던 마음이 녹아졌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동댕이쳐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학교도 친구도 다 등지고, 이만 제단에서 침식하면서 장로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전도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 고 학생 청년들을 합쳐서 특전대(특별전도대)에 가입한 수가 무려 2, 3백 명에 달했습니다. 각 구역을 나누고 또 각 조

를 편성하여, 기성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을 상대하여 감람나무의 출현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그때의 그 모든 신앙 동지들은 지금은 어느 곳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글을 본다면 가히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그 해 10월, 소사신양촌이 건설되면서, 나는 충남 아산군 둔포 전도관 초대 전도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21세였습니다. 이듬해 흙벽돌 만여 장을 찍어 40여 평의 전도관을 지어 개관 예배를 보고는, 또 다시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 지금의 천호동전도관 개척에 나섰습니다.

당시에 사진관을 경영하던 하상봉 권사가 땅을 사고, 전도 자금을 도와주었습니다. 24인용 천막을 쳐놓고, 우리는 숯불에 부채질을 하면서 거리낌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맘이 편하다.’ 지금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때의 그 신앙이 그리워집니다.

장로님이 1차 옥중에서 출옥하신 후, 오만 제단에서 부흥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나에게 소사 특전대 대장을 맡으라고 하시기에 순종했습니다. 앞뒤로 마이크가 달린 특전대 전용 차에 영사기, 14인조 밴드를 갖추어,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모든 곳의 전도관을 순회(경상도와 전라남도는 제외)하면서, 낮에는 밴드대의 노방 전도와 저녁에는 영화 상영으로, 그 당시 신앙촌과 전도관 그리고 박태선 장로에 대한 좋지 못했던 이미지를 바꾸어,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좋은 순회공연이었습니다. 특히 전북 전주에

서는 경찰차의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시가행진을 하며 마이크 방송으로 전도하였으며, 저녁에 공설운동장에서는 운동장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대성황이었습니다.

현재 본 성회 운영위원장인 최병식 장로가 그 당시 속초전도관에서 시무하셨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는 너무도 잘 아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의기양양했던 감람나무의 역사가 어쩌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1980년의 성탄절이야말로 너무도 한 맺힌 절기였습니다. 예수가 마귀, 아니 마귀대장이 되고 말았으니, 성탄절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한 별로 박 장로님 본인이 피를 토하는 오만가지 병에 걸려 별스러운 약을 다 구해 복용하는 처지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주장과 악한 일들의 연속이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981년 3월 이리전도관 관장을 마지막으로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인천시 주안동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믿었던 감람나무의 역사가 변하여도 너무도 어이없이 추잡하게 변하여 버렸으니, 하늘도 땅도 맞부딪쳐 뭉개진들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 어이된 일입니까!” 가슴속의 공허함, 지나온 나날들의 후회스러움, 앞날의 생활에 대한

너무나 큰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을 엮매인 좌절감은 도저히 견디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영육 간에 처해진 현실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초췌한 모습이 저주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 20여 년을 멀리했던 술, 그리고 담배! 몇몇 타락한 교역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술잔은 전도관 역사의 패잔병들이 나누는 썩잔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하나의 회사를 세워 운영해 보아도, 될 것 같으면서도 깨지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도를 막으려고 빌린 돈들이 빚으로 남아, 느는 것이 빚이요, 한숨이요, 마시느니 술뿐, 잦아지는 외박에 짜증내는 아내, 안과 밖으로 쌓이는 것은 고독과 환멸과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죽어 버리자. 이왕 죽을 바에는 빛이나 갚도록 보험이나 들자.”

그래서 3000만 원짜리 VIP 보험을 연간 불입액 10여 만 원을 지불하고는, 전차나 버스를 탈 때마다 ‘부딪치면 끝이 나는데’,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나날들이야말로 죽음 바로 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마 1982년 10월경이었습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하천석 선교원장을 만났습니다. 10여 년 만에 정말 우연히 만난 것입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근처의 다방으로 갔습니다. 물론 나는 저분이 소위 이영수 패에 갔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중앙에서 존경했던 관장님이었기에 지금에 와서 그런 것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최병식 장로도 왔습니다.

원체 예전부터 절친했던 관계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았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감람나무의 역사가 무너진 마당에, 또 다른 무슨 나무 운운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기약도 없이 한 잔 커피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1984년 4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사업마저 망개졌습니다. 나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7, 8개월째 다니던 주안 장로교회 구역장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마음에 결심만 하면 뒷받침이 되어 주겠다면서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유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준비 겸 기도를 위해 기도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간 기도원은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그곳에서 나와 친구 목사가 알려 주는 대로 한얼산 기도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나는 마장동 터미널에 가기 위해 제 기동에 내렸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 원장, 그리고 최 장로, 정 간사, 이분들의 그 간곡한 권유가 가슴에 떠오르며, “한 번 가보자. 이 근처라지?”

그래서 물어 물어 찾은 곳은 에덴성회, 나는 제단 바로 앞 어린

이 놀이터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는 분들이 반겨 주더군요. 특히 하 원장님의 반가워하는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예배의 모습은 초창기 전도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애절하고 갈망하고 희열에 찬 찬송가 소리, 단에 선 총회장님은 어쩌면 그렇게도 장로님과 같은지, 음성도, 제스처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흥내를 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사가 도리어 서먹서먹하기만 했습니다. 점심도 후히 대접받았습니다. 하 원장님께 솔직한 예배의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얼산 기도원을 찾아가는 중인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나에게 금식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통비까지 보태 주셨습니다.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그의 정성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기도원을 향해 산길을 돌아 올라가면서 나는 무수한 감상에 젖었습니다. 역곡의 조희성도 만나 보았습니다. 장로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자기는 무슨 주님이라고? 참으로 웃을 수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천국 보장 운운하는 것이 대화의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김순린, 그들이 사들인 9중앙에도 가보았습니다. 한참 수리중이더군요. 나를 안내하던 이 목사란 자의 말이, 단상을 바짝 밑으로 내려놓은 것은, 박 장로와 달리 김순린 종은 교만하지 않아서 단을 낮추었다나요.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장로가 교만해서 단상이 높아진 것이 아니고, 2층의 교인

들을 위해 부득이한 처사라고, 아래층에 사람이 차서 2층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때는 어쩔 테냐고 힐문했더니 무안해하더군요. 여하튼 상대 못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성회의 모든 것이 지난날의 전도관과 너무도 같아서, 잃어버렸던 그 무엇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기도원 정문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나는 정문에서 접수증을 받아들고 숙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여러 생각들이 가슴을 매우더군요.

드디어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원 주인 이천석 목사는 미국에 가고, 그의 젊은 며느리가 설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성경을 읽고는 교인들에게 “물의 성령이 무엇인지 아는가?”라고 묻자, 교인들이 대답하기를 “몰라요.” 하니, 그 여인 왈, “물의 성령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물세례 주는 것, 그것이 물성신이랍니다.” 하는 데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왜 여기 왔던가, 하고 한없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후 통성 기도를 시키더군요. 나는 평생 보지 못했던 괴이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막말로 지랄발광 그것이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좌우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등등을 외치며 날뛰는 꼴들은 정말 무당 굿놀이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기도해야 하겠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감람나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고 변질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많은 죄를 범하였

습니다.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저의 갈 길을 명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하여 10여 차례 기도하고 나니, 통성 기도가 끝나더군요.

숙소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더 있어 봤자 별 볼 일 없기에, 날이 밝는 대로 나는 하산하기로 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도저히 하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루를 더 지내고, 날이 밝자마자 하산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마장동에 도착하자 문득 하 원장님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침 전화를 받으시고 무척 반가워하시면서 곧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에서 만나기로 하고 찾아갔습니다.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총회장님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따졌습니다. 여러 모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었던 몇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꽤히 승낙하고 즉시 전화를 걸어 김 모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의 솔직하고 조리 있는 답변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점이 해소되었습니다. 하 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에 꼭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안 장로교회 목사와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 말씀이, 오늘 저녁에 총회장님이 서울에 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감람나무에 관한 말씀과 앞선 역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시

는데,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체면 불구하고 눈물을 닦고 또 닦아냈습니다. 가슴이 격해지고 어깨가 들먹여질 정도로 흐느껴 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날의 눈물을 그릇에 담는다면 한 되는 족히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 원장님께서 집으로 가서 같이 자고 새벽기도 까지 참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따랐습니다. 지금도 하 원장님의 그때의 그 사랑,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그 따사로운 정성이 아니었던들, 결코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집회보다 더 격렬한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더군요. “저분이 분명히 제2의 감람나무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목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이 역사에 몸담아야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 자청해서 총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단상 밑 회의실에서 총회장님의 손을 잡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회장님, 무조건 돕고 따르겠습니다.”

그 후 나는 모든 것 제쳐놓고 총회장님의 집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마침 수원 농장이 시작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2개월 쯤 접어들면서 나의 마음 속에 분명한 감람나무 체계가 심어짐을 느꼈습니다. 총회장님이 야말로 분명한 감람나무이며 이긴자로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의

깊고 오묘한 섭리의 주역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호랑이 꼬리를 잡았구나.’ 싶어서, 몹시 기쁘면서도 다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에덴성회 개회 10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은 이 너무도 벅찬 기쁨을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는 마음에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많은 관장들, 그리고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뜻과 같이 잘 받아주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몇몇 분들은 나의 진심의 소리를 받아주어, 지금 같은 소망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제1의 감람나무를 열의를 다해 증거한 것처럼, 제2의 감람나무 역사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증거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감람나무 가지들에게 이 귀한 새 소망을 전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12월 25일 성탄절을 기해서 전남 광주성회장을 하라는 특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겨우 8개월이 된 이 어린것에게 너무도 중한 사명을 맡겨 주시니,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그 명령을 준행할 것을 결심하고, 지금 이곳 광주에서 앞선 역사에 몸담아 충성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제2의 감람나무의 역사를 전해 주려고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힘이 드는군요. 하지만 내가 이 역사를 바로 깨닫기까지 너무도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외면하는 것, 안 듣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사랑으로 인

내로 너그러움으로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 하천석 선교원장님을 본받아, 기필코 저들에게 이 복된 길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84년 1월 3일, 저의 모친 사망 때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으로 이 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모친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은 1월 3일 부천교회에서 장년회 정기회의 때에 전해 들었습니다. 놀라웠지만 감사했습니다. 모친께서 비록 소사신양촌에 살고는 있지만, 예수를 마귀라고 칠 때부터 이미 마음은 장로님께로부터 떠났으며, 예수님의 사진들을 태울 때에 이웃집 사진을 모아 보관하신 분입니다.

총회장님을 알고부터는 총회장님 사진을 가슴속에 품고 기뻐하시던 분입니다. 총회장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니, 생수를 특별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소사신양촌의 관장, 특히 부관장은 친구같이, 형제같이 지내던 사이인지라, 모든 절차가 몹시 난처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장례 절차를 자기들에게 일임해 주기를 간청했지만,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친의 구원 문제이니깐요. 그래서 입관예배는 보지 않기로 타협했습니다.

4일 입관 때, 찬송도 부르지 못하여 우진영 장로님의 주관 하에 입관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데, 시신이 생수를 바르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수많은 시신을 다루어 보았지만, 생수를 바르고 몇 시간 찬송을 땀 흘리며 불러야 겨우 변하던 것을 우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친은 찬송도 부르지 못하는 가운데, 88세 된 노인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다니, 이것은 분명히 앞선 역사보다 제2의 역사가 더욱 모든 면에 강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5일 아침 11시, 약간의 시비는 있었지만, 모친으로서는 너무도 과분한 발인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수고해 주신 부천교회 부인회장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날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과 축복해 주신 총회장님께 이 지면을 통해 재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주리니…”(계11:3) 감람나무는 하나가 아니요, 분명 둘일진대, 앞선 감람나무도, 현재 우리의 감람나무도 분명 주님께서 기름 부어 들어 쓰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 모든 감람나무 가지들은 감사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역사가 비록 곁길로 나갔으나, 제2의 역사가 이렇게 수보하고 있을진대, 우리 모두는 힘을 합하여 기필코 감람나무의 역사를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은혜나, 축복하시는 생수도, 또한 안찰하시는 것도 앞선 종과 조금도 다름이 없음은, 앞선 종을 쓰시던 그 주님이 지금의 감람나무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니, 어찌 부인하며 거역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던 전국, 아니 전 세계의 모든 형제들! 씨를 뿌리는 시대는 지나고, 거두는 종께서 이렇게 역사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 제2의 감람나무의 역사를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과 만천하 앞에 이 송원익은 두 손 들어 증언하며, 거짓 없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Chapter 24.

집사 이선순



이선순: 1961년생. 동생의 전도로 1984년부터 에덴성회에 나왔다.

출처: 월간에덴 5호(2006년 1월)

저는 동생(이점숙 사모)의 전도로 1984년 6월부터 에덴성회에 나왔습니다. 현재 성남성회 사모로 있는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님의 병환으로 집안 형편이 안 좋았는데, 아버님의 병환을 낮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던 차에, 병을 낮게 할 수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동생이 먼저 에덴성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유교사상이 깊으신 분이어서, 임자 없는 제사까지도 지내주셨을 정도로 유교에 심취하셨던 터라, 종교를 선택하기엔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성서적으로 알아보셨나 봅니다. 그 당시에

동생이 송원익 성회장님을 만나 뵙고 전도가 되었고, 그 당시에 저는 서울에 시집을 가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이 예배를 보러 서울에 왔다가, 저를 전도하려고 제 집에 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생소했습니다. 저도 기성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알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시집가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천호동에 광성교회라고, 제 시누이가 여전도회 회장으로 있어서 저도 열심히 다니고 있던 터라, 성서에 대한 깊은 내용은 몰라도,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은 믿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체를 하면서 알아보려고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송원익 성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너무 반대를 하면 벌을 받을 것 같더군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이긴자님이 예사로운 분은 아니다,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일단 알아봐야겠다고 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제단을 나올 때, 제 구역장이 염옥선 집사님이셨고, 박상석 성회장님이 동부성회장님이셨습니다. 예배를 보러 다니면서도 마음에 항상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엄포를 놓는 겁니다. “여기는 100% 정확한 역사고, 내가 받은바 은혜가 확실하다.” 하더군요. 동생은 전도를 막 받고 설교 테이프를 듣는 중에도 향취를 맡는 등, 은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이 그러더군요. “제가 믿어 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확실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

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봐라. 그럼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 제단에 왔을 때는 제가 짓먹이와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있어서, 본 제단에서 예배 보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식당에서 예배를 보는데, TV에 보이는 설교하시는 이긴자님 모습이 주님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눈을 비벼 보기도 했습니다. 예배 보고 난 후 동생한테 “이긴자님이 단상을 치실 때 손이 피 묻은 손 같더라.” 했더니 “언니, 그것은 은혜 체험이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텔레비전 화면으로 체험하느냐 하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서 밖에 나가보곤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게 죄 타는 냄새라고 하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단에 나오면 남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저는 이방인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애를 둘이나 낳아 신앙생활 하는데는 너무나 장애요소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믿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세 달 열심히 나왔을 때, 다음 주에는 축복(눈 안찰)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축복 받기 전에 꿈을 꿉습니다. 꿈 중에 이긴자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저분한 오물을 코로 토해 내는 겁니다. 속으로 ‘아휴, 지저분한 게 나오니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긴자님이 바로 “그래, 그런 건 다 버려야 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시더군요. 그 다음 주에 안찰을 받는데, 너무 감동이오더군요.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지고, 정말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긴자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하는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긴자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있느냐고 김옥녀 집사님께 여쭙봤습니다. 김옥녀 집사님께 여쭙본 이유는, 광주에 내려가서 예배를 보다가 설교 말씀 중에 김옥녀 집사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그런 열심히 하는 멤버들과 신앙생활을 해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접하기까지는 김옥녀 집사님의 영향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전에 못 들었던 말씀이나, 그전에 이긴자님께서 움직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 테이프도 들었지만, 김옥녀 집사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적한 곳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올 당시에 알곡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새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알곡성전의 기초를 막 시작할 때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중요성은 잘 모르지만, 한적한 곳에 새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곳이 바로 거기다, 하셔서 같이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성서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종이라는 것을 주변의 간증에 의해서 깨달았습니다. 앞선 역사에 움직이셨던 분들의 말씀이나, 십 년 전에 이

긴자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어려움을 당하실 것과 언젠가는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측근에 계신 분들을 통해 듣게 되면서, 이분이 정말 그 종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생활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면서, 신앙이 제 마음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병 낫는 그런 기적이야 너무 많고, 누구나 그 정도 체험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들을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안 믿는 남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우리 역사를 인정하고 같이 믿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단 나가는 걸 반대하고, 저는 너무나 가고 싶고, 그런 갈등 속에서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 때가 1992년도였는데, 그때부터 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장이 매우 나빠져서 응급사태까지 갔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수술을 받지 않고 총회장님에게 축복 받고 낫게 되면 주님을 인정하겠느냐?” 남편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서 손을 젓더군요.

신장에 결석이 많이 생기고,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수뇨관 쪽에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안 하면 응급사태가 벌어진다고 겁을 줬지만 이긴자님께 축복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의사한테 일요일을 지내고 결

정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요일에 이긴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병원에서 개복수술을 하지 않아도 체외충격으로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의사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차돌처럼 단단한 돌이어서 레이저로도 안 깨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신장과 방광 사이에 호스를 끼워 놓은 상태로 소변 봉지를 들고 늘 축복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이긴자님을 뵈고 “제가 몇 번 해봤지만,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긴자님께서 “알았다.” 하시면서 잠깐 기도를 하시더니, 배에다 아주 강한 축복을 해주셨는데, 배에서 큰 파도가 휘몰아치더군요.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나면서, 병이 다 나았다는 감사함이 들어 일주일 동안 병원을 안 갔습니다.

월요일에 갔어야 하는데, 일주일 후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조각을 봤냐?”, “아니, 못 봤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거 아닐까요?” 축복을 받고 나았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럼 정밀검사를 처음서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태니까 할 필요 없다 하고 호스를 빼고 퇴원을 했습니다. 2주 만에 퇴원을 하면서 남편한테, 축복 받고 나오면 인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떡할 거냐 했더니, 자기도 두려운 마음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인정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신앙생활이 순탄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

다.

맨 처음엔 제 남편이 심하게 반대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님 사진을 벽에 걸지 못하고 싱크대 문 안쪽에 붙여 놓았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열어 놓고, 평소는 안 보이게 해놓았는데, 남편이 구박하면 물을 세게 틀어 놓고 엉엉 울면서 주님 사진 보고, 이긴자님 사진 보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인정하겠다고 했을 때 사진을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게 걸었습니다.

열심장이들하고 있으려면 열심장이들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옥녀 집사님이 가락시장에서 고생을 하시던 때였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고생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장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집사님하고 떨어져 있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일도 같이 하고, 낮에는 알곡성전에 같이 일하러 다니고, 심방 있을 땐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신앙의 벼를 잘 만났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2별관 휴게실을 오픈할 때부터 중부성회 부인회에서 맡아서 하다시피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멤버에 끼어서 자연스럽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3별관을 개관하면서 휴게실에서 양식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긴자님께서 축복하실 때 음료수를 담당하게 된 것은, 원래 김옥희 씨와 김정숙 씨가 음료수 봉사를 했었

는데, 사실 그 일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손길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준비하는 걸 보면 너무 예쁘고, 부러워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저도 언젠가 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던 때에, 우연히 기회가 왔습니다. 더 잘하실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걱정이 안 되더군요. 육적으로는 당연히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인데, 너무나 태연자약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런 어려운 역경에서도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면서 집에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풀릴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해결이 되고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으로 들어오며 하는 말이 “당신이 기도했지?” 하더군요. “당신이 기도한 걸 내가 알고 있어.” 안 믿는 남편이 그랬을 때, 그 말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울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니,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Chapter 25.

집사 박충기



박충기: 1954년생. 결혼을 하며 가톨릭을 다녔다. 그 후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다 그들의 교리에 모순을 느끼고 있던 중, 에덴성회 교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아 1985년 에덴성회에 적을 두게 되었다.

출처: 월간에덴 9호(2006년 5월)

제 아내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천주교는 같이 안 믿으면 결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명동성당에 다니면서 교리 공부도 하고 영세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구두 뒤축이 떨어져서 고치러 갔는데, 권성달 장로님이

하는 구두수선 집이었습니다. 마침 기다리다가 거기 성경책이 있어서, 권성달 장로님을 골탕 먹이려고 몇 가지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시는데,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본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디 나가시냐고 여쭙봤더니, 에덴성회라고 하는데, 그때는 알곡성전이 없었고, 제기동 제단만 있었습니다. 거기를 꼭 한 번만 나와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14만 4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14만 4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천주교에서는 14만 4천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 후로 성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천주교 안 다니면 이혼하자고까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천주교 다니면서 성경을 좀 배우다가, 우연히 여호와 증인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증인 교인이 정말 참 신앙인 같이 보였습니다. 그 여호와 증인이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분 집에 가서 1년 동안을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 등을 놓고 비교해 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배우면서 가톨릭이 사이비같이 느껴지더군요.

아내에게, 천주교가 참 종교가 아니라고,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당신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 세상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넓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옷을 하나 사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맘에 드는 옷을 고르는데, 하물며 인간이 죽으면 영의 세계에 가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데,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모태신앙을 가지고 무조건 옳

다, 그러다고 생각을 하느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라 했습니다.

아내도 천주교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고, 천주교 물건을 다 갖다 부숴줍니다. 그래서 일가가 다 천주교인인데, 집안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도 나중에 보니까, 영혼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군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면 말이 되나?’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상이니 벌이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모순이 있어 보여서 여호와 증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성달 장로님을 만난 겁니다.

권 장로님으로부터 설교 테이프를 얻어서 아내에게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건넸는데, 아내는 다들 사이비라고 하는 데라고 역정을 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청소하다가, 밀쳐야 본전이라고 테이프를 한번 들었는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내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와, 하면서 당장 카세트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송병호 장로님을 모시고 아내에게 말씀 좀 해주시라고 부탁해서, 송 장로님께서 열흘 동안은 저희 집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아내하고 싸움을 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만 당신 백성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 아니냐고 하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건 하나님 맘 아니냐는 것이었죠.

또 총회장님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모세가 불꽃 속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봤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영수 총회장님도 봤으니까 봤다고 하는데, 왜 모세 말은 믿고, 총회장님 말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거냐고 하시더군요. 에텐성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는 제단에 처음 나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 중간 중간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음악소리를 들렸다는 겁니다. 악기 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또 바로 향취를 맡았는데, 아카시아, 장미꽃다발을 한아름 갖다 놓은 것 같은 향취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몇 년 동안 받았습니다.

한번은 아내가 생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목요일 새벽예배 있기 전날 밤에 머리맡에다 물을 떠놓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새벽예배 가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물이 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예배 시간에 나는 향취와 이긴자님께로부터 나는 향취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알곡에 혼자 일하러 갈 때도 향취가 난다 싶어서, 어디선가 이긴자님이 오시나 보다 하면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긴자님께서,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생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닳새째가 되니까 박하 향취가 방안에 말도 못하게 진동한다는 겁니다. 코가 매울 정도로 나는데, 그러면서 침이 고여지면서 맑은 물이 막 목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송 장로님께서 축복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안찰을 받았는데, 총회장님께서 축복을 하시다 말고 손을 떼시면서 “뒤에 씌었네.”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디 다녀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축복 받기 전날 옛날 덕소신양촌에 집이 싸게 나와서 집을 보러 갔는데, 어떤 영감님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와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예수가 개새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영감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고 나와 버렸는데, 그때 씌운 겁니다.

1996년에 아내가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뇌에는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 중에서 안쪽에 있는 지주막 아래쪽에 출혈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군요. 지주막하 출혈은 거의 90%가 죽는다고 합니다. 신경외과에서 가장 힘든 수술이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출혈이 있던 곳 밑으로 시신경이 지나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반신불수가 된답니다.

집도했던 의사가 일단 벽에 콘크리트를 치듯이, 출혈 부위를 거즈로 덮어서 굳게 만들었는데, 그럴 경우는 재발할 확률이 50%

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퇴원을 하고 이틀 만에 다시 재발을 한 겁니다. 재출혈이 되어 혈압이 잡히지도 않고,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출혈량을 보면 일주일 안에 사망하게 되는데, 장님이 되고 반신불수가 되더라도 빨리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군요.

목요일에 병원에 실려 갔다가,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재수술 날짜가 잡혀, 일요일에 예배를 본 후 이긴자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장님이고 반신불수보다도,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수술하지 말고 생수로 해보자.” 이러시더군요. 그러시면서 면담실에서 일어나시더니 직접 기도를 해주시더군요. 면담을 하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면담을 마치고 병원에 돌아와 보니까, 아픈 와중에도 남편 현금봉투까지 다 챙겨 주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의식은 있는 것 같은데, 꿈쩍도 하지 않고, 사람을 봐도 아는 척하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보처럼 되었습니다. ‘아! 하늘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바보처럼 만들어 놓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화요일에 수술이 잡혀 있었지만, 퇴원을 하겠다고 했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더 악화되어 가는데, 어떻게 퇴원을 시키느냐고 만류를 하더군요. 장님이 되고 반신불

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짧게 살다 가는 게 낫다고 하면서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이긴자님께서 거의 1년을 생수를 따로 해주셨습니다.

두세 달 정도 되니까 말이 터지더군요. 하늘에서 일부러 신경을 둔하게 하시고 다리를 못 쓰게 하셨던 겁니다. 절대안정이 돼서 회복이 빨리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으로 압니다.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큰 기적이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기적 중에 기적이랍니다. 아내가 약을 타러 가니까 의사가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더군요. 재수술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더군요.

Chapter 26.

장로 김길곤



김길곤: 1947년생. 전도를 받아 알곡성전 헌당예배가 있던 1987년부터 에덴성회를 나왔다.

출처: 월간에덴 8호(2006년 4월)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 받기 전, 현홍균 박사님께서 저를 전도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로 뜻을 들이시며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공기도 맑고 좋은 곳이 있다며 그곳에 알곡성전 준공식 때 초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구체적으로 알곡성전 준공식이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 진리를 찾아 노력을 많이 해온 현 박사님을 믿었기에 그분의 안내를 받아, 알곡성

전 준공식이 있던 1987년 11월 8일부터 에덴성회에 나오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박사님은 4H(농촌청소년학습단체) 시절부터 알게 되어,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기약도 없이 진리를 찾아 각 교파 현장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국내외 각 교파의 원리를 각 지도자(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이긴자 외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과 신학박사)들을 만나 그들의 주장을 경청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 진리의 진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었으며, 막무가내식이 아닌, 논리와 이론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오늘날 이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전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얼마나 우리 역사가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광주 시내 특수법인 삼애신용협동조합 전무로 재직하면서, 처음 이 역사를 현 박사님과 송원익 성회장(당시 광주 성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았으나, 그때는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마이동풍이었으며, 그냥 인사치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피땀 흘려 성공한 안정된 직장에서 실무 총책임자인 전무로 재직하며 마음의 안정을 이루고 있을 무렵, 서울에서 제2의 꿈과 새로운 삶을 펼쳐 봐야겠다고 생각하여, 1987년 가을에 과감하게 상경하여, 미국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정대광 총재(목사)님께서 설립한 세계국회의원선교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현 박사님으로부터 다시 에덴성회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무렵 전국 25,000개 교회에서 세계국회의원선교회 편지를 받아보고 사무실로 찾아오신 목사님들과 신학박사님들, 장로님들과의 자연스러운 친분이 만들어졌으며, 그분들의 사무실 방문이 쉴 새 없이 많았습니다. 이때 저는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의식과 실상 등,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 오늘날 이 역사와 비교는 물론, 진리의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 목동에 봉황산이 있습니다. 미국 정대광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거주하는 집이 그 산봉우리에서 제일 가까운 집인데, 제가 단독으로 2층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꿈에,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는 유대인이 하얀 옷을 입고, 마치 겿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총총 걸음으로 걸어가는 듯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밝은 빛의 광채가 비쳐, 꿈에도 주님인 줄 단번에 분별하였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생일대 최고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한동안, ‘내가 뭐라고 주님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한없이 드렸습니다. 그때가 이 역사에 초청받기 2주일 전쯤이니까, 오늘날 보면 모두가 엄연한 주님의 손길인 요 은혜라고 생각되며, 이 역사가 확실한 주님의 산 역사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와보니 알곡성전 경내는 위엄과 장엄함이 서려 있고,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주님에게 겸손한 자세로 경건하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으며, 넓은 성전은 깨끗하고 조용하였습니다. 공기가 맑고 청명한 곳에서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손뼉을 치며, 악기에 맞추어 각기 재능을 다하여 마음껏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과 주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드렸으며, 성전은 아름다운 산천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었고, 구석구석의 정성이 담긴 견고한 건축물들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런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과 주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까지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나오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내리는 느낌은 물론, 백합화와 같은 진한 향취, 얼굴에 느껴지는 불같이 뜨거운 느낌, 마치 성냥불을 켜서 붙이면 금방 타 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겨울철 뜨거운 온돌방에서 취침을 하는 중인데도 5, 6월 깊은 산속에서 물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맛보며, 이런 돈으로 살 수 없는 흡족한 기분에 흥분과 감사의 기도가 자연적으로 이어져, 이 작은 입으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 제단 예배와 임원회의 때 이긴 자님의 눈썹 사이 위에 ‘피색 십자가’가 예배 시작부터 한참 동안 또렷이 보이는 일입니다. 물론 처음 보여주실 때는 저의 눈을 의심하고, 자꾸 눈을 비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 자신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지켜봐도 한결같아, 이때 저는 속마음으

로, “주님, 저는 이긴자님을 한 점 의심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감람나무 이긴자님이며, 요한 계시록의 사명자시요, 마지막 역사를 마무리하실 영적 지도자인 것을 0.1%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 장거의 역사, 6천 년 만에 에덴동산의 복귀를 위한 이 땅의 조건을 마무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주님께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알곡성전에서는 이긴자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이긴자님 뒤에서 빛으로 또 한 사람이 있는 것같이 이긴자님을 감싼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은 언제나 오늘날까지 한결같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긴자님 이마의 ‘피색 십자가’를 한 3년 가까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주님 제일주의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오늘날 일거수일투족 이긴자님을 통하여 세미한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며 하늘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이긴자님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죄를 씻는 종교라고 늘 강조하신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루는 서울 제단에서,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저도 밑에서 기도 중에 있는데, 김해성 성회장님의 목소리로, 저의 귀에다 대고

오늘 안찰을 받으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서도, 기도 중이니까 저는 눈을 감고 머리로 끄덕끄덕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김해성 성회장님에게 전화를 드려, “혹 서울 제단에서 기도 중에 저에게 귀에다 대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여쭙어 보니, 깜짝 놀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기도 중에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시기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것 역시 예사로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안찰을 받고, 그렇게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심 안찰을 받아야 할까 말까, 오락가락하니까 당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입에서 감사의 말씀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증거가 분명한 산 역사라고 감히 간증을 통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는 갑자기 힘 있는 바람이 스쳐간다는 것, 뒤에서 누군가 등을 꼭 누르고 있는가 하면, 머리를 강하게 치기도 하고, 죄 타는 고약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 죽은 곳에서 노인 냄새가 자욱해야 하는데도 산속으로 착각할 정도로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는 등, 증거를 다 들자면 일일이 헤아리기에 끝이 없습니다.

목동운동장에 전국 청년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21세기 위

대한 한국을 위한 사랑과 평화의 대제전' 행사를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운동장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그리고 행사 개막식 때 얼마나 진한 백합화 같은 향취가 진동하는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때 제 옆에는 유영달이라는 친구가 화장실에 다녀와서, 제 손을 짹 잡으며, “친구! 향취가 화장실까지 따라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의 각종 생화 전체를 다 이 운동장에 옮겨와도 지금 풍기는 이 백합화의 향취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황송하더군요. 이 행사에는 현홍균 박사님을 비롯하여 신정철 장로님, 김성필 집사, 양봉문 집사 등, 감람나무 가지들이 참석하였고, 또한 행사 내용과 제목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었기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각종 행사장에서 사회를 볼 때나, 어떤 비중 있는 개인면담을 할 때는 저의 입술 밖으로 다음 하고자 하는 말이 툭툭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고서 얼굴에 뜨거움을 꼭 느끼곤 하는데, ‘아! 성령이 함께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느낌을 바로 깨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황홀함을 만끽하며, 늘 마음속으로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느끼게 하여 주시니, 역시 일곱 눈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이긴자님의 말씀이 실감납니다.

꿈에서도 이긴자님을 뵈올 때가 다반사인데, 한마디로 이긴자

님을 꿈에서 뵈면 새벽부터 기분이 날아갑니다. 이유 없이 마냥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이긴자님 생각만 해도 이유 없이 든든합니다. 주님을 대행하시는 이긴자님을 본 것은 주님을 본 것이나 같으니, 그런 느낌은 당연합니다.

부족한 저는 이긴자님을 주님과 같이 모셔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한결같으며,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님으로부터 이긴자님에게 이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요16:8 참조) 이것은 성경 상으로 비취볼 때도 전혀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그간 이긴자님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작은 말씀까지도 부도 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지도자들을 상면하였지만, 이긴자님만 한 지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I.M.F. 이후에 그 어려운 최악의 경제 여건에서도 알곡성전 부대시설과 건설 사업에 즐기차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두지휘하시며 일하시는 이긴자님의 언행일치, 이건 정말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일 같으면 이긴자님 말씀대로 이미 건강 때문이라도 감당을 못하였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런 별천지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운명을 행복하게도 다 지켜보고, 호상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작고(당시 83세)는 이 역사에 오기 전이고, 어머니는 이후에 작고하셔서 두 분의 운명의 차이를 확연히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작고 때는 장례에 대해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다 일임하였지만, 어머니 장례는 사전에 집안 어르신들에게 절차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윤진덕 성회장님(당시 광주성회장)의 예배 인도로 광주에덴성회 성도들이 다함께 수고하여 원만하게 장례를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작고 시 장례의 차이점을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사전에 설명하고,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그 사실을 입증시켰습니다. 그 일은 오늘날 가족들의 신앙에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생수를 바른 어머니의 시신은 아버지와 같이 굳지 않아 칠성판 위에 시신을 놓고 세 등분으로 묶을 필요가 없었으며, 시신이 부패하지 않으니 각 구멍을 솜으로 막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운명 전에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이긴자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드리고, “우선 음부에 가 계셔도 주님의 생수의 역사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나, 심판받고 구원을 받게 되니 마음 놓으시고 가 계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의 말씀을 경청하고, 대답할 힘이 없어 눈으로 깜박깜박하며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광주에덴성회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저는 먼저, 직접 가지고 온 생수를 수저로 두 그릇을 입에 넣어 드렸으며, 남은 생수로 얼굴과 손과 발에 발라드렸더니,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변하고, 입술은 불그스레해지며, 이마에는 이슬이 맺히는 것이었습니

다. 편안히 운명하는 것을 온 식구들과 함께 보고, 내심 놀라고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노인방(당시 어머니 연세는 86세)이어서 사실 냄새도 여간이 아니었는데, 생수를 어머니의 몸에 바른 후, 청명한 산속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 신비함을 빨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이 상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머니의 입관도 그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안장을 시킬 수 있어, 자식 된 사람으로서 여간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아버지는 구식 장례 절차대로 치러져, 지금도 간혹 자식으로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추도예배로 대체하여 다행입니다만. 죽음의 불청객이 오면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입관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칠성판 위에 삼등분으로 묶는데, 그 자체도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온 식구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리고 냄새 때문이라고 하지만, 각 구멍마다 솜으로 막을 때, 또한 그렇게 보기 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머니는 자식인 제가 직접 어머니의 마지막 운명을 처리하며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니, 이 역사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한량없습니다.

Chapter 27.

권사 최순호



최순호: 1946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다 전도를 받아 1988년부터 청주 에덴성회를 다니고 있다.

출처: 계간에덴 29호(2009년 1월)

저는 1946년도에 경기도 이천에서 출생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순탄하게 자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서울시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처녀 때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었고, 절에 다니는 생활을 5년 정도 하다가, 31세 때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이후로는 특별한 종교 활동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친구의 전

도로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절에 다닐 때는 별 느낌 없이 왔다 갔다만 했는데, 영락교회에 처음 나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찌릿찌릿한 전율이 오고,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앙 체험을 처음 한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아,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절에만 다녔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그 말씀이 참 달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예정된 말로까지, 모든 것을 망라한 성경 말씀을 듣고 보면서 신세계에 온 듯한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깊은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큰 만큼 여러 가지 의문도 커져 갔지만, 딱히 의문에 대한 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영락교회에 다니던 중, 살고 있던 집주인의 권유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순복음교회 구역장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 말씀이 깊다는 것을 듣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요한 계시록 등 영락교회와는 또 다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감명을 받아, 계속 그곳으로 나갔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순복음교회로 옮기고 5년쯤 지났을까,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남편이 종로에서 직원도 여럿 두고

전화 가게를 크게 운영하였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이후로는 지방을 전전하며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습니다.

여주, 충주, 원주 등,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도, 말씀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여,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곧잘 나갔지만, 교회에서 세상 얘기만 할 뿐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실망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커져, 어느 순간 교회에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5여 년의 시간을 보낸 후, 제 나이 43세 때 청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청주에 정착하면서 자주 다니던 미장원이 있는데, 머리를 하던 중, 우연히 진짜 참기름을 파는 분이 계신다고 하여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소개를 받아 참기름 한 병을 받아서 먹어 봤더니, 참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을 더 부탁을 했는데, 참기름 파시는 분이 두 번째 만나던 날, 혹시 신앙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던 때라, 말씀은 듣고 싶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근처에 조그만 개척 교회가 있는데, 걸모습만 그럴듯한 다른 교회와는 달리, 말씀이 정말 깊고 좋으니 한번 나와서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은 때였지만, 가슴 한곳에 믿음과 말씀에 대한 갈증만은 여전히 품고 있었으므로, 흔쾌히 그분을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참기름을 매개로 저를 전도했던 분이 청주성회의 이관순 집사님입니다.

이관순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갔더니, 신창기 성회장님께서 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에선 신창기 성회장님 어깨와 머리 위로 부슬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이 낡아서 지붕이 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씀은 귀에 속속 잘 들어오는데,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관순 집사님에게 “개척 교회라 그런지 건물이 많이 허술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성회장님 어깨로 빗물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깜짝 놀라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모습을 본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지붕에서 물이 새는 일이 없으며,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새겠느냐며, 영적으로 이슬이 내리는 광경을 본 것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교회를 이제 다시 다니려고 합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알려 주십시오.”라는 요지의 내용을 진심으로 기도하던 중, 갑자기 놀랍게도 제 무릎 위로 이슬이 축축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이 교회가 참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에 나가서 듣는 말씀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목말랐던 갈증이 해소되는 것같이, 시원하고 꿀맛같이 달콤하게 들렸습

니다. 이 교회가 밖에서는 이단이라 불리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제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단이라 불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척이나 반대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다녔습니다.

한번은 집에서 선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이 나타나 좁은 골짜기 옆 바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회장님이 생수로 몸을 맑게 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 너머에는 에덴동산이 있는데, 그냥은 절대 못 지나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성회장님의 말씀이 너무도 강경하여, 생수를 큰 물통으로 한 통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그 물로 목욕을 하려고 통을 흔들었더니 통에 든 물이 새빨강게 피같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아, 생수가 정말 예수님의 피고, 여기는 주의 피권세를 지닌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단에서 예배가 있다고 하여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기도 하여 잘됐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키가 3미터 가까이 사제복 비슷한 검은 도복을 입고, 눈과 입이 빨강고, 피부는 하얀 것이 좌우 위아래로 훅훅 지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고 겁이 났지만, 그 와중에도 주님과 이긴자님을 찾으며 물러나라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창문으로 훑 나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마귀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회장님이 며칠 있다가 알곡성전에 성도님들과 같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알곡성전 넘어가는 언덕과 계곡이 있는 장소가 꿈에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곡성전에 직접 와서 보니, 신기하게도 꿈에 본 그 장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긴자님을 보았는데, 뵙는 순간 주님을 뵙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긴자님을 보는 순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여기서 정착해야겠구나. 이제 죽으나 사나, 이곳에서 열심히 믿음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다닐 때부터 기도를 생활화했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사에 기도합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모든 일들이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몇 해 전에는 병을 기도로 치유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2007년도 일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던 중, 파마약이 귀로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루 정도 지나고부터 귀가 들리지 않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보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겠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반대가 심하여, 소리 내서 기도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주님,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병원에 가기 싫습니다. 주님이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키가 큰 누군가가 따라오라

고 해서 따라갔더니, 앞에 바다가 보이는데 그 사람이 위로 날아 올라가서 저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귀에서 ‘빠악’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귀에서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 면봉을 가지고 귀를 파 보았더니, 고름이 흘러나오던 귀가 멀쩡해졌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청주에 정착하고 에덴성회에 나오면서 신앙적으로도 빛을 보았지만,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믿지 않고, 반대가 심한 것이 크게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국수를 먹고 잘못됐는지,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증상이 있다고 해서 급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병을 얻어 걱정이 컸습니다. 병원에서 간호하는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면 복도 계단으로 가,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으로 알고, 주님 뜻대로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어떻게 될 것 같던 남편의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번은, 남편 간호를 하면서 “당신이 산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니, 앞으로는 제가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세요.”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는지, 평생을 반대로 일관하던 남편이 말은 안 했지만, 수긍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간호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병균이 옮았는지, 눈병에 걸렸었습니다. 눈이 빨갧게 충혈되고, 자고 나면 눈곱이 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도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생수를 눈에 넣은 후, 손으로 눈을 감싸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눈에 병이 걸려서 주위 사람들이 병원에 가라고 성화가 심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고쳐 주실 것으로 믿고, 병원에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눈을 치는 것같이 탁탁탁 하는 느낌이 눈에서부터 등쪽으로 죽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렇게 끼던 눈곱도 말끔히 없어지고, 충혈도 사라졌습니다. 주위에서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치료도 안 받고 나았냐고 물어왔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에덴성회에 나온 지도 20년이 흘렀습니다. 미천한 저에게 여러 체험과 축복을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회를 위해 전도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이긴자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Chapter 28.

장로 김홍술



김홍술: 1941년생. 어려서 전도관을 다니다 전도사로 활동하였다. 1980년대 들어 박 장로의 변절을 보고 전도관을 떠나, 개척 교회를 도와 장로가 되었다. 교회가 커지며 목사가 교만해지자 그곳을 나왔으며, 주의 종의 설교 테이프를 듣고 깨달아 1994년부터 에덴성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출처: 계간에덴 32호(2009년 10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강원도 속초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10대의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 바로 위에 전도관이 지어졌는데, 집 바로 옆에 전도관이 있다 보니, 꼭 누가 전도를 해서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전도관에 나가게 됐습니

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 철없는 호기심 같은 마음으로 전도관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에 살던 갓난아이가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곧 죽을 것 같던 아이가 전도관에서 병을 치유 받아서 살아나고, 다른 환자들도 곧잘 병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은사임을 깨닫고, 전도관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열성적으로 전도관 생활을 하다 보니, 비교적 이른 나이인 1961년 20살 때, 강원도 간성에 전도사로 발령 받아 전도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간성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중, 가까운 강원도 거진을 개척하라는 명을 받아, 거진에서 개척생활을 했습니다. 거진전도관 시절, 젊은 처녀 신도 한 명이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신도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병을 고칠 수 없겠냐고 하소연했고, 그 시절 못 고치는 병은 없다고 믿은 저는, 걱정 말라고 하고서는 그 처녀를 데리고 박태선 장로님이 계신 소사신앙촌에 가서 새벽 일찍 문 옆에서 있다가 첫 순서로 안찰을 받았습니다. 안찰을 받고 나온 그 신도가 혼자 걷기 시작하더니 지금 흰돌성전보다도 더 가파르고 높은 오만 제단을 혼자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후, 거진전도관은 더욱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태선 장로님은 말씀보다는 병 고침이나 은혜 체험이 강했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기사 체험을 보고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이긴자님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박태선 장로님은 유치원 수준으로, 말씀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사와 이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긴자님의 깊이 있는 말씀으로 갈고 닦았다면 감람나무의 역사는 지금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진전도관에서 전도사 활동 중, 24살에 결혼을 하면서 잠깐 휴직했다가 다시 복직을 하게 되어, 1965년 강원도 진부로 다시 발령을 받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세끼 강냉이죽도 먹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때라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 전도관에 시온고등공민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치고, 축구부도 만들어서 정규학교의 축구부 학생들과 시합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건물도 손수 벽돌로 짚어서 2개의 교실을 건축하였고, 50여 명의 남녀 학생들이 모여, 비록 야간 학교였지만 아이들이 성실하고 열의가 있어서 참 열심히 공부했고, 이 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부전도관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진부에 가면 그 시절 손수 벽돌을 짚어 건축한 학교 교실 건물이 있는 것을 볼 때 감회가 어렵니다. 진부전도관이 부흥이 되자, 이번에는 경남 거창을 거쳐 부산 해운대로 발령 받았습니다. 해운대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였으나,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둘이나 되었는데, 전도사 생활만으로는 도저히 생활고를 헤쳐 나갈 수 없어, 전도사를 휴직하고 서울로 올라와 일반 신

도로서 전도관을 다녔습니다. 일반 신도로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오면서 박태선 장로님이 성서를 부정하고, 말씀이 처음과 달라지는 것을 보고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나무가 성서를 부정하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 박 장로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1982년에 전도관을 나왔습니다.

전도관을 나온 후, 주일날만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허전하여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박 장로님이 아무리 성서를 부정해도,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어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교회를 찾아 사방을 찾아다녔으나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던 중, 집 근처에 있던 개척 교회(한서제일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개척 교회 목사가 젊고, 일하는 모습이 때가 묻지 않아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도관에서 전도사 생활하던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 교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도 열심히 했고, 저의 열성까지 더해져 처음 개척 교회를 나갈 때 신도가 20여 명이었는데, 에텐성회로 옮길 때는 신도 수가 천 명이 넘어서는 큰 규모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워낙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사가 모든 일을 저와 상의했고, 교회의 초대 장로까지 됐습니다.

기성 교회는 사람들의 신념이, 죽어서 가는 영의 세계는 둘째

고, 첫째는 지금 살아서 복 받아 하는 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헌금도 단에서 아무 개 집사 감사헌금, 아무개 장로 감사헌금, 하는 식으로 단에서 헌금 명단을 10분이고 20분이고 불렀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관습이 보기 안 좋았던 저는 목사에게, “목사님, 헌금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공로를 쌓는 것인데, 단에서 명단을 발표해 버리면 하늘에 갈 공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헌금 명단을 부르는 순서는 빠른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니, 제 말을 무시할 수 없었던 목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명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장로님, 명단을 안 불렀더니 헌금 액수가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명단을 불러야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명단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교회는 주로 봄, 가을에 부흥회를 하는데, 유명 부흥강사의 기준은 헌금이 많이 걷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많이 모이면 유명 부흥강사고, 많이 안 모이면 별 볼 일 없는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설교 말씀도 헌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테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셔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입니다.

교회의 신도 수가 많아질수록 목사가 교만해지는 것을 보았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보다는 현실에서의 행복과 축복을 원하는 신도와 그것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부패한 교회를 보고는 실망

과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기성 교회가 아무리 입에 바른 좋은 말을 해도, 사후 내세에 대하여는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말해주는 목회자를 보지 못하였으며, 이곳에는 은혜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이즈음 예전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같이했던 친구인 정재순 씨가 전화를 해서, 최병식 장로님이 한번 만나자고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최병식 장로님은 처음 속초전도관에 나갔을 때 전도사로 계셨던 분으로, 그분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고, 또 예전 친구들도 보고 싶은 마음에 날짜를 잡아서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던 터라, 예전 전도관이며 지내온 시절 얘기를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했습니다. 새벽예배 시간이 되어 이긴자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광경이 TV를 통하여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설교 말씀이지만 참 특이한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쯤 지나, 정재순 씨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친구인 이응규 씨와 함께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고 가는 길에 이응규 씨가 돌아가는 길에 심심할 테니 이 테이프나 들어보라고 22주년 기념 예배(1995년도) 설교 테이프를 건네주어, 가는 길에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네 짐승에 관한 것이었는데, 듣는 순간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맞아! 맞아! 맞아!”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수많은 부흥강사의 설교 말씀을 들어왔고, 셀 수 없이 많은 부흥회를 다녔으며, 기성 교회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했고, 장로 직분까지 받고 있었지만,

감람나무가 아니면 지구상에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이긴자 감람나무임을 확신했습니다.

이후 기존에 다니던 교회와 에덴성회를 함께 다녔습니다. 기존 교회에서 1부 예배 마치면 바로 에덴성회에 와서 말씀 듣기를 한 달 정도 하는 이중생활을 하다 보니, 이도저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10년 넘게 다니면서 목사님과 함께 키워 온 교회이다 보니,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도장을 새기러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파주세요.” 하니, 도장 새기는 사람이 “인감 도장입니까, 막도장입니까?” 하고 묻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도장 파줄 것을 부탁하고, 조금 후에 찾으러 가서 도장을 받아 들고 찍어 보니,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고, 동그라미 4개가 마치 올림픽 마크처럼 나란히 끝이 맞물려 겹쳐 있고, 테두리는 네 잎 클로버의 잎 모양으로 새겨 있는데, 꿈에 보고 있는 중에 클로버 잎 모양의 테두리가 깨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도장을 새긴 사람에게 무슨 도장을 이렇게 봤냐고 호통을 치고, 다시 파 달라고 한 후 한참 후에 다시 찾으러 갔는데, 먼저 도장을 파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장을 꺼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어 보니, 이상하게도 크기가 16절지만큼이나 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가운데에 ‘이긴자’라고 글씨가 내려 쓰여

있고, 그 글자 주위를 실제 살아 있는 감람나무 가지 둘이 에워싸고 있었으며, 이긴자 글씨 옆으로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도장을 파준 사람에게, “교회에 갑시다.” 하니, 그 사람이 성경과 찬송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동그라미 네 개를 에워싸고 있는 테두리가 깨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것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살아 있는 감람나무 가지 둘이 이긴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현재 살아 있는 감람나무 역할을 하는 분이 이긴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암시가 느껴졌습니다. 꿈에 도장을 보여주신 것은 요한 계시록에 이긴자가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꿈을 꾸고는 결단을 할 마음이 더욱 확고해져서, 목사에게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목사는 목회를, 장로는 장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고, 신도는 신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며 주님께 갔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자를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하니,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 교회를 옮깁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하실 때에 주님이 모른다 하는 그런 목회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단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나온 12권(1974년~1998년)의 설교집과 테이프를 모두 구해서, 와이프에게 미안할 정도로

보고 듣고를 반복했습니다. 설교집과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영수 총회장님이 두 감람나무 중에 한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고, 이긴자와 감람나무는 같은 존재이며, 이긴자에게 유업으로 주는 생명수 샘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임을 성서적으로 깨달았습니다.

2005년도에 이긴자님께서 떡집을 맡아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1년간 떡집을 운영하다가, 건설 현장 일을 하라고 하셔서 현장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일을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이긴자님 지시로 기둥을 하나 세우면, 그 뒤로는 계곡에 낭떠러지인데, 혼자 생각으로는, ‘저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하다 보면, 산이 깎이고 메워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로 변하는 것처럼, 이긴자님의 역사도 그와 같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들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며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했을 한갓 필부인 어부에 불과한 그들이 (물론 모두가 어부였던 것은 아닙니다만)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을 보필하다가 주님께로부터 12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를 이어 받은 이긴자님과 함께 생활하고 보필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책임을 저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으니,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날 깨닫지 못해 사망의 사슬에 얽매어 방황하던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불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긴자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감동을 주셨으니, 주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Chapter 29.

장로 신동운



신동운: 1936년생. 일반 교회를 다니며 목회자들의 언행불일치에 회의감을 가지다가 1995년 에덴성회에 전도를 받아 진리를 깨달고 적을 두게 되었다.

출처: 계간에덴 38호(2011년 4월)

저는 1936년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나, 1973년에 인천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인천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군대는 군정과를 나왔는데, 군 행사 중에 무의탁사병들을 데리고 함께 서울로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에 식사를 먼저 하고 가야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지역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다 보니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 소사에 큰 교회가 있으니 가보자고 해서 가봤는데, 그곳에서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들이 한 끼 식사대접을 하고 싶으니, 꼭 하고 가시라고 정중히 말을 해왔습니다. 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도관이었는데, 전도관에 다닌 적은 없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964년에 군을 제대하고, 다음 해에 안산지역의 동네 이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통일교에서 지역에 부흥회를 하러 자주 왔는데, 부흥회를 하기 전에 이장인 저한테 와서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한번은 통일교 경기도 순회사(경기지역 총책임자)가 우리 지역에 직접 와서 부흥회를 진두지휘했는데, 기성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순회사가 동네 통일교 책임자에게 저를 전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동네 책임자가 찢찢매면서, 저한테 제발 같이 가자고 청을 하고, 매일 와서 교리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일이 되어야 지상에 천국이 도래한다고 하고, 예수님은 이미 와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안산에서 일반 교회를 다니던 저로서는 기성 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통일교의 교주라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기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안 하면 모르지만, 했다 하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격입니다. 당시 지역 이장과 함께 향토예비군 소대장을 맡아 열심히 활동을 한 덕분에 내무부장관 표창과 함께 1972년에 당시

정부에서 보낸 상당한 금액의 하사금도 받았습니다.

1973년도에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인의 추천으로 인천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유명하고 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꼭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오는 발자국소리가 나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집에서 멀어, 새벽예배 다니기도 불편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즈음부터 침술을 배워 침술을 행했습니다. 중풍도 3주 정도면 고칠 정도로 효과를 보면서, 돈도 꽤 벌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남전도회장과 재정부장 등 교회의 중책을 맡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침례교회에 다닐 때는 새벽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모두 갈 때까지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는데, 기도 중에 키가 2미터 정도에, 머리통은 농구공만 하고, 장판지는 통나무만 한 마귀 같은 것이 뒤뚱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번은 기도 중에 표범 같은 것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하고 크게 외치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기도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삶은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닌 영적으로 무엇인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확신이 생길수록 신앙에 대한 갈증도 심해졌습니다. 갈급한 마음에 여러 곳을 찾아다녔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기도원을 세웠던 당시 유명했던 박장원 목사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도 다녔었습니다.

기도원에서는 일주일을 연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에 들어간 지 4일째 정도 되는 날에 박장원 목사가 오더니, “이제부터 향취의 은사가 나가니, 향취의 은사를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코끝으로 향취가 살짝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향취였습니다. 그러더니 박 목사가 향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천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향취를 맡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향취의 은사를 받고 보니, ‘이곳이 정말 주님과 연결된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따따따” 하는 방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언이라는 것도 그냥 따따따 하는 식으로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해괴한 소리인데다가, 박장원 목사가 계시록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처음 부분만 조금 설명을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하며 계시록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한 말은 인간적으로는 좋았으나, ‘이곳도 주님과 연결된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침을 놓다 보면 여러 환자를 보게 되는데, 그중에는 교회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직업을 가진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침을 놓게 되면 아픈 곳이 낫게 되고, 자연스럽게 저는 전도를 합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저 근거 없는 소문을 말하는 것이려니,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찾아와 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침을 다 놓고 나서 여느 때와 같이, 교회에 안 다니시면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절대 교회에 안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회자들이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호텔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식탁에 발을 올려놓는 등, 일반인도 하지 않는 매너 없는 행동들을 거침없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여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그럴 리가 없다고 하고, 고생한다고 신도들이 야참을 가지고 온 것일 것이라고 했으나, 그 사람은 너무나 단호히, 자기가 호텔에서 근무한 게 몇 년인데, 신도와 불륜의 여자를 구별하지 못하겠느냐며,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고 전도에 힘쓰며 살았지만, 영적인 목마름과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증언까지 들으니,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던 차에, 우리 집 뒷길에서 한복을 하는 장길례 집사가, 바

느질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가 아프다며 침을 맞으러 왔습니다. 다른 환자 같으면 침을 맞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도 하는데, 장길례 집사는 몇 번을 와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와서 환자가 없던 차에 장길례 집사가 왔습니다. 와서 침을 맞으면서 갑자기, “선생님, 저희 교회에 한번 안 가보실래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평에 있는 교회인데, 물 좋고, 공기 좋고, 경치가 참 좋으니, 한번 구경 오실 생각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다고 하니, 제가 못 가 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니, “이영수 총회장님입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매일 들으면서 웬만한 유명 목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영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하고 물으니, 장길례 집사가 우물우물 말을 못했습니다.

“목사 일을 하려면 신학대학교 나와서 하는데, 어느 신학대를 나왔는지 모르나요?” 하며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학대는커녕 중학교도 다 못 마치셨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 사회에서 목사 하려면 외국에 초청으로라도 가서 박사 학위라도 가져와야 쳐주는데, 하다못해 돈만 주면 나오는 대학원 졸업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목사인데, 중학교 중퇴한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다. 일반 교회하고는 다른, 진실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 집사님이 다 대답하기가 어려웠는지, 지금은 돌아가신 이춘희 성회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마다하지 않고 이춘희 성회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목사를 만나면 물어보는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왜 그렇게 인간들을 많이 죽였는가?’ 등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목사마다 대답이 다 다르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습니다. 성회장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일반 교회 목사에게 들었던 것과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면서, 너무나 마음에 딱 와 닿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사에게 대답을 들었고, 내 나름대로도 성경통신대학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이치에 맞으면서도 놀라운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왜소하고 불품없이 생겼지만, 사람을 외모로만 볼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움과 감동이 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춘희 성회장님이,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나갑시다.”라고 말했고,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1995년 10월 1일에 처음 에덴성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보러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의자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전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봅니다. 일반 사람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도 돛자리를 펴고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데 버젓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본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성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합화 향 같기도 하고 소나무 향 같기도 한 향취가 진하게 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향나무로 지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분쯤 지나자 향취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로 지어서 나는 향기였다면 계속 나아 하는데, 향취가 사라지는 것은 나무에서 나는 향이 아니라, 진정한 향취의 은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박장원 목사의 기도원에서 며칠을 기도하고 나서야 잠깐 스치듯 지나갔던 향취의 은사가 여기는 앉자마자 너무도 진하게 오래도록 머물렀다 가는 것을 보고, ‘바로 여기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찰도 처음부터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곳저곳

많은 곳을 거치기도 하고, 이상한 방언까지 했던 터라, 저 같은 사람은 안찰 받으면 게거품을 물고 쓰러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긴자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온 지 두 달 정도 지났을까, 성회장님이 “오늘은 안찰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했습니다만,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미루었습니다.

안찰을 미루며 기도를 하다, 어느 날 안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안찰을 받았습니다. 처음 안찰을 받던 날,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기절은커녕 별로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안찰을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제 앞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안찰을 받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긴자님이 그 아이를 보며, “아무개 아들이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일반 교회 같으면 어른들은 물론이고, 장로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개 어린아이마저 일일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안찰을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눈부터 코 주위까지 너무 시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시원한 생수가 목속을 흘러가는 것처럼 박하사탕처럼 화하고 시원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긴자님 다리를 붙잡고서라도 더 해주십사 하고 싶은 정도로 정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이긴자님이 단상에 서실 때, 이긴자님의 얼굴에 빛이 나서 얼굴

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최근에 1별관에서 보는 새벽예배 중에는 단상에서 계신 이긴자님에게로 안개비 같은 것이 쏟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 기성 교회는 물론이요, 기도원도 많이 찾아다녀 보고, 부흥회도 돌아다녀 보았지만, 항상 별다른 것이 없었고, 실망감만 더 쌓였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성회에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들려주시는 말씀의 깊이가 일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갈급함이 시원하게 해소되고, 하늘에서 이긴자님을 통해 큰 감동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